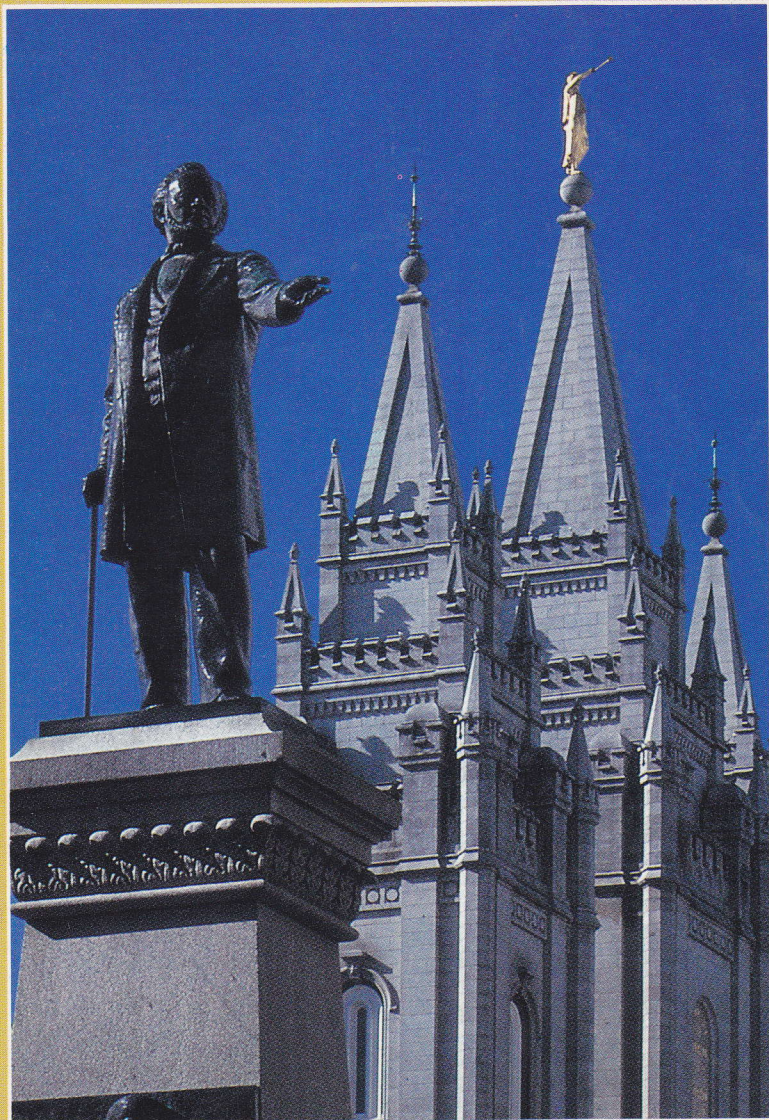


성도의 빛 7

1984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154 연차 대회 보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킴블
메리온 지 롬니
고든 비 힝클리

십이사도 평의회

에즈라 태프트 벤슨
하워드 더블류 헌터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왜커
마빈 제이 에쉬튼
브로스 알 맥콩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화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오르스

고문

앤 러셀 벨라드 이세
로렌 시던
맥스 디 피네가
찰스 에이 디데이
조지 피 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154 연차 대회 보고 1

교회 역원 지지.....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3

성도들에게 주는 권고의 말씀.....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 6

좋은 편을 택함.....마빈 제이 에쉬튼 장로 11

결혼과 이혼.....데이비드 비 화이트 장로 16

예수 그리스도 : 명칭과 그 의미.....지 호머 더덜 장로 20

영원한 집을 지음.....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 23

교회 감사 위원회 보고서.....윌로드 지 애드링 27

1983년도 통계 보고..... 28

영원하신 하나님의 원대한 뜻.....닐 에이 맥스웰 장로 29

성약, 의식 및 봉사.....에이 디어더어 티틀 장로 34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해 준비된 세대.....엘레인 에이 캐년 자매 37

어둠의 안개 속을 헤치고.....더블류 그랜트 뱁거터 장로 40

그들의 삶의 열기에 의해

따뜻함을 느꼈읍니다.....바바라 비스미스 자매 43

가정과 가족 : 신성하고 영원한 조직.....진 알 쿡 장로 45

기도의 본보기.....브로스 알 맥콩키 장로 49

선교 사업-오직 자신만이 결정할 수 있는 것.....데본 지 듀란트 53

누가 주님의 편인가?.....제이 토마스 파이안스 장로 58

잃어버린 양을 찾음.....조셉 비 웨스턴 장로 61

내 양을 먹이라.....보이드 케이 왜커 장로 65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사명.....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 69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총관리 역원 74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들.....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76

신앙으로 가능케 된 기적.....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80

거룩한 사도 직분예의 부름.....러셀 엠 넬슨 장로 84

"나는 교회의 자매들을 사랑합니다".....바바라 더블류 헌터 회장 87

복음 진리의 단순성.....로버트 엘 심슨 장로 89

진리의 실체.....제이 리차드 클라크 감독 93

바리세인과 세리하워드 더블류 헌터 장로 97

팔마이라 근처에서의 놀라운 시현.....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 100

분명한 나팔 소리.....안헬 아브레아 장로 105

네가 받은 복을 세어라.....요시히코 기구지 장로 109

교회 회원의 기도로 지지됨.....존 케이 카머 장로 113

"주님의 청년들아".....아데스 그린 캄 자매 115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엘 톰 페리 장로 117

사소한 행동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함.....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121

대회 뉴스..... 124

지역 소식 126

성도의 빛의 1년 정기 구독료는 3,500원입니다. 일반호의 1년 구독료는 40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년 구독료는 80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빛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 권 : 제227호, 제20권 제7호
 등 록 : 1967년 10월 4일, 라-932
 발행일 : 1984년 7월 1일(월간지)
 발행인 : 서 원 편집인 : 김 영 철
 번 역 : 한국 번역 출판부 ☎ 724-6832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 구좌 010041-31-514091
 인쇄인 :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건 수
 STOCK NO. PBMA0471KO PRINTED IN KOREA 7/84

© 1984년
 개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관련 소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154 연차 대회 보고

1984년 4월 7~8일,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템플 스퀘어 태버넌클에서 열린
대회 일정 및 말씀

금년 4월의 연차 대회와 관련되어 행해진
행사는 참으로 의의깊은 것이었다.

첫째, 교회의 새로운 교회 역사 및 미술 박물관이 대회가 있기 전인 4월 4일 수요일에 헌납된 것이다. 5,715 평방 미터에 달하는 전면이 화장암으로 된 건물은 태버넌클의 서쪽 길 건너편에 위치해 있다.

둘째, 대회가 있기 전인 4월 7일 토요일 아침에 다섯 개의 새로운 신전 건립 계획이 발표된 것이다. 미국에 세 개의 신전 그리고 캐나다

와 남아메리카에 각각 하나의 신전이 세워진다. 네바다주의 라스베이거스와 오레곤주의 포틀랜드, 캘리포니아주의 샌디에이고, 캐나다 온타리오의 토론토, 콜롬비아의 보고타에 신전이 세워지게 되면 말일성도 교회의 신전의 수는 47개로 늘어나게 된다.

토요일 아침에 개최된 일반 총회에서 러셀 엠 벨슨 장로와 앨런 에이치 욱스 장로가 십이사도 정원회의 새로운 회원으로 지지되어 1983년, 리그랜드 리차즈 장로와 1984년, 마



크리 피터슨 장로의 별세로 생긴 결원을 보충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두 명의 새로운 십이사도가 연차 대회에서 동시에 지지받은 것은 스펜서 더블류 킴볼 장로와 에즈라 태프트 벤슨 장로가 1943년 10월에 함께 지지받은 이래 처음 있었던 일이었다.

칠십인 정원회에 관한 중대 발표가 있었다. “교회에서는 교대로 책임을 맡는 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하고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은 말했다. “칠십인의 경우에도, 우리는 다른 직분과 마찬가지로 교회내에서 일반적으로 오래 전부터 따르고 인정되어 온 관례를 실시하려 합니다. ……그들은 종전에는 종신직이었습니다. 현재 봉사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그와 같이 봉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에 관한 한 재적 기간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이 기도하고 심사 숙고한 끝에, 오랜 기간 봉사하여 인품이 도야되고 완성되신 여러분을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으로 부르며 ……그분들은 영예롭게 그리고 감사하게 해임됩니다. 그들이 봉사하는 동안, 그들은 총관리 역원으로서 일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리와 권능과 권위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 직분을 맡아 일하는 동안 모든 시간을 이 일에 바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계기로 하여 새로운 인재가 계속 발전되고, 능력있고 신앙심깊은 분들이 이러한 직책에 봉사하게 될 기회가 훨씬 많아질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과 같이 힝클리 부대관장은 말하였다.

새로 지지받은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회원들은 다음과 같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존 케이 카버 장로, 콜로라도주 덴버의 러셀 시 테일러 장로, 유타주 파밍톤의 로버트 비 하버트슨 장로, 아이다호주 아이다호 펄스의 디비어 헤리스 장로,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의 스펜서 에이지 오스본 장로,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의 필립 티 손태그 장로.

그 다음에는 본부 상호부조회의 바바라 비스미스 회장과 회장단 및 본부 임원의 명의로 운해임 및 본부 청년의 엘레인 에이 캐넌 회장과 회장단 및 본부 임원의 명의로 운해임이 발

표되었다. 바바라 우드헤드 윈더 자매가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아메스 지 캡 자매가 본부 청년 회장으로 지지받았으며 보좌와 본부 임원들은 후에 부름받게 된다.

연차 대회의 다섯 모임 중 세 모임에 참석하신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에 대하여 힝클리 부대관장은 이렇게 말했다. “주님의 임명받은 종이 계시니, 이 사업에 관한 어떠한 중요한 결정도 그의 고려와 지시에 의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제 90세가 되시는 킴볼 대관장은 지난 일전 전보다 더 건강하게 보였다.

연차 대회 모임의 사회는 힝클리 부대관장과 에즈라 태프트 벤슨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이 맡았다. 메리온지 롬니 부대관장은 신병과 고령으로 인해 불참했다.

연차 대회가 있기 전인, 4월 6일 금요일에는 지역 대표 세미나가 열렸으며, 낮과 저녁에는 지역 대표 및 스테이크 부장을 위한 역원회가 열렸다. (페이지 참조) —편 집자. *



대회 광장

교회 역원 지지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주님의 사업에 종사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회는 실로 세계적인 대회입니다. 현재 회복된 복음은 90개 국에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랍고도 경이로운 일입니다.”

그 사업은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며 이 땅에 퍼져 나갈 것입니다. 그것은 이 사업이 때가 찬 경문의 시대에 회복된 주님의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여 그분의 아들과 딸들을 위한 전능자의 목적이 성취될 것입니다.

이 사업은 주님의 웅대하고도 영원한 계획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그의 이름을 받들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머리되시며, 우리는 그의 종들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의 뜻대로 행하며, 성령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주께서 명하신 것은 무엇이든 성취하기 위해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는 지상에 예언자를 세우셨습니다. 비록 그는 연로하시지만, 그는 주님의 예언자이며 주님의 뜻이 함께 하시는 동안 우리와 함

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임명받은 종이 계시므로 이 사업에 관한 어떠한 중요한 결정도 그의 고려와 지시에 의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대회를 시작될 때 우리는 예언자께서 표명하시는 뜻과 동의에 의하여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교대로 책임을 맡는 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봉사에 대한 부름에는 반드시 해임이 따르게 되며, 그것은 훌륭하게 봉사한 연후에 당연히 기대되고 반갑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명예로운 해임을 발표합니다. 바바라 비 스미스 상호부조회 회장과 두 분의 보좌, 메리언 알 보이어 자매님과 앤 리스 자매님 및 본부 상호부조회의 모든 임원; 엘레인 에이 캐넌 청녀 회장 및 두 보좌, 알린 비 다저 자매님과 노마 비 스미스 자매님 및 청녀 임원 전원이 해임됩니다. 이 자매님들은 재임 기간 동안 훌륭하게 일을 수행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은 오직 주님의 사업을 추진시켜 나가는 일에 수많은 시간과 재산과 능력을 다 바쳤으며, 개인적인 편의를 묻보지 않고, 멀리 그리고 널리 여행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우리의 사랑과 축복속에 물러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의 영을 항상 그들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그들의 가정에 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사랑에 넘치는 자매님들의 헌신적이고도 훌륭한 봉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들의 해임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이제 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그랜드 리차드 장로와 마크 이 피터슨 장로의 별세로 십이사도 평의회에는 결원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 이들 결원을 채우기 위한 초치를 취할 것이며, 또한 칠십인 제일 정원회도 보충될 것입니다.

칠십인의 경우, 우리는 직분과 관련하여 교회내에서 일반적으로 오래 전부터 따르고 수락해 온 관례를 따르려 합니다.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회원들은 부름, 임무, 권능 및 권위의 모든 면에서 총관리 역원들입니다.

그들은 종신직이며 현재 봉사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속해서 그와 같이 봉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에 관한 한 임명 기간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감독, 스테이크 부장, 지역 대표, 선교부장, 신전장 및 보조 조직의 회장들은 일정 기간 동안만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 후 그들이 명예롭게 해임되면 다른 사람에게 봉사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우리는 많이 기도하고 심사 숙고한 끝에, 오랜 기간 봉사하여 인품이 도아되고 완성되신 여섯 분을 질심인 제일 정원회의 회원으로 불러, 선교부장이나 신전장이 그러하듯이 3 내지 5년간 봉사한 다음, 그들은 영예롭게 그리고 감사하게 해임됩니다. 그들이 봉사하는 동안, 그들은 총관리 역원으로 일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리와 권능과 권위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 직분을 맡아 일하는 동안 모든 시간을 이 일에 바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계기로 하여 새로운 인재가 계속 발굴되고, 능력있고 신앙심깊은 분들이 이러한 직분을 맡아 일하는 기회가 훨씬 많아질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나는 총관리 역원들의 명단을 발표하여 교회 본부 역원들에 대한 여러분의 지지를 묻겠습니다.

우리는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을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으로 지지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모두 오른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리온 지 롬니 장로를 대관장단 제1보좌로, 고든 비 힝클리 장로를 대관장단 제2보좌로 지지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고,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심이사도 평의회회의 회장으로 에즈라 테프트 벤슨 장로를 지지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고, 반대하시는 분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심이사도 정원으로 에즈라 테프트 벤슨 장로, 하워드 더블류 헌터, 토마스 에스 몬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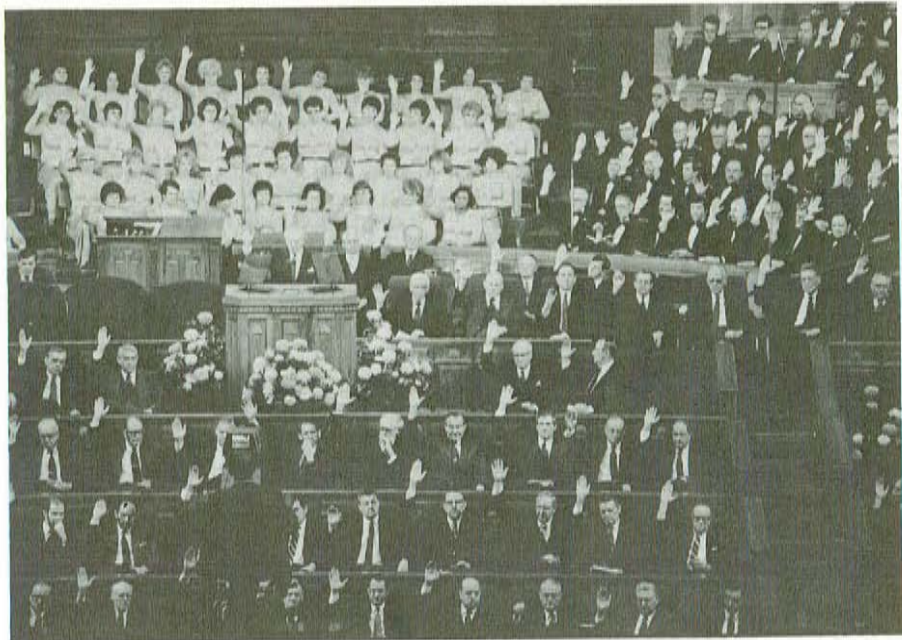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에워튼, 브루스 알 맥콩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앨런 에이치 욥스 장로를 지지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모두 오른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고,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앨런 욥스 장로에 관해서는 우리가 오늘 그를 지명하여 지지하지만, 그가 몇 주일이 걸리게 될 현재의 법원의 업무를 다 완수하기까지는 사도의 직분에 성임되거나 심이사도 평의회회의 일원으로 성명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도의 업무도 시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 이 도시에 계시지 않으며, 따라서 대회 모임에도 불참하셨음을 해명해 드립니다.

우리는 대관장단 보좌와 심이사도를 예언자요 선견자 및 계시자로 지지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고,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



대회 장면



대회 광경

시기 바랍니다.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회장단으로, 제이 토마스 파이안스, 칼로스 이 애시, 엠 러셀 벨라드, 딘 엘 라슨, 로이든 지 데릭, 지 호머 더럼,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를 지지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새로운 회원으로 존 케이 카맥, 러셀 시 태일러, 로버트 비 하버트슨, 디버어 해리스, 스펜서 에이치 오스본 및 필립 티 손버그 장로와 기타 모든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과 관리 감독단 및 현재 구성되어 있는 명예 회원 전원을 지지합니다. 찬성하시는 모든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의사가 있으신 분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바바라 앤 우드헤드 원더 자매, 청녀 회장으로 아메스 지 캡을 지지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모두 그 뜻을 표시해 주시고, 반대하시는 분도 마찬가지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분에 대

한 부름은 바로 몇 시간 전에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더 시간을 갖고 그들의 보좌와 기타 임원들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모든 본부 역원들과 임원들은 현재대로 구성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고, 반대하시는 분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관리 역원들과 이러한 본부 역원들에 대한 찬성 지지가 이제까지 만장 일치로 거행된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다른 사항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 다섯 개의 새로운 진진 건립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콜롬비아의 보고타, 캘리포니아주의 샌디에이고와 오레곤주의 포틀랜드, 네바다주의 라스베가스, 캐나다 온타리오의 토론토. 우리는 오늘 아침 7시 30분에 이 지역의 스테이크 역원들과 모임을 가졌으며, 그들은 모두 이 계획을 열렬히 지지했습니다. *

성도들에게 주는 권고의 말씀



에즈라 태프트 벤슨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첫째, 우리는 가족을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큰 영성이 요구됩니다.”

10년 전에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께서 이 연단에 나오셨습니다. 그 대회에서 그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으로서 전세계의 성도들의 지지를 받았었습니다.

그가 대관장으로 재임해 온 지난 10년간 우리는 교회 역사상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발전과 성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킴볼 대관장은 교회의 대관장으로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대회에서 교회의 프로그램은 “하나님의 사업을 정결하고 의로운 중에 대담하게 수행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복음의 진리를 세상에 전하는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성도의 빛, 1974년 8월호, 37페이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회 회원으로서 그리고 개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업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가에 관한 권고입니다.

첫째, 우리는 가족을 강화해야 합니다. 우

리는 가족은 문명의 초석이 되며 어떠한 국가도 가족이 속해 있는 가정의 중요성을 무시하고서는 존립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가정은 교회의 반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가정들에게 가정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현명하고도 영원한 목적을 위해 결혼을 제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가정은 의로운 생활의 기초가 됩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녀의 역할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버지가 가정을 관리하도록 정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생계를 부양하고, 사랑하고, 가르치고, 인도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역할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며 사랑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어머니는 남편의 내조자이며 남편과 상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자녀는 평등합니다. 다만 책임상의 구분이 있을 따름입니다.

또한 경건에는 자녀들에게 부모에 관한 의무에 대해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은 약속이 담겨 있는 첫 계명입니다.)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1-3) 하고 사도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부모는 훌륭한 동반자의 관계와 사랑과 단합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책임을 수행하며, 자녀들은 사랑과 순종으로 부모를 대할 때 커다란 기쁨을 얻게 됩니다.

최근에 한 교회 회원으로부터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당면하는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적은 편지를 받았었습니다.

그들은 신전에서 결혼했으나 그 후 미활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다시 교회 일에 활동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녀들이 계속 충실한 복음 생활을 하며 그들이 경험해 본 함정을 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개

인적인 조언을 구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들은 "어떻게 우리 가정을 영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가?"에 관해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각자가 이 의미 심장한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에 관한 대답을 드리면서 나는 여러분이 훌륭한 가족들이 서로 사랑과 단합과 믿음을 갖고 복음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수년간 사용해 온 확실한 공식에 관해 생각해 보기를 권합니다.

훌륭한 가족들은 가족 각자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사랑받고 인정받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이 그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안정감과 자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강한 유대로 뒤틀어진 가족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방법을 개발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함께 계획을 세우고,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협력합니다. 가정의 밤과 가족 회의는 이러한 목적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강한 유대로 뒤틀어진 가족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녀들과 늘 가깝게 지냅니다.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공식적으로 각 자녀와 접견을 하는 아버지가 있는가 하면, 비공식적으로 접견의 기회를 갖는 아버지도 있고, 규칙적으로 자녀들과 따로 시간을 갖는 아버지도 있습니다.

어느 가정이나 문제점과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가족은 비판이나 다툼을 하기보다는 함께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그들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의논하며, 격려합니다. 때때로 이러한 가족들은 가족 중 어떤 사람을 위해 함께 금식하기도 합니다. 강한 가족은 서로를 지지합니다.

성공적인 가족은 함께 가족 공동 작업, 휴가, 오락 및 친목회를 갖습니다.

훌륭한 부모는 악으로 오염된 환경 속에서 자녀를 기른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진전한 영향

력을 최대한 제공하기 위해 신중한 조치를 취합니다. 도덕적인 원리도 가르칩니다. 양서를 구입해서 읽게 합니다. 텔레비전 시청을 통제합니다. 훌륭하고 영성을 높여 주는 음악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생각을 키우기 위한 수단으로 경전을 읽고 토론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말일성도 가정에서의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회개와 침례 그리고 성신의 은사를 이해하도록 가르칩니다. (교성 68:25 참조)

가족 기도는 이러한 가정에서 끊임없이 행해집니다. 기도는 축복에 대해 감사함을 표하고 힘과 생계와 도움을 얻기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께 겸손히 의지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함께 드물을 꿇고 기도하는 가정은 주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다는 것은 현명하고도 참된 격언입니다.

성공적인 가족이 되게 하는 확실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나는 이 해결책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시온의 부모와 조부모로서 우리 모두가 영원히 함께 사는 것 즉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모두가 합당하게 되는 것이 내 아내와 나의 공동된 소망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모든 가정을 위한 나의 열렬한 소망이며 기도입니다.

이제 나는 교회의 회원인 여러분에게 개별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에게는 역사상 그 어느때보다도 더 큰 영성이 요구됩니다. 더 큰 영성을 발전시키는 방법은 경전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지키는 것입니다.

최근 교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의 하나는 새로운 각주와 주해가 실린 새로운 표준 경전을 발간한 사실입니다.

어떤 경문의 시대에도 오늘날처럼 주님과 예언자의 말씀을 이와 같이 풍요하게 받은 적이 없었다고 말한다 해도 결코 과장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녀에게 이미 전파된 나의 말을 연구하라.”(교성 11:22)

금년은 교회 성인들을 위한 교과 과정에 따르면 물문경을 읽는 해입니다. 에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 성스러운 기록에 대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물문경은 지상의 어떠한 책보다도 가장 정확한 책이며, 우리 종교의 종석이고, 이 책의 교훈대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에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90페이지)

우리는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나 가족이 함께 물문경을 연구하고 에언자 니파이가 권고한 대로 다음과 같이 행하기를 권고드립니다. 경전을 우리 생활에 적용시켜 경전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되도록 하십시오.(니일 19:23-24 참조)

우리는 안식일에 가족이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가정에서 함께 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역원 모임의 수를 줄이도록 신권 지도자들에게 요청해 왔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 시간을 이용하여 모임에 참석하고, 기독교인으로서의 봉사를 하고, 가족을 방문하고, 가정의 밤을 갖고, 경전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교회의 부름을 받아들이고 부름받은 직책에서 충실히 봉사할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서로 봉사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름을 성실히 수행하십시오. 여러분이 그와 같이 행할 때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게 되고 자신의 영성을 발전시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신권을 지닌 형제님들과 상호부조회 자매님들께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궁핍한 자의 필요 사항에 관심을 기울이시기를 권고합니다. 우리에게는 과부와 고아를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전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야고보서 1:27)

우리는 하나님의 제명을 지키도록 여러분께 권고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죄의 족박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섬기라.”(교성 5:5)

만사가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음을 고백하십시오.(교성 59:21 참조)

환난 중에 인내하십시오.(교성 24:8)

기운을 내십시오.(교성 61:36)

가정과 교회에서 신권을 지지하십시오.(교성 107:22 참조)

정직한 십일조와 후한 금식 헌금을 내십시오.(교성 119:4; 모사야서 4:21 참조)

이웃을 여러분 자신과 같이 사랑하십시오.(교성 59:6)

자녀들을 가르쳐, 빛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시오.(교성 93:40, 42-43)

서로의 결점 찾기를 그치십시오.(교성 88:124)

서로 용서하십시오.(교성 64:9-10)

정직하고 훌륭하고 현명한 자를 공무원으로 선출하십시오.(교성 98:10)

“입헌 국가의 법률인 그 법”(교성 98:6)의 편을 들고 순종하십시오.

절약하고, 빛을 갠으십시오.(교성 19:35)

탐내지 마십시오.(교성 88:123)

다른 사람과의 거래에서 정직하십시오.(교성 51:9)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십시오.(교성 59:10, 12-13 참조)

포도주나 독한 음료나 뜨거운 음료의 사용을 삼가하십시오.(교성 89:5-9 참조)

“부정을 금하”고, 외설물을 멀리하십시오.(교성 88:124)

가장 좋은 책에서 학문을 구하십시오.(교성 88:118) 악을 선으로, 선을 악으로 묘사하는 영화나 문학 작품을 피하십시오.

간음하지 마십시오. “이와 비슷한 어떠한

일도 하지 마십시오.”(교성 59 : 6) 이는 애무, 사통, 동성이 및 부도덕한 모든 형태의 것을 의미합니다.

쉬지 말고 덕으로써 여러분의 생각을 장식하십시오.(교성 121 : 45)

계속해서 덕을 쌓으며 기록하십시오.(교성 38 : 24)

“사랑의 끈으로 몸을 둘러싸”십시오.(교성 88 : 125)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십시오.(교성 98 : 11)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을 담대히 전하십시오.(교성 76 : 51, 79)

성약을 존중하십시오.(교성 25 : 13)

끝까지 견디십시오.(교성 14 : 7)

세상에 살기는 하되 세상에 속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고, 성도를 온전케 하며, 죽은 자를 구속함으로써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자신의 재능과 재산을 다해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행하고 지지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하십시오.

40여 년 전에 킴블 대관장님과 나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불과 몇 분 간격으로 사도로 성임되었습니다.

우리가 정원회의 일원이 되었을 때는 146개의 스테이크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1,460개의 스테이크가 있습니다. 800개 이상의 스테이크가 킴블 대관장님의 재임 기간에 조직되었습니다.

1943년의 회원 수는 100만 명이 채 못되었습니다. 오늘날의 회원 수는 5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거의 200만 명이 지난 10년간에 회원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현재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헌신적인 회원이 예전보

다 더 많이 있습니다. 선교 사업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퍼져 나갔습니다. 계보 사업과 신전 사업이 놀라게 증가되었습니다. 지도력도 향상되었습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은 보다 영적으로 잘 준비되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형제와 자매들이 활동화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신권 지도자 및 보조 조직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이 위대한 일을 해주시기를 권장합니다.

말일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충실함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큰 축복과 기회가 주어졌던 때는 결코 없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위대한 대업을 향하여 나아가지 아니하려느냐? 진진하여 물러서지 않으며, 용기를 내라……나아가고 또 나아가서 승리를 쟁취하자.”(교성 128 : 22)



대회 방문자

우리 회원들 가운데는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이야기나 교리나 관례에 관한 그릇된 해석으로 인해 혼란에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는 새로운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반대에 부딪쳐 왔고 앞으로도 계속 반대에 부딪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으로 말미암아 실망하지 마십시오. 계속 끈고 좁은 길을 걸으십시오. 여러분은 최막태 곧 경전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뿐만 아니라 이 지상에 살아 계신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 주어지는 그분의 말씀을 굳게 잡음으로써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경에 나와 있는 주님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너를 칠 목적으로 만들어진 무기가 유용하지 못할 것이요, 일어나 나를 송사하는 허는 네게 정죄당하리니, 이는 주의 종된 자들의 기업이요, 저들의 의로움이 나로 말미암

음이라. 주가 이르시노라.” (니파이삼서 22 : 17)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일은 주님의 사업입니다. 이 교회는 지상에 세워진 그분의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특별한 책임을 지닌 겸손한 자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신앙과 지지와 끊임없는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오늘날 그분은 자신의 뜻을 그분의 종들에게 전하신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이 교회는 그분의 교회이며 이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왕국임을 간증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및 온 세상의 선한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것은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간증과 축복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 드립니다. 아멘. *



스펜서 더글러스 킵을 대변함과 고든 비 힐들의 부대연장

좋은 편을 택함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전세계의 교회와 지역 사회에 더 많이 참여
할수록 훌륭한 여성에 대한 존경심과 감사하
는 마음이 더 커집니다.”

몇 주일 전 아이다호주에 가서 스테이크
부장단을 다시 조직하면서 여러 훌륭
한 신권 지도자를 만나 그들 중의 세 사람을
새로운 스테이크 부장단으로 성별하였을 뿐
만 아니라 쉽게 잊지 못할 매우 특별한 젊은
여성도 한 사람 만났습니다. 새로 부름받은
스테이크 부장단 가운데 한 사람은 당시에
감독 물망에 오른 사람을 집견하여 잡되
면 대회 다음 주일에 그가 성별되게 해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했
습니다. 나는 훌륭한 부장의 매력적인 부부
와 함께 개인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몇 마디 인사와 소개 말씀이 있는 다음 나
는 그녀에게 “남편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
오.”라고 말했습니다. 부인은 주저하다가
마침내 “예수님 장로님, 사실 저는 남편에
관해 잘 모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
다. 이것은 여성부의 대답이었으므로 즉시
“그 문제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말

했습니다. 부인은 “우리는 결혼한 지 불과 3
주밖에 안되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30대 초반의 이 젊은 부부는 남편이 변호
사이고 부인은 학교 교사로서 아직 신혼의
꿈에 취해 있었으며 서로 깊이 사랑하고 있
음이 분명했습니다. 그 두 사람에게 남편이
감독이 되는 것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하자 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칠 전
밤에 남편이 감독이 되리라는 꿈을 꾸었습니
다. 저는 그 부름이 너무 빨리 오지 않았으
면 하고 바랐을 뿐입니다.” 그리고는 계속해
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신혼 부부이
지만 장로님께서 저의 남편을 감독으로 부르
도록 영감받으셨다면 남편은 훌륭한 감독이
될 것이며 저도 남편을 돕겠습니다. (그들이
30세가 될 때까지 결혼을 기다린 이유는 서
로를 발견하는 데 오랜 시간을 보냈기 때문
이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태도입니까. 참으로 훌륭
한 지지입니다. 내가 질문하기 훨씬 전부터
그 부인은 남편과 교회와 자기 자신에게 헌
신했습니다. 그 부인은 좋은 편을 택하기로
결심했었으며 그러한 태도는 누가복음 10장
42절에 있는 마리아에 관한 의미깊은 말씀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
니라.”

나는 전세계의 교회와 지역 사회에 더 많
이 참여할수록 훌륭한 여성에 대한 존경심과
감사하는 마음이 더 커집니다. 오늘 이 특별
한 여성들에게 진심으로 찬사와 격려를 드리
고 싶습니다. 훌륭한 여성에 관한 나의 개인
적인 정의는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여성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성들의 용기
와 힘과 헌신에 대하여 계속해서 겸손한 마
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각각 인생
의 다른 환경에 있는 고상한 자에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모범과 격려와 콧줄과 인격
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업은 위대한 목적을
갖고 성취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
다.

특별히 교회의 독신 여성과 관련된 최근의 몇 가지 경험과 편지와 관찰한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우리의 사랑과 격려와 존경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현재의 위치나 역할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한 진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한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발전하며 좋은 편을 택하려면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행복과 열성과 기쁨을 찾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원리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지만 환경과 상황과 제도와 문화 형태는 변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자신이 처해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결의와 열의를 갖고 계속 진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처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전하고 인생을 즐기기 위하여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어떤 필리핀인 선교사의 어머니가 최근에 자기 아들의 선교부장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선교부장님께서 저의 아들에게 주고 계신 영적인 도움과 권고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이 참되지 않았다면 거의 8년이나 홀어머니로 지내는 것이 몹시 힘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며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은 저의 열렬하고 진실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저에게는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아들을 포함하여 돌보아야 할 자녀가 7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재능을 축복해 주셔서 이 여러 해 동안 저의 가족을 부양할 수 있었읍니다. 저는 양재사로 일하여 생활비를 벌니다. 저에게 영감을 주고 또한 홀어머니인 저의 처지를 명랑하고 자신있게 받아들이도록 도와 준 '교회 가족'(모든 회원)에게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여기 이 자매님은 가족이 하나님을 포함시키고 그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뿐인 가족이나 많은 사람이 있는 가족을 모두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좋은 편을 택하는 훌륭한 자매는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단지 초청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에 계시겠지만 하나님은 또한 그의 자녀로부터 위대한 자유의지의 은사 즉 선택권을 결코 취하여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젊은 어머니들은(홀몸이거나 어떤 다른 경우라도) 이 선택권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앞에 두 가지 이상의 행동 진로가 놓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진로가 모두 옳습니다. 그때는 생명의 기한과 기기에 필요한 사실들을 고려해서 현명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어떤 어머니는 자녀의 옷을 지어 주며, 빵을 굽고, 피아노를 가르치며, 상호부조회에 가고,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고, 사친회 모임에 참석하는 등의 일을 모두 할 능력과 힘을 갖고 있는 것같이 보입니다. 어떤 어머니는 이런 어머니의 예를 보면서 실망하고 자신은 부족합다며 그들과 비교할 때 실패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위험한 열등 의식에 빠져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도 사탄의 또 다른 도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인간적인 어머니" 또는 "초인간적인 여성"이 되어야 한다고 자신을 너무 독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성취하고 있는 것같이 보이는 것을 모두 다 할 수 없다고 해서 열등 의식을 갖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오히려 각자 자신의 처지와 힘과 재능을 평가하고 그런 다음에 가족이 함께 일하고 서로 돕는 하나의 팀, 또는 단위 조직으로 가족을 만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하십시오. 자기 자신과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만이 자신의 필요 사랑과 힘과 바라는 것을 압니다. 이 지식에 맞추어 자신의 향로를 계획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좋은 편을 택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 안에서 효율적으로 생활하는 한 용기있는 독신

어머니의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이 여성은 30대 중반으로 인생에서 가슴 아픈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남편과 신진 결혼을 한 직후에 남편이 비활동 회원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대부분의 시간을 남자 친구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자기 가족의 복지라든지 아내와 바람직한 관계를 갖는 것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의 생활에서 교회 활동이라고는 전혀 없었으며 곧 범법의 길로 빠져들어 갔습니다.

할 수 없이 이 사람스런 여성은 자신과 자녀의 생활비를 벌고 있습니다. 이 여성의 첫째 목표는 아들과 딸이 정서적으로, 재정적으로, 영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행복한 가정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그들의 가정에는 이런 행복의 요소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언젠가는 결혼 생활이 다시 시작되기 바라지만 현재로서 그녀는 자녀에게 필요한 관심을 보이고 교회와 교회의 가르침에 중점을 둔 튼튼한 가족 유대를 쌓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홀어머니로서 좋은 편을 택하였습니다.

상처입고 실망하는 때에는 그 누구도 우리에게 영원히 계속되는 상처를 입힐 수 없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면 이 여성이나 우리 모두가 위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만이 우리의 영원한 진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혼한 적이 없는 우리 자매들에게는 포기하고 노력을 중지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갖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하여 생각하라는 유혹이 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생활을 중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캐롤 윌라드 자매의 훌륭한 말씀 그대로입니다. "개인적인 목표는 성공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풍요하고 충만하고 기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산다는 단어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풍요하고 충만하고 기쁘게 생활하십

시오. 자신의 잠재 능력을 키우고 개발할 수 있는 기회에 가슴설레이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생활과 기회와 특권에 가슴설레이야 합니다.

외부 환경이 어떻든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결정하십시오. 인생의 첫 과정은 "내가 누군가?"를 배우고 받아들여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경전과 교회 가르침에서 이 질문을 주의깊게 연구하면 개개인과 모든 사람의 중요성이 입증될 것입니다. 훌륭한 자아상을 갖는 것은 인생을 직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단계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자신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심어 준 자아상만을 믿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이나 밖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가 아닌 여성은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시편 8편 4절부터 5절에서 이런 시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대."

그러나 사탄은 늘 우리의 영광을 파괴하고 우리의 관을 벗기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그의 가장 강력한 도구 가운데 하나는 실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독신 자매 여러분, 실망하여 사탄을 기쁘게 해주지 마십시오.

흔히 독신자들은 미래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길을 찾는 대신 자기 생각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공 지향적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여러분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교회 보조 조직과 지역 사회 조직에 참여하여 자신의 존재를 느끼게 만드십시오.

생각하고 행동하는 여성들이 오늘날 역사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간의 하나로 만드는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개인적인 공헌이 오늘날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들의 훌륭한 업적이 미래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활동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친구와 아는 사람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

러면 훌륭한 여성의 영향력은 그녀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나 문제가 아니며 우리가 그런 것을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나비와 같다. 그것을 쫓아가면 갈수록 멀리 도망갈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다른 것에 관심을 돌리면 나비는 날아와서 살며시 당신의 어깨에 앉을 것이다.”

이 교회에서 우리 지도자들은 큰 열의를 갖고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침을 주려고 노력하면서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관장단이 독신 와드 회원을 위한 지침을 준 최근의 서한에 관련하여 현재 독신 와드에 속한 사람들의 생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는 어떤 갑작스런 기존 프로그램의 변경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현재 스테이크 부장은 해당 감독과 상의하여 의견의 일치를 본 다음 교회 일반 정책에 대한 예의를 만들 권한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떠나라는 요청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은 모두 평등한 가운데 나이가 든 독신자가 이때까지 속하고 있었던 와드에서 활동적으로 남아 있는 것에 분명히 장점이 있으나 그 누구도 합당한 결혼을 할 기회가 생기지 못하여 자신이 쫓겨 난다든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고 느끼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정책 지침으로 일정한 연령 제한이 정해져 있으나 그 누구도 갑작스런 변화(그렇게 부르고 싶다면)를 통하여 쫓겨 난다거나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갖고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교회에서 원하는 것은 모든 회원에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행복하게 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배우자없이 사는 자

매들의 가치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매들 사이에서 강력한 지도자, 훌륭한 교사, 헌신적인 어머니가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용기와 재능을 갖고 생활하며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내심을 통하여 성공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게 결혼했거나 불행하게 결혼했거나 독신 부모이거나 미망인이거나 비활동 회원 부인이거나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자기 인생을 장악하고 성공하기 위하여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를 아시게 되도록 권고합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또한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기회를 드리지만 하면 여러분을 인도해 주고 지지해 주시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이 참여하게 하십시오. 자신의 개인적인 가치의 목록을 살



대회 장면

피볼 때 하나님이 참여하게 하십시오. “보라, 이 생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이 생애의 나날은 사람이 저들의 일을 수행하는 날들이다.”(엢 34 : 32)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목표가 없으면 자신의 발전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눈에 띄는 승리가 없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노력하는 것이 성공에 도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좋은 것을 추구하며 실질적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자신의 시간과 힘을 가장 현명하게 사용하며 매일 최선을 다하여 노력한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매일 대화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재능과 장점과 약점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런 특성을 발전시키고 세련되게 하기

위하여 지상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 주시리라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며 응답되지 않은 기도를 알고 계십니다.

용기있는 자매 회원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또한 우리 보기에 여러분은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도움과 우리의 개인적인 노력에 힘입어 행복을 달성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가 좋은 편을 택할 때 우리는 분명히 인생을 최고로 충만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 주실 것을 우리 구속주이며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합당하신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대외 광경

결혼과 이혼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가 우려하는 바는…… 많은이혼 부부들이 날마다 노력하고 보호하고 기르고 깔고 닦을 만큼 결혼 생활을 심각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이 함께 하시어 내가 드리는 말씀이 회복된 진리와 일치하고 그와 같은 하늘의 힘에 의하여 받아들여지고 이해되기를 간구합니다.

25년 이상 우리는 전통적인 가정에 끝없는 공격이 가해지는 것을 목격해 왔습니다. 인간의 선과 수양과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사랑과 경외심에 대한 거룩한 가치관은 계속해서 도전받아 왔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새로운 세대는 계속해서 가정을 조소의 대상으로 삼는 최대의 목표로 생각해 왔습니다. 결혼 생활은 비판받고 무시되었으며, 부모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기타 저해 요소와 더불어, 소위 축종적인 만족과 결혼 생활이나 아내나 어머니로서의 신성한 역할을 무시하는 등 여러 면에서 한 유혹의 풍조를 초래했습니다.

불행히도 많은 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

녀에 대한 그의 영원한 계획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건으로부터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는 결혼이 영혼을 통하여 지속적인 가족 관계를 맺는 영원한 결합이 되게 하신 것임을 알게 됩니다.

경건은 지구가 만들어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에게 지구 위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남자 옆에 여자를 세워 두시어, 그와 더불어 다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영예와 위엄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창 2:18)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창 1:27)

주님은 또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찌로다.”(창 2:24) 이렇게 하여 승인된 혼인으로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허락하셨으며, 이것은 인간의 육신을 창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아담과 이브에게 주어질 최초의 계명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 1:28)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양육하고 잘 교육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주님은 또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부르는 자녀에게 기도할 것과 주 앞에서 올바르게 생활할 것을 가르쳐야 하느니라.”(교성 68:28)

자녀들을 학대하거나 잘못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부모와 함께 그들은 영원한 관계를 가진 가족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주님께서는 태초에 아버지가 자녀를 갖게 하고, 부양하며 사랑하고 이끌도록 하며,

어머니에게 자녀를 임대하고 출산하며, 양육하고 가르치도록 모든 계획을 수립하셨습니다. 주님은 다른 방법으로 그 계획을 세울 수도 있었지만 책임과 목적이 있는 유대 관계를 나눌 수 있는 단위 조직을 두어 그 안에서 자녀들이 서로 배우며 가르치며 사랑하고 존중하고 감사하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스펜서 더블류 킵블, 대회 보고, 1973년 4월 10페이지.)

결혼이란 남편과 아내 사이의 사랑과 유대와 조화로운 관계이며 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모세에게 선언하신 바, “보라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 이것이 바로 나의 사업이요, 영광이니라.” (모세서 1:39)는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오늘날의 가족의 심각한 고통과 이혼으로 파괴된 가정들에 대해 슬픔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이혼의 주요 원인은 결혼과 가족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정하신 것임을 알지 못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의 완전한 의미를 알면 이혼은 줄어든 것이며 그에 수반되는 불행도 줄어든 것입니다. 부부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토대로 하여 행복한 결혼 관계를 위한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만일 부부가 그들의 사랑이 싹들 때부터 그들의 결혼 관계는 영원히 지속되리라는 약속을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결혼 생활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도 그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이혼을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않을 때는 이혼한다는 현대의 사조는 처음부터 결혼에 큰 장애가 됩니다.

날로 이혼율이 증가해 가고 있는 사실은 이혼이 불행하고 불만스러운 결혼 생활의 해결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이혼은 그것이 아무리 일반적으로 용납되고 아무리 빨리 그리고 손쉽게 할 수 있다 해도, 지금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비극적인 것이며 가슴아픈 것입니다.

이혼한다고 해서 실제로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들의 자신의 삶과 피를 나눈 자녀와 그들의 생활의 일부가 되었던 그러한 시절의 추억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겠습니까?

이혼에는 반드시 커다란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혼란이 따르는 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혼한 부부와 자녀, 친척, 친구 사이에 생기는 간격과 비참함과 분열과 좌절을 과소평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로 인한 감정적인 결과에 대하여 전혀 적응하지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비극적인 것은 모든 이혼의 60퍼센트 이상의 경우에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연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혼한 경우 그들 자녀의 대부분은 범법율이 높으며 자신감을 잃게 되고, 보다 부도덕한 행위를 하게 되고, 그들 자신도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결혼 생활의 커다란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결혼 생활의 성공을 위해 그다지 준비되지 못한 점에 크게 놀랄 것입니다. 대개 젊은이들은 한 두 달 또는 일이년 메이트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다가 친해지면 결혼합니다. 일단 결혼하게 되면, 사랑은 영적인 믿음과 인척 관계 및 돈 문제 그리고 윤리, 자녀 및 가정 운영에 관련된 심각한 문제들로 연결된다는 것을 곧 알게 됩니다.

상당히 많은 부부들이 이 숭고한 책임에 대해 잘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직업이나 전문직을 위해 수년간 준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혼만큼 가치있고 또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로웰 에스 베니온, 솔트레이크 트리본, 1980년 4월 6일, F.9페이지 “유타 가족 대회.”)

때때로 감독실에서 밝혀지는 상처받은 생활과 심각한 범법을 생각해 볼 때, 흔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많은 사람들이 현재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일 부부가 아량이 넓은 감독에게 가서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받거나 남편과 아내가 사려깊게 자제심을 발휘하고 비이기적인 사랑의 성품을 키워 나가도록 권고받는다면 결혼 생활이 곤경에 빠지는 수는 줄어들 것이며 그들은 더욱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수년 전 해롤드 비 리 대관장님은 결혼한 여성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편지를 받았습니
다.

“이제 종말이 왔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일이 있다면 그것은 이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런 일이 있을 때 감독과 상의해야 한다는 권고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감독이 싫다는 이유에서입니다.……그러나 그는 우리의 감독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를 찾아갔습니다. 우리는 젊은 감독에게 우리의 심정을 토론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앉아서 우리의 얘기를 끝까지 다 들더니 간단히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글쎄요, 저도 저의 처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그것이 감독이 우리에게 해준 말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젊은 감독이 해준 그 말로 인해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곳을 걸어 나오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독이 자기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못할 것이 무엇인가?’”(앤서인, 1974년 1월, 100페이지)

어느 저명한 영화 제작자는 최근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화나 텔레비전에서는 결혼에 관해서……회귀적인 면이나 비극적인 면에서 취급하기를 꺼려한다. 우리는 (성적인 것과 연관해서) 그러한 면에서 어린이들의 요점 이야기와 같이 재미있는 것만을 강조하고자 한다.”(칼 이 메이어)

우리가 우려하는 바는 매스 미디어 제작자들이나 작가가 행복하고 유익한 결혼 생활을 더 이상 묘사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기혼 부부들이 매일, 매주, 매년, 25년, 반 세기 또는 영원히 노력하고, 보호

하고, 기르고, 잘고, 닦을 만큼 결혼 생활을 심각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중년 부부들이 이혼하는 것은 극히 비참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성인들이 그들의 결혼을 보호할 만큼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45세 이상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혼은 놀라운 율로 증가되었습니다. 중년기의 사람들이 이혼을 생각할 경우, 부부는 이미 자녀들을 다 길렀으며, 손자까지 갖게 될 나이에, 이제 그들이 서로 갈라서기로 결심을 한다면 그들은 이혼이 그들의 한편 또는 쌍방간의 이기심의 결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라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니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 되……”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깨자를 행지 말찌니라.”(말 2 : 14-15)

결혼은 성약입니다. 십계명 중에서 두 가지는 결혼의 신성함을 보존하는 내용을 직접 다루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찌니라.”와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찌니라.”(출 20 : 14, 17)

예수님은 간음에 관한 율법을 더 확대시키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 하였느니라.”(마 5 : 28)

이상적인 결혼이란 남자가 서로 충실한 것으로, 그것은 자자 상대방을 선택했을 때부터 시작된 충실함입니다. 잠언에는 “네 셈으로 복되게 하라. 비가 끊어서 취한 아내를 복되게 하라.”(잠 5 : 18)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내의 애정으로 여러분이 항상 기쁨을 느끼고, 아내와 늘 깊은 사랑을 나누도록 하십시오.(잠 5 : 19 참조)

우리가 젊어서 취한 아내와 함께 생활하며, 주름살이나 백발이 뵈어도 불구하고 영

원히 서로 깊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지혜를 나누며, 인생의 노년기를 누리는 것은 참으로 큰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결혼은 그것을 이루신 신성한 분에 대한 신앙과 지식으로 지탱되며, 사랑의 힘에 의해 매일 지탱됩니다. 어떤 현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만족감이나 안전이 자신의 만족감이나 안전과 같이 중요한 것이 될 때 사랑하는 상대가 존재한다." (해리스택 설리반, "현대 정신 의학의 개념." 42페이지)

결혼 관계에 대하여 영원히 귀중한 어떤 것이 있음을 똑같이 강하게 확신하게 될 때, 악을 물리칠 수 있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결혼이란 "주 안에는 남자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고전 11:11) 하였으니, 아름답고, 성취감을 가져야 하며, 우리가 꿈꾸는 이상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말일성도는 이혼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혼

생활에 따르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만일 남편과 아내로서,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거나, 결혼 생활을 해 나가는 데서 어떤 긴장감을 느끼게 될 경우, 여러분은 함께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참마음으로 여러분의 관계에 덮여 있는 어두움을 거두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필요한 빛을 받고, 과오를 깨닫고, 잘못을 회개하고, 서로 용서하며, 처음 시작할 때와 같이 여러분 스스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엄숙히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여러분의 겸손한 간구에 답해 주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다 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교성 50:29)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대외 방문자

예수 그리스도 : 명칭과 그 의미



지 호머 더럼 장로
칠십일 제일 정원회 회장단

“하나님은 도움”, 기름부음을 받은 자, 약속된 메시아의 이름은 이와 같이 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얼마 전에 내가 고속 도로로 차를 몰고 가는데 다른 차가 내 차를 추월했습니다. 이런 일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차 뒤의 범퍼(완충기)에는 “인간을 구하자”라는 조금 색다른 표어가 붙어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들은 이와 같은 많은 스티커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표어에서 “구하자”라는 근본적인 무엇에 내 마음이 끌렸습니다. 나는 구원의 계획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놀드 토인비 교수의 역사서에 나오는 소위 “구세주”에 대한 많은 해석에 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역사의 연구, 축소판, VIII-X권 더 시 소머필, 옥스포드: 옥스포드 대학교 출판사) 우리는 한 구세주만이 진정한 구세주임을 압니다.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교회는 그분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받들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때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물론 중요한 것은 이것은 성령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특히 젊은이들을 위해 이 두 말의 뜻을 간단히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옥스포드 역사 원리 사전(옥스포드: 클라렌돈 프레스, 1933, 5: 573)에는 “예수”라는 말은 중세기 영어에서 영어로 편입되었으며 이것은 라틴어 Iesus에서 나왔으며, 이 말은 또한 희랍어 Iesus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또한 히브리어나 아랍어의 Yeshua 또는 Yehoshua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의 어원은 Jehosua 또는 Joshua였습니다. 옥스포드 사전은 Joshua는 예수는 구원이라는 뜻을 지닌 Yahveh의 Jah 또는 Yah에서 파생되어 나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예수”라는 낱말은 “구세주”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 대학의 데이비드 플러셔 박사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는 히브리 이름 Joshua에서 따온 흔한 희랍어이다.” [유대 백과 사전, 예루살렘: 케터 출판사, 1971, 10: 10]

웹스터 20세기 새 영어 사전에는 히브리어 Joshua에서 나온 라틴어-희랍어 파생어는 문자 그대로 “여호와의 도움”이라는 뜻을 가진 Yehoshua의 축어라고 말하면서 대조되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기서 덧붙이면 이것은 그 말은 히브리어 곧 도움을 줄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는 분을 뜻하는 “주 하나님”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이러한 의미로 볼 때, 예수라는 낱말은 단순히 “하나님은 도우시라”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동차 완충기에 적혀 있는 대로 우리는 어떻게 “인간을 구할 수” 있습니까? 사전과 복음에는 그것에 대한 가장 적절한 답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또한 중세 영어에서 온 것으로 라틴어 “Christus”에서 파생되었으며 이는 또한 “기름부음을 받은 자”를 뜻하는 희랍어 “Christos”에서 나왔으며 그것은 “기름을 붓다”라는 희랍어의 과거 분사에서 만들어진

명사형입니다.

웬스터는 또한 "그리스도"라는 말은 원래 예수의 칭호였다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영어에서 이 두 낱말의 올바른 사용은 제임스 이 탈매지 장로의 저서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용법과 제시가 이 두 단어를 합하여 하나의 경건한 이름의 일부가 되게 했읍니다.

탈매지 장로는 두 단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예수란 구세주의 이름으로서, 희랍어에서 나온 말이다. 같은 말을 히브리어로 표기하면…… 이것은 영어의 Joshua와 같다. 이 이름의 원래의 의미는 "여호와와 도움" 또는 '구세주'이다."(*예수 그리스도*, 35페이지)

탈매지 장로는 "그리스도"는 "일반적인 이름"이 아니라 성스러운 칭호라고 강조하였다. 이것은 희랍어에서 나온 것으로 기쁨 부음을 받은 자를 뜻하는 히브리어의 메시아에 해당되는 단어이다……"(*예수 그리스도*, 35페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을 언급한 최초의 문서로서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때 캠브리지 대학의 저명한 교수였던 조셉 아미타지 로빈슨 박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을 최초로 언급한 문서는 메살로니가전서 첫절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리태니커 백과 사전 11판 15권 "예수" 항목)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지 약 20년 후에 메살로니가 사람들이 받았던 것과 같은 충격을 오늘날 영어로 읽는 자들이 이러한 낱말에서 얻는 충격을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메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찌어다"(살전 1:1)

이 구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과는 접속사^을를 사용하여 구별했음에 유의하십시오. 이것으로 보아 첫 세기에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믿는 믿음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회복된 것과 같이 개별적으로 구별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첫 구절도 그러한 의미가 가득 담긴 역사적인 문서로서 큰 힘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막 1:1)

요한복음은 더욱 큰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길 에비자인 침례 요한에 대한 증거를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 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 1:29)

"인간을 구하사주요?" 침례 요한의 간증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인간의 구세주께서 이 지상에서 그의 이름을 어떻게 얻었을까요? 그것은 계시에 의해서입니다. 나사렛의 요셉에게 주님의 사자가 꿈속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 내 아내 마리아 데려 오기를 무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라"(마 1:20-21)

마태에 의한 기록을 통해 그 이름의 사전적인 의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예수라"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마 1:21)

마리아 역시 누가의 기록을 통해 그 이름에 대한 천사의 확인을 받았습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눅 1:30-31).

아기가 생후 8일이 되었을 때 그 아기에 대한 명명식이 있었다. 누가는 이에 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리라”(눅 2:21)

“하나님은 도움” 기쁨부음을 받은 자, 약속된 메시아의 이름은 이와 같이 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30년 전에 아놀드 토인비 교수는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게 연구되었던 것 가운데 하나에 대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속의 부조화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그는 구세주에 대한 인간의 탐구를 4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1) “창조의 천재” (2) “검을 가지신 구세주” (3) 결코 존재하지도 않는 유토 피아를 꿈꾸는 자에게 “타임 머신을 가진 구세주” (4) “왕으로 가장한 철학자로서의 구세주” 역사는 이것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도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토인비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구세주에 대한 우리의 연구의 최종 결론이다. 우리가 이 연구를 시작했을 때 우리는 수많은 있을 법한 구세주를 통해 연구해야 했다. 그러나 우리가 연구를 계속할 때, 우리는 체계적으로 그것을 하나하나 제거할 수 있었다. 맨처음 제거해야 할 것은 군대 지도자였으며 그 다음은 미래에 살려고 노력하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철학자였다. 결국 유일한 참 신들만이 고려의 대상으로 남게 되었다. 이제 우리가 앞을 내다보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으며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생각할 때 한 가지 일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욱 명백해 지는데 그것은 구세주라는 사실이다..... [역사의 연구, 축해판 I-VI 더 시 소머벨, 옥스포드: 옥스포드 대학 출판사, 1957, 547페이지]

우리는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있습니다. 저의 일생의 많은 경험을 통해 그분이 진실로 도우는 자이며 그분이 참으로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그분의 아들이 우리에게 명하신대로 기도를 통해 아버지께 간구하면 생에서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맥함받은 자

이며 그분의 중요성을 알게 될 것이라는 신앙과 간증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영원한 집을 지음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는 영원한 집 ‘곧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 책임자입니다.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집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라고 말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 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가 성지라고 경건히 일컫는 마을의 먼지많은 길을 걸으며 아름다운 갈릴리 옆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당시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하는 언어로 자주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자주 집을 짓는 것을 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생활과 연관지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스스로 분쟁하는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고 나중에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보라, 나의 집은 질서의 집이요, 혼란의 집이 아니니라.”

1832년 12월 27일 오하이오주 킬버랜드에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신 계시에서 주님은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너희와 너희 주변을 정리하라. 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라. 집 곧 기도의 집, 금식의 집, 질서의 집,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

우리 가운데 누가 자신이 영원히 살 집을 현명하고 적절하게 짓기 위하여 이것보다 더 좋은 설계도를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집이야말로 마태복음에서 설명한 건축 규정에 적합할 것입니다……즉 “반석 위”(마 7:24)에 세워진 집으로 역경의 비와 박해의 홍수와 이 시련의 세상 어디에나 있는 의혹의 바람을 이길 수 있는 집이 될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계시는 신전을 짓기 위한 지침으로 주어진 것인데 그것이 오늘날에도 적합합니까?”

나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고전 3:16)라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우리가 이 건축 지침을 개인적인 관점에서 고려한다면 대 건축가, 세상의 창조주, 우리 주이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신성한 권고를 좀더 험사리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감에 찬 설계도는 먼저 우리의 집이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은밀한 중에 계시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마 6 : 5-7, 9-13)

우리 설계도의 이런 요소는 우리 자녀가 아직 어릴 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우리 큰 아들이 3살 정도 되었을 때 나와 아내와 함께 무릎꿇고 자녀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당시에 나는 와드 감독으로 봉사하고 있었으며 우리 와드의 훌륭한 부인인 마가렛 리스터 자매가 양모로 위독한 상태로 누워 있었읍니다. 우리는 매일 밤 리스터 자매를 위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어느 날 밤 우리의 어린 아들이 기도드리면서 기도 말씀과 동화책 이야기를 혼동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리스터 자매님, 헤니, 페니, 치킨, 리킨, 머키, 러키, 및 모든 어린 것들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는 그날 밤 웃음을 참느라고 고생했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리스터 자매가 완전히 회복하게 되었을 때 새삼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린이의 기도를 알아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은 우리보다도 더욱 최근까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있었읍니다.

우리의 집이 기도의 집이 되게 합시다.

우리의 집은 또한 금식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설계도의 이 부분은 이사야서에서 “참된 금식”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예가 나와 있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이런 것이) 아니겠느냐……또 주린 자에게 배식 물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 보상에 대해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러하면 네 빛이 아침같이 비취는 것이며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네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와 영광이 네 뒤에 호의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주린 자에게 배식 물을 통하여 괴로와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네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케 하며……너는 물던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사 58 : 6-11)

우리의 집이 금식의 집이 되게 합시다.

우리의 집은 신앙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기록하였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같이니”(야고보 1 : 5-6)

그런 영속적인 신앙을 실제로 적용한 예는 니파이의 영과 그의 감동적인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행하겠나이다.”(니일 3 : 7) 그는 의심하지 않고 믿었읍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본보기가 있습니까?

나는 몇 년 전 휴 비 브라운 부대장님과 함께 사모아 선교부로 여행하였읍니다. 미령 사모아 회원과 선교사들은 우리에게 극심한 가뭄으로 급수에 큰 지장을 주어 곧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우리 교회와 학교를 닫게 될 지경이 되었다고 이야기했읍니다. 그들은 우리의 신앙을 그들의 신앙과 하나로 뭉쳐 달라고 요청했읍니다.

우리가 파고파고 공황을 떠나 마파사기에 있는 학교로 가는 동안 가뭄의 흔적을 사방에서 볼 수 있었읍니다. 태양은 밝게 빛나고 있었으며 푸른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읍니다.

모임이 시작되자 회원들은 기뻐했습니다. 개회 기도를 하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든 그 갈망하는 비를 오게 하리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안전하게 도착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렸읍니다. 브라운 부대장님이 말씀하려고 일어서자 곧 구름

이 모여서 배양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천둥 소리가 들리고 빈개가 쳤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렸습니다. 가을이 끝난 것입니다.

나중에 공항에서 서부 사모아로 짧은 여행을 준비하는 동안 경비행기 조종사는 지상 근무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이상한 기상 조건은 본 적이 없어. 마파사가에 있는 물론 학교 상공 이외에는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던 말이야. 도대체 알 수가 없어.”

브라운 부대관장님이 나에게 “장로님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가서서 그를 이해시켜 주십시오.”라고 말씀해서 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집은 정말로 신앙의 집입니다. 우리의 집이 학문의 집이 되게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지에서 지혜의 말씀을 구하라 또한 부지런히 구하고 서로 가르치라” 또 “내게 배우라……그러면 너희 마음이 심을 얻으리니”(마 11:28-29)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이만한 큰 보상을 약속해 주는 배움의 탐구는 다시 없습니다

우리의 집이 학문의 집이 되게 합니다.

우리의 집은 영광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정직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정하고 자신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가장할 수 없습니다. 마크 트웨인으로 더 잘 알려진 사무엘 클레멘스는 허클베리 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허클베리 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멀었다.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과거의 그런 소년이 아니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는지 보려고 결심했다. 그래서 부를을 풀었다. 그러나 말이 나오지 않았다. 왜 안 나올까? 하나님에게 숨기려고 해도 소용이 없었다.……나는 왜 말이 나오지 않는지 잘 알고 있었다……그것은 내가 이중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나는 죄를 버릴 것처럼 하고 있었으나 마음

속으로는 모든 죄 가운데서도 가장 큰 것을 꼭 쥐고 있었다. 내 입으로 올바르게 깨끗한 일을 하겠다고 말하게 하려 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하나님도 알고 계셨다. 거짓말 기도는 할 수 없어.……나는 이 사실을 알아냈다.”(허클베리 핀의 모험, 뉴욕, 워싱턴 스퀘어 출판사, 문고판 책, 1973년 271-72페이지)

누군가 “일관성, 이것은 값진 보석이다.”라는 철학적인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일관성있는 선행으로써 영광의 집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집은 질서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천하에 법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전3:1)”라고 전도서의 설교자가 충고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생활에서 맞는 말입니다. 가족을 위한 시간, 일할 시간, 공부할 시간, 봉사할 시간, 오락 시간,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마련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한 시간을 마련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집은 질서의 집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합니다. 깨끗한 생각, 교상한 목적, 기꺼이 행하는 마음, 항상 준비된 손은 모두 하나님의 집의 특징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홀로 투쟁하도록 버려 두시지 않고 언제나 도와 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나는 몇 년 전 선교부장으로 봉사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으며 4백 명 이상의 선교사들과 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몹시 아픈 젊은 선교사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입원하고 몇 주일 지난 후 의사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수술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그 선교사의 부모를 모셔 오라고 했습니다. 환자가 수술 도중 죽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모가 왔습니다. 어느 날 늦게 그의 아버지와 나는 캐나다의 토론토에 있는 병실에 가서 그 젊은 선교사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

복을 주었습니다.

그 축복을 준 다음 일어난 일은 나에게 하나의 장증이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는 그 병원에서 병상이 6개가 있는 병실에 있었습니다. 다른 침대에는 자기 다른 병을 앓고 있는 다섯 명이 누워 있었습니다. 수술받는 아침 그 선교사의 침대는 비어 있었습니다. 간호원이 환자들이 늘 먹는 아침 식사를 가져 왔습니다. 1번 침대에 있는 환자에게 가서 “오늘 아침은 계란 후라이이며 특별한 여분으로 더 가져 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1번 침대 환자는 제초기 사고로 부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친 발가락 이외에는 육체적으로 튼튼했습니다. 그는 간호원에게 “오늘 아침은 안 먹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것을 2번 침대에 있는 분에게 드리겠어요.”

그 환자에게 가자 그는 “오늘 아침은 안 먹을 생각입니다.”라고 거절했습니다.

5명이 모두 아침을 거절했습니다. 그 젊은 간호원은 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날 아침에는 모두 굉장히 많이 잡수시는데 오늘은 아무도 안 잡수시겠다니! 왜 그러세요?”

그러자 6번 침대에 있던 환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시다시피 3번 침대는 비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친구가 수술실에서 의사에게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는 자기 교회의 선교사이며 우리가 이 병실에 입원해 있는 동안 자기 교회의 원리 즉 기도, 신앙, 또한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간구하는 금식의 원리에 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물론 교회에 관하여 많이 모르지만 우리 친구에 관하여 많은 것을 배웠으며 오늘 그 사람을 위하여 금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의사에게 돈을 내려 하자 거절했습니다.

“내가 수술비를 받는다면 정직하지 못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번처럼 내 손이 나의 능력이 아닌 다른 능력에 의해 인도되는 것 같이 느껴져 수술을 한 적이 이전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정말로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 도와 준 이 수술에 대하여 수술비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건축 계획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집 “곧 하나님의 성전”(고전 3:16 참조)의 건축 책임자입니다.

“너희와 너희 주변을 정리하라. 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라. 집 곧 기도의 집, 금식의 집, 신앙의 집, 학문의 집, 영광의 집, 질서의 집,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교성 88:119)

그러면 우리의 건축 감독관이신 주님께서 이전의 건축자인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집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왕상 9:3)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실재도를 따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집을 성공적으로 짓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교회 감사 위원회 보고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에게

보고자 : 윌포드 지 에드링
교회 감사 위원회 위원장

우리는 1983년 12월 31일, 현재 교회 재정 연례 보고서와 같은 날 마감된 연간 교회 운영을 검토하였습니다. 본 위원회가 검토한 재정 결산 및 운영에는 교회의 모든 기금과 교회 재정과가 회계를 책임지고 있는 기타 교회의 운영 조직의 모든 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예산, 회계, 감사 절차 그리고 기금 수입과 지출 관리 방법도 검토하였습니다. 우리는 대관장단이 예산 절차에 따라 교회의 제반 기준 지출에 관한 권한을 갖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평의회와 관리 감독단으로 구성되는 십일조 지출 평의회가 예산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지출 위원회는 주례 모임에서 예산에 대한 기금 지출을 관리합니다.

재정 기록과와 기타 조직에서는 빠른 교회 확장과 정보 처리 기술의 발달에 맞추어 현대 회계술과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교회의 다른 과와 독립되어 있는 감사과는 세 가지 면 즉 재정 감사, 운영 감사, 교회가 채택하고 있는 컴퓨터 체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모든 과, 기타 교회 산하 조직(회계는 교회 재정 기록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선교부, 관리 본부 및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행해지는 교회 각 과 활동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감사가 계속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자원을 안전하게 보도하기 위한 교회 감사과의 관리의 규모와 범위는 교회의 성장과 광범위한 활동을 수용하기 위해 확장되고 있습니다. 와드와 스테이크에 대한 감사는 스테이크 감사자에게 지명되어 있으며 그 보고서는

교회 감사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소유권을 갖고 있거나 교회 재정 기록과가 회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지 않은 재단 법인의 사업은 전문 감사 기관이나 정부 감사 기관이 감사를 맡고 있습니다.

연례 재정 보고서와 기타 자료에 대한 검토 그리고 재정을 맡은 부서의 회계 및 감사 방법에 대한 우리의 조사를 토대로 해서 재정 기록과와 감사과의 법률 대표의 책임자들이 함께 여러 차례 토론한 결과 우리는 1983년 한해 동안 들어오고 나간 교회의 일반 기금이 확정된 절차에 따라 올바르게 회계되었다고 확인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의 진실한 형제
교회 감사 위원회

윌포드 지 에드링
데이비드 엠 케비디
워렌 이 류
메릴 레이 베이트먼
테드 이 데이비스



1983년도 통계 보고

프란시스 엠 기번스

대관장단 서기

대관장단은 교회 회원들을 위해 1983년 12월 31일 현재 교회의 발전과 현황에 관한 다음과 같은 통계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회원 수는 대회 전까지 입수한 1983년도 보고서를 토대로 산출한 것입니다.

교회 단위 조직

스테이크 수	1,458
지방부 수	343
선교부 수	178
와드 수	9,329
스테이크 산하 지부 수	2,641
선교부 산하 지부 수	2,024

(위 통계 수치는 1983년에 66개의 스테이크와 378개의 와드 및 지부가 증가했음을 나타내고 있음)

와드 또는 지부가 조직되어

있는 국가의 수	90
와드 또는 지부가 조직되어 있는 자치령, 식민지 또는 영지	17

교회 회원

1983년말 현재의 교회 회원 총수 5,400,000

1983년의 교회 성장

기록상의 어린이 증가 수	112,000
침례받은 기록상의 자녀 수	69,000
침례받은 개종자의 수	189,419

사회적 통계

회원 1,000명당 출산 수	24.5
회원 1,000명당 결혼한 사람 수	11.1
회원 1,000명당 사망자 수	4.0

신권

집사	229,000
교사	169,000

제사	335,000
장로	444,000
철십인	32,000
대제사	19,000

선교사

복음 선교사	26,565
--------	--------

계보

신진 엔다우먼트를 위해 1983년에 확인된 성명	4,288,303
-------------------------------	-----------

신진

1983년에 집행된 엔다우먼트의 수	
산 자를 위한 엔다우먼트	52,116
죽은 자를 위한 엔다우먼트	4,364,928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신진	25
설계 혹은 수리 중에 있는 신진	17

1983년에 6개의 신진이 헌납되었으며 1984년에 6개의 신진이 헌납될 예정임(사정에 따라 한 두 개의 신진 헌납이 1985년으로 연기될 수도 있음)

교회 교육 기구

1982-83학년도 총 등록자 수 :	
특별한 프로그램을 포함한 신학 연구원 중등부 및 대학부	389,258
교회 학교와 단과 대학 및 계속적인 교육	68,707

복지 사업

말일성도 봉사회의 도움을 받은 수	118,672
유급 직장을 알선받은 인원 수	25,460
복지 사업을 위해 봉사한 연인원 수	399,375
감독의 출고증 발행 수	305,891

작년 4월 이후 한 해 동안 작고한 유명 회원

십이사도 평의회 의원인 마크 이 피터슨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하워드 더블류 헌터 장로의 아내인 클라라 메이 제프스 헌터.

영원하신 하나님의 원대한 뜻



날 에이 맥스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대부분의 인간의 비극은 구원의 계획을 모르거나 이 계획에 순응하지 않음으로써 생깁니다.”

오랜 친구인 벨슨 장로님, 옥스 장로님과 이제 더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된 것에 대해 먼저 공식적인 따뜻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를 일깨워 주는 말일의 계시로써 얻을 수 있는 큰 축복의 하나는 위대한 구원의 계획, 행복의 계획, 또는 자비의 계획(엢 42 : 5, 8, 15 참조)으로 알려진 중요한 교리적인 계획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불리는 앰블레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원대한 뜻”(엢 34 : 9)이라고 말한 것을 나타내며 이것이 없으면 인간은 멸망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완전한 관점을 나타내는 지극히 놀라운 예입니다. 더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신앙에는 그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온전한 신앙이 포함되며 또한 요구됩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님께서서는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구원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면전으로 인도해 주는 길에 머물러 있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계시의 영이 있어야 합니다.”
(브리감 영, 설교집, 9 : 279)

이 계획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계획 밖에 머물러 있거나 방황할 때 편협한 생각과 비참한 상태에 빠질 위험을 안게 됩니다. 사실상 대부분 인간의 비극은 이 계획을 모르거나 여기에 순응하지 않음으로써 생깁니다. 이런 육신의 고통은 이 계획에 순응하지 않고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중요한 지식을 자유로이(값없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주님께서서는 우리도 이 계획의 근본 원리를 “자유로이(값없이)” 가르치라고 권고하고 계십니다.(모세 6 : 58, 62)

아버지의 계획의 중심은 인류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계시된 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값없이 여기어”(니일 19 : 9) 또는 “그를 단지 사람이라 생각하”(모 3 : 9)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알잡아 불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그분은 우리 주님이며 구세주이십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비교적 작은 문제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누구라고 말하느냐 하는 것은 거의 문제가 안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마 16 : 13-17)

예를 들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신성 뿐만 아니라 그분이 수많은 그의 양을 방문하시고 돌보시는 놀라운 능력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메시아로 일하셨던 중동 지방을 다시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래복에 있는 다른 영혼들을 방문하셨습니다.(니삼 11장 참조) 또한 그의 다른 많은 양들도 방문하셨습니다.(니삼 17 : 4 참조)

주님은 그의 희생적인 계획에 있어서 “세상의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을 행치 아니하”

(나이 26:24 참조)입니다. 그는 사랑으로 또한 지속적으로 모세와 에레미야가 선언한 것처럼 “우리로……황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일하십니다(신 6:24; 렘 32:38-40 참조) 그분의 위대한 계획에 있어서 그의 “사업”과 “영광”은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모 1:39)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울 때라도 우리는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요일 4:1 참조)

한편 세익스피어가 “은 세상은 하나의 무대이다……”(뜻대로 하세요, 2막 7장)라고 말한 것은 진리에서 그렇게 동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연극을 위한 무대는 아닙니다.

“계획”이라는 말 자체가 오늘날의 혼란되고 절망하는 세상에서 절실히 필요한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목적을 확인해 주고 인식시켜 줍니다.

“행복의 계획”은 우리 개인의 불사불멸을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발전되고 영적으로 변화된 사람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한 선지자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위대하지 아니하뇨”(나이 9:13)라고 선언한 것은 참으로 적절한 말이었습니다. 예수는 역사의 진경과 불필요하게 인간이 비참하게 되는 것을 보고 울었습니다.(모세 7:41 참조) 그러나 그는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승리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또 다른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우리를 멸하지 않으시려고 이 일들을 우리에게 알리셨느니라. …우리의 영육을 사랑하시…자비로우사 천사로 우리를 방문하게 하시어 우리들…에게도 구원의 계획을 알려 주셨느니라.”(엘 24:14)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관하여 우리를 다시 가르치고 필멸의 생이 최후의 거대한 무덤이 아니며 사상이 소멸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확신시키기 위하여 천사가 방문했습니다.

엘마는 자신이 정말로 “영과 육체가 한꺼번에 없어져 주었으면”(엘 36:15)하고 느꼈을 때 무서운 고통의 순간에 직면하였읍니다.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를 구속하시려 세상에 내려오시리라”(엘 36:17)는 것에 관하여 부친이 예언한 것을 기억하였읍니다. 깊이 겸손해지는 순간 “여기에 (그의) 생각이 미치”(엘 36:18)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엘마는 영혼 깊숙한 곳으로부터 이렇게 외쳤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여…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엘 36:18)

고통 대신에 목욕이 생겼읍니다. 엘마가 하나님께서 그의 보좌에 계신 것을 보았으며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소망을 가졌을 때 절망 대신에 기쁨이 넘쳤읍니다.(엘 36:22)

하늘에 있는 집을 그렇게 그리워하는 것은 특히 이 생이 어떻게 계획되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현실적인 것이 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장면, 위대한 예술과 음악에서 기쁨을 느낄 때 그것은 다른 때 다른 곳에서 얻은 본능을 따르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사람이 신중하게 계획된 시험과 훈련을 통한 경험으로부터 기대되는 그대로 될 따름이며 이 경험은 기회와 선택과 축복의 연기 등의 특색을 갖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인생의 시련을 피하는 길은 없습니다…유일한 길은 그것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경험”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지만 이 자비의 계획은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잘못을 인식하고 시정함으로써 중단된 개인적인 발전을 계속하게 해줍니다.

구속하고 순화시키는 양식이 만들어졌읍니다. 출렁이는 파도 위에서 신앙이 흔들려 가라앉지만 살기 위하여 누구에게 의지해야 하는지 알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마 14:30)라고 외쳤던 용감한 베드로를 위하여, 자기 백성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또한 지도자로써의 모든 책임감으로 인하여 힘들게 노력

하는 온유한 모세를 위하여(민 11:11, 14, 29 참조) 다시 스스로 도망하려 했으나 니스웨에 도착하여 사랑 가운데 위대한 교훈을 받은 요나를 위하여. 잘못을 범한 울리버 카우드리, 마틴 해리스, 토마스 에스 마쉬가 영생을 다시 찾고 화해하여 이 계획과 이 계획을 선포하는 현대의 예언자들과 다시 합류하고 지지하기 위하여 서부로 여행함으로써 회개한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충실한 자를 위한 우리의 생애에서의 가장 좋은 시간은 가장 어려운 시간 도중이나 직후에 올 때가 흔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이 가르치는 과정으로 인해 불만에 차서 주님을 기억하려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상한 일입니다. 또는 우리가 이 육신의 시험 기간 동안에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현실에 반감을 갖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이면서도 영적인 브리감 영 대관장이 말한 것처럼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갖지 못합니다." (브리감 영 설교집, 존 에이 윌스, 솔트레이크 시티, 메저넷 출판사, 154페이지)

뿐만 아니라 이 생은 너무나 짧은 기간이므로 정해진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쉽고, 어떤 것은 어렵고 어떤 것은 갑자기 오며 어떤 것은 오래 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에 의해서라도 언제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런 사망의 길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또한 우리가 완전하고 영원한 시야를 갖고 있다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전세에 관한 확실한 기억이 보류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처음부터 끝을 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십니다. 한편 우리는 "외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또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의 의미를 항상 설명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개인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진실로 알 수 있습니다. (니일 11:7 참조)

우리는 이 필멸의 누에고치나 교실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원대한 뜻"에 대한 신앙과 지식이 없이는 우리의 시야는 완전히 편협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계획에 들어 있는 그리스도의 교리는 길을 표시해 주고 밝혀 주는 인도 성구와 같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안전을 위하여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가까이 가게 하고 심지어는 영적인 것을 깨달도록 하기 위하여 복음을 보호하는 선이 끈고 좁은 길로 뻗어 있습니다.

이 위대한 계획은 추상적인 신학적인 문제를 훨씬 넘어서서 일상 생활을 좀더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자신과 타인과 인생과 주님과 우주까지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에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또는 아거나 사망, 세상의 칭찬과 명예에 대한 견해도 작용합니다. 이 계획은 의미의 주된 근원이 되며 어떤 시험 기간에도 우리를 양육하고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이 계획의 진리와 관점은 우리가 위대한 책과 단순한 구인 광고, 복수와 정의, 노여움과 의분, 폐락과 행복을 구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하려고만 하면 구세주께서 권하신 것처럼 "나와 같은 자"(니삼 27:27)가 되게 해주며 이해할 수 있는 과정에서 인생의 기쁘고 노력하고 고통받고 가르치고 참는 경험이 모두 그 역할을 다 하게 된다는 것을 압니다.

이런 개인적인 발전에는 시온 진영의 행진이나, 바위 길의 어려운 곤경, 북쪽 멕시코의 개척과 같은 특별한 훈련 경험 등이 요구될 때가 흔히 있으며 이런 환경 안에서 특별한 사람들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화는 현재의 지체와는 아무 관계가 없으며 모든 것이 우리의 둘째 지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식적으로 또한 온유하게 이 계획에 순종하면서 우리 조건에 따라서만 기꺼이 순종겠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

다. 무조건적인 행복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그 모든 내적인 일관성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의 표준에 너무나 일치하지 못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로잡히는 것을 너무 염려하는 사람을 충분히 감싸아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의 공회당에서 자기 위치를 잃을 것을 너무 염려하는 사람에게 줄 영광의 자리는 없습니다. (요 12: 42, 43 참조)

계획을 관리하시는 아버지와 구세주에게 영향을 미친다 할지라도 이 계획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어려운 염려로부터 자동적으로 면역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계획은 현존하는 인간의 선택의 자유를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니이 2: 27 참조) 그러나 현재 우리 환경 가운데 일부는 지금은 잊고 있으나 한때 자유롭게 맺은 이견의 합의 상황을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계획은 항상 길을 가리켜 주지만 길을 평탄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범사에 서로 상대가 되는 것이 있어야”(니이 2: 11)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계획에 관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지적 및 영적인 확인을 주시겠지만 그분의 조건과 방법으로만 행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할 인자 알리라(요 7: 17)

진실로 육신의 인간이 범할 수 있는 모든 과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관하여 과오를 범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일입니다.

그 결과에 있어서 이보다 더 엄청난고 영속적인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교회와 교회 회원들이 이 계획에 관한 충만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렇게 막대한 경비를 쓰며 나아가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원리를 명백하게 그리고 반복

해서 가르치기 원하시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이며 우리의 계획이 아닙니다. 또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간의 계획의 실통치 않은 결과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기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야곱이 기록한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할 모든 것 가운데서 “어찌 그리스도의 속죄를 이야기하지 아니”(야 4: 12) 하겠습니까? 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구속하시는 하나님과 구세주 아들이 위대한 행복의 계획을 갖고 위로 전진하신 것처럼 이 사건은 전인류 역사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도덕적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사하신 사실은 그의 유익하고 발전적인 여러 가지 목적에 관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많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남용한다면 자신에 관하여 두려운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인종의 족속 가운데서 위대한 자비의 순간과 감동적인 자신의 순간과 감동적인 희생과 조용하고 지속적인 영웅적인 행동을 이 필멸의 무대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으로 놀라면 안됩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의 영의 자녀입니까?(히 12: 9 참조)

그러므로 이 인생 학교가 일부 위대한 승리도 낳았으나 동시에 역사가 개인적인 과실로 가득 차 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학교나 이 교과 과정을 탓하면 안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을 탓하면 안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감히 그분에게 그의 학생들의 곤경에 관하여 가르치려고 해서 안됩니다.

한편 형제 자매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말일에 제자가 되는 것이 쉬우리라고 약속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전의 고난의 시기가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었을 때 표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니삼 8 : 4) 그러나 충실한 자는 승리하고 올바른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당시에 믿는 자들의 신앙을 조롱하고 잠시 “큰 소동”을 일으키며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신앙이 헛될 것같이 보이는 것에 기뻐한 강박한 비방자들이 있었습니다. (니삼 1 : 5-7 참조)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회원들은 신앙을 지켰고 그 신앙이 그들을 지켜 주었습니다.

오늘날 영적으로 일치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엔리사의 젊은 사환처럼 다시 확신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젊은이는 숫자가 훨씬 많은 적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올바르게 선지자이며 계시자에게 다시 확신을 간구하였습니다. 그는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와 함께 한 자보

다 많으니라”(왕하 6 : 14-16)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젊은이는 수를 셀 수 있었으며 분명히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지자가 그를 위한 기도를 끝낼 때까지도 그랬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 젊은이의 눈이 열렸으며 “불말과 불병기가 산에 가득”(왕하 6 : 17 참조)한 것을 보았습니다. 옛날처럼 지금도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성약을 지키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그의 다짐이 배아리치는 것을 듣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일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렘 32 : 38-40)

이 말씀을 사도의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하고 확신합니다. 아멘. *



레이코크 장로, 임을 대관장, 침골이 부대관장

성약, 의식 및 봉사



에이 디어더어 터렐 장로
철십인 제일 정원회

“자신의 아들과 딸이 성약을 맺고, 의식을 받고, 봉사 하도록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을 명심한다면 여러분은 여러 가지 일들을 다르게 행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선교부장으로 또한 신전장으로 봉사하였습니다. 젊은이들이 남미의 선교부로 오는 것과 또한 엔다우먼트와 인봉을 받기 위하여 신전으로 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잘 준비된 사람과 또한 이런 축복을 받을 준비가 잘 안된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준비가 안된 사람... 전혀 오지 않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지켜 보며 왜 그럴까 하는 의문을 갖기도했습니다.

그 중에는 선교사로 봉사하고 신전에서 축복받도록 준비시키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한 가정에서 온 자들도 몇몇 있었지만 대부분은 자격을 갖추고 또한 봉사하려는 열의를 갖게 하는데 필요한 것을 받지 못한 가정에서 온 자들도 있었습니다.

젊은이가 선교 사업을 하고 신전 축복을 받도록 준비시키기 위하여 부모는 학교 공부와 사회 진출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야 합

니다. 물론 참석만 하면 되겠지만 단지 선교사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마음에 간직해야 할 세 가지 낱말이 있는데 그것은 성약, 의식, 봉사입니다.

성약과 의식과 봉사를 위한 훈련은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부모의 마음에 이런 것이 뚜렷하면 젊은이는 준비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으로 인하여 사회 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훈련을 하나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

부모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했던 것으로는 현재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자녀를 보호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도 이 사업의 신성함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이 없으면 진될 수 없게 될 날이 오리라는 것을 이 교회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가르쳐 왔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는 간증이 부족한 사람들이 진리로부터 돌아서서 잘못을 범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잃고 슬퍼하는 동안 참된 원리를 가르치지 못하거나, 약한 자의 신앙에 의심을 자아내거나, 공공연하게 그릇된 교리를 가르침으로써 그들이 길을 잃게 만든 사람들도 슬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우리의 젊은이들이 성약과 의식을 받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욱 교묘하고 뾰뻑스럽게 우리의 가정에 쳐들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약의 영향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더 현명하게 행동하면 안전할 것입니다. “너희에게 준비가 갖추어져 있으면 무서워하지 않게 되리라.”(교성 38:30)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결과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교회가 주된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할 수 없으며 부모가 이 주요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주님으로부터 자녀에게

복음 원리와 의식을 가르치고 봉사하도록 영감을 주는 책임을 완전히 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가정 복음 교사, 방문 교사, 공과, 상담 및 다른 도움을 통하여 부모물도와 줄 것입니다. 이 교회의 독신 부모 가운데 그 누구도 주님이 맡기신 이 의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 최근의 연구에 의하여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부모가 할 수 있는 것까지 사함을 알아냈습니다. 딘 라슨 장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젊은이의 개인적인 신앙 생활과 그들이 바라는 결과를 달성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정에서의 종교 생활입니다. 젊은이가 규칙적으로 가족 기도를 하고 가족 복음 및 경전 연구를 하며 근본 가치관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는 가정에서 산다면 선교사로 봉사하고 신전에서 결혼할 가능성은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이런 가정과 가족의 영향력은 동년배 무리나 프로그램 참여에 의한 영향력보다 훨씬 더 의미가 큼니다. 사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가정의 영향력은 너무나 큼니다. (딘 라슨, 지역 대표 세미나 1983년 4월 1일 말씀)

여러분은 세 가지 핵심되는 요소가 규칙적인 가족 기도, 규칙적인 가족 경전 복음 공부 및 기본적인 가치관에 관한 부모와 자녀 간에 의견의 일치라는 것을 아셨습니까. 이것은 다른 어느 것보다 더 중요하며 성약과 의식과 봉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게 해줄 것입니다.

가족 기도

부모 여러분, 우리는 매일 무릎을 꿇고 가족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자녀는 기도하여 스스로 성신으로부터 지식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니파이네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사람에게 기도하기를 가르치는 영에게 귀기울었던들,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았으리라. 악령은 사람에게 기도하기를 가르치지

아니하고...”(나이 32:8)

경전 공부

조정된 집회 순서에 의하여 우리는 한 가족으로써 경전을 공부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안식일의 많은 부분을 개인 및 가족 경전 공부를 위하여 매우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전을 공부하는 것보다 더 영적인 성장을 돕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전을 가진 자는 이를 공부하게 하여...깨달아 알도록 하라.” (니삼 10:14)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면 그 리스도를 우리의 위대하신 모범으로 삼게 할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알게”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과 성약을 맺고 의식을 맺고 봉사하려는 열의를 더 강하게 해줄 것입니다. 엘마는 힐라멘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 한 가지 위대한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나의 아들이야...하나님을 바라보아 살도록 하라”(엘 37:47)

부모 여러분, 정말로 가르치고 싶을 때 어떻게 합니까? 구세주께서 하신 것처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질문을 사용하셨습니다. 경전을 인용하시고, 비유를 사용하시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간증하셨습니다. 그분은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일상 경험을 이용하셨으며 가르치기 위하여 온갖 기회를 다 이용하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가르치는 것보다 자신이 가르친 것에 대해 생각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면서 배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셨습니다.

식사 시간에 자녀를 가르치는 어떤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습관적으로 두 세 가지 복음 질문을 합니다. 그는 “네가 이 질문을 정확하게 맞추면 1달러를 주겠다.”라고 말하면 항상 10대의 자녀의 관심을 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기본 가치관에 관한 의견의 일치

우리는 영으로 가르치려고 할 때 성약과 의식과 봉사의 중요성에 높은 우선 순위를

됩니다.

성약은 구속력이 있는 약속을 상호 교환하는 것입니다. “나 주는 내가 한 말을 너희가 행할 때에는 너희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으나 내가 한 말을 너희가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너희는 약속을 받지 못하느니라”(교성 82:10)

복음 성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집니다. 그 조건은 하나님이 정해 두셨습니다. 복음 성약은 계시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의 면전으로 다시 데려가기 위하여 꼭 필요한 성약과 의식을 주셨습니다.

죄사함을 위한 침수토세의 침례는 주님과 맺어야 할 필수적인 한 가지 성약입니다. 이 의식에는 신앙과 회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침례 다음에는 확인과 성신의 은사가 따릅니다. 이 첫째 원리와 의식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 의식에서 정기적으로 이 성약 및 다른 성약을 다시 새롭게 하며 그 성약에서 자신의 역할에 따름으로써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신권도 마찬가지로 성약에 의하여 주어 집니다. 본질적으로 신권은 봉사하기 위한 권세입니다. 우리가 신전에서 엔다우먼트와 인봉을 받을 때 주님과 더 많은 성약을 맺게 됩니다. 이런 것은 승영에 이를 수 있는 성약입니다. 자녀들에게 이런 의식을 받고 성약을 맺음으로써만 그들이 승영할 수 있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처럼 될 수 있음을 가르치십시오. 우리가 신앙으로 끝까지 참고 우리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고 그들을 사랑할 때 주님과 함께 살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덕성과 자질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봉사는 가장 높은 미덕 가운데 하나입니다. 구세주께서는 우리의 희생적인 봉사의 모범이 되십니다. 봉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무입니다. 배나민 왕은 이웃에 대한 봉사가 하나님에 대한 봉사와 같다고 가르쳤습니다.(모 2:17 참조)

부모 여러분, 자신의 아들과 딸이 성약을 맺고 의식을 받고 봉사를 하도록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을 명심한다면 여러 가지 일을 다르게 행할 것입니다. 우선 순위가 달라질 것입니다. 좀더 분명한 관점에서 좀더 생산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가르칠 것입니다. 선교부와 신전에 더 많은 젊은이들이 올 뿐만 아니라 이런 축복을 받을 더 훌륭한 자격을 갖추고 오는 것을 볼 것이며 이 젊은이들은 자기 인생의 초기에 봉사하는 생활을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일을 할진대, 마지막 날에 높이 들리워지고 부활하여 여러분을 찬양하게 될 것인데, 이는 여러분이 그들을 영생으로 인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려는 순수한 열의를 갖고 있을 때 주님께서서는 그들이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는 마음을 갖도록 영감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그들을 가르칠 성스러운 책임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나의 방문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해 준비된 세대



엘레인 에이 켄
자매 전 본부 청년 회장

청년 회장단으로서 우리의 목표는 "일어서서 굳건하게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세대와 또한 성스러운 성약을 맺기 원하고, 그것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세대를 키워 내는" 것입니다.

킴 불 대판장님, 대판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입니다. 핑클리 부대판장님, 펜슨 회장님, 그리고 총관리 역원 여러분, 나는 지금 막 말씀하신 터를 장로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난 여러 해 동안 청년 고문으로 봉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나는 연차 대회에 참석하여 이 태버네클의 연단에서 말씀드리게 될 때 큰 기쁨을 느낍니다. 내 생일은 이 절기에 들어 있습니다. 나는 아홉번째 생일을 이곳 태버네클에서 훌륭한 말씀을 들으면서 보냈던 것을 명백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모임에 참여하여 큰 기쁨을 느낍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진실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나도 이 교회 회원이 되는 특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나는 흥미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물러앉아 여성에게 신권을 성임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신권을 갖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저녁을 즐기 위해 귀가하는 신권 소유자를 소유하기를 사랑합니다." 라고 매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본래의 의도는 아니었지만 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만족스럽기는 했지만 먹차게 봉사해야 했던 이 직책에서 해임됨으로써 나의 사랑하는 남편이 가정에 돌아왔을 때 그곳에 함께 있을 수 있으며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모이는 가정에 보다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음으로 부터 나오는 깊은 감사와 관심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감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거 자매, 스미스 자매 그리고 나는 본부 청년 회장단의 집행 서기로 봉사해 온 팔머 자매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청년들과 함께 봉사하는 이 직책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함시 사랑했고 함께 봉사함으로써 커다란 기쁨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화평하게 봉사했습니다. 우리는 충실히 봉사했으며 주님의 도움을 간구했고 커다란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방법으로 인도될 수 있는 특권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봉사하기를 사랑했습니다. 또한 오늘 해임된 훌륭하고 매력적이며 충신했던 본부 청년 회장단의 임원과 역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포함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이 기구를 움직이는 조직 구성원들, 보좌들, 그리고 각과의 임원들과 함께 일할 수 있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들 모두에게 감사하며 우리의 유대 관계는 계속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미 발표된 새로운 부름에 만족합니다. 우리는 아메스 캡 자매님을 사랑하며 그 자매님은 오늘날 이 중요한 사업을 능히 떠맡아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누히 말씀드려 온 바와 마찬가지로 수년에 걸쳐서 우리는 아주 사랑하는 위대한 신권

지도자들로부터 특별한 인도를 받아 왔습니다. 우리는 그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거의 6년 전에 나의 머리에 손을 올려 놓으시며 청년 회장으로 성별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특별한 축복을 주셨던 킴볼 대관장님께 무한한 사랑을 전합니다. 이 위대하며 충실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증은 바로 예언자이십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행하라"고 말씀하셨던 이 훌륭한 신사는, 우리가 교회의 젊은이들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옳지 않은 일이라면 행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말해 주시오."라고 내게 말씀하셨던 것을 이곳 태버나클에서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또 얼마 전에는 새로운 박물관의 헌납 기도에서 킴볼리 부대관장님은 충실한 성도의 십일조에 의해 박물관이 세워질 수 있었다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 십일조를 바치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줄 것을 간구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나는 청년들을 위해 행할 수 있는 모든 새로운 방법에 가치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것은 여러분 같은 훌륭한 사람들의 십일조로써 자신들의 개인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공과책과 지침서 그리고 안내서 등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십일조와 헌물 그리고 봉사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교회에는 훌륭하고 재능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알고 깊이 감사하고 있는 또 하나의 훌륭한 교훈입니다. 최근에 수년의 봉사 기간 중 우리가 각 지역을 여행했을 때 나는 유능한 여성 지도자들과 강력한 신권 지도자들이 교회가 설립된 곳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자라나고 있는 것을 보고 여러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비행기에서 내려 군중들로 둘러 싸이는 것은 한쪽에만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회원들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서로 인식하

고 있습니다. 그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계속하여 교회의 젊은이들을 오늘날의 책임 있고 충실한 사람으로 인도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맡아 온 훌륭한 기회를 남겨둔 채 떠나는 자리에서 나는 이러한 사실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현명한 선택을 하고 일어서서 굳건하게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세대를 키워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성스러운 성약을 맺기 원하고 그것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세대를 키워 내야 합니다. 회장단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깊이 느껴 왔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이 예전의 상호 향상회를 통해 발전했던 훌륭하고 오래된 전통을 되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청년 청년들은 매년 새로운 성구 주제를 받게 되며, 청년들은 매주 그것을 외우고 암송합니다. 그들은 그것에 관해 이야기하며 그것에 의해 자신들의 목표를 설정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들이 그에 따라 생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금년의 성구는 니파이일서 3장 7절에서 발췌한 행함에 관한 주



제입니다. “주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행하겠나이다.” “가서 행하겠나이다.” 우리는 이 구절을 몇 번이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대회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부모님들은 교회 역원들인 우리들보다 훨씬 더 큰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나는 총관리 역원 말씀하신 것을 되풀이할 따름입니다. 이 한 니파이일서 3장 7절의 암송은 여러 해 전에 킴볼 대관장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재림을 위한 길을 예비하는 성약적 세대와 마찬가지로 다가오는 세대의 생활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여기 이 역사적인 태버넌클에 모여 대회에 참석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자신의 모국어로 통역되는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 태버넌클에서 자신들의 좌석 밑에 달린 수많은 통역기를 볼 때 여러분은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그들이 자신의

언어로서 복음을 배우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그렇게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의 관심은 가족들이 하나님의 언어로써 서로 복음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지침이 필요할 때와 이런 문제나 오해가 발생할 때, 나는 우리 곁에 있는 젊은이들과 함께 경전을 펴고 모든 축복의 근거가 되며 창세전에 선포된 율법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로서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언어로써 그분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존경과 간증 그리고 결심이 더욱 굳어지게 되며 보다 순수하게 살 수 있게 됩니다. 나는 복음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여기에 있는 이 분들이 주님의 종임을 확신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봉사할 수 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나는 우리가 갖고 있던 이런 관심사를 말아 젊은이들을 준비시킬 수 있는 소중한 여러분들이 있음을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어둠의 안개 속을 헤치고



더블류 그랜트 벵거터 장로
칠십일 제일 정원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행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저항하고 그들의 행동에 반대 의견을 표하면 우리는 비웃음을 사게 될 것입니다.”

김 불 대관장님, 저는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대관장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느낌을 갖고 있음을 전해 드립니다.

나는 오늘 어둠의 안개 속을 헤치고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처럼 두려운 지명을 받게 되면, 제이 루벤 클라크 부대관장님께서 여러 해 전에 말씀하신 원리가 생각납니다. 간단히 그분의 말씀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교회를 위해서 각 개인과 모든 회원들을 위해서 그냥 보아 넘기거나, 잊거나, 무시해서는 안될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둘째는.....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시헌을 통하여 예언자 요셉에게 나타나셨으며 ;예언자 요

셉에 의하여, 초대 교회의 배도로 잃어버린 복음과 거룩한 신권이 지상에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교육의 진로” 3페이지)

나는 이 지식이 참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알려 주신 것이므로 이 모든 사항이 진실됨을 간증드립니다.

경전에 묘사되어 있듯이 “악행과 보”(모세서 7 : 60)으로 가득 찬 이 시기에, 관장단에서는 스테이크 대회를 갖는 모든 회의에 대관장단의 특별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우리의 성약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좁은 길을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예언자를 통하여 지도자가 된 우리는 지금이 바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제명을 무시하는 자들은 다른 많은 경고 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으니라”(마 7 : 13)

경고는 불의를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와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한 말로 현대에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주를 부인”하는 것과 탐심으로 “이를 삼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성의 사악함의 예에 대하여 사악한 자의 더러운 언행과, 음행이 가득한 눈으로 범죄를 쉬지 않고 저지르는 자들에 관해서 말씀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 : 1, 3, 6, 7, 14)

대중 전달 매체의 광고로써 마약과 술 등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잠시 생각해 보면 “너희로 이를 삼으려” 우리의 영혼을 팔고 사려 돈벌이를 하고 있음을 매우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신문 기사와 대중들의 대화에는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언행”이 실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이를 두고, “사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악행이 끊임없이 우리를 앞에서 자행되고 있으므로, 때로는 어쩔 수 없이 그에

휘말리는 때도 있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에 관하여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젊은 사람들에게 음란과 불륜한 행위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야 하겠읍니다. '연령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가식에 지나 않습니다. 필경 그보다 훨씬 더 큰 부패 위가 나이많은 기존 세대에 의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간음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가정을 파괴하고 가족의 신성함을 파괴합니다. 결혼한 사람들이 이혼을 하고, 성악을 깨고, 배우자를 속이며, 거짓 충성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런 악행을 행함은 그것이 그리 나쁜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행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저항하고 그들의 행동에 반대 의견을 표하면, 우리는 비웃음을 사게 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죄인이기라도 하듯이 그들은 우리를 뜻나기니, 위선자, 청교도인, 독선주의자라고 부를 것입니다. 우리는 인체의 "미와 자연성"을 감상할 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라고 비난받을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관련하여 교회 회원의 입장을 잘 설명해 주는 생생한 실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몇 해 전 성찬식에서 스미스 형제는 사람이 들려준 것이었습니다. 스미스 형제는 주 교도소에서 교화 지도를 하면서 얻은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감옥에 있는 자기 아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에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스미스 형제가 그 청년에게 다가가자 그 청년은 무뚝뚝하게: "혼자 있었읍니다" 하며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스미스 형제는 그 감방 안에서 별로 잘 그리지 못한 그림이 눈에 띄어 알아보니, 바로 그 청년이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읍니다.

"이 그림을 그리셨지요?"

"예, 제가 그렸어요."

"아주 인상이 깊은 그림이군요. 나를 위해서도 하나 그려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군요."

"글쎄요, 어떤 그림을 원하십니까?"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 읽어 보기만 한 것입니다."라고 스미스 형제가 말했습니다.

"그게 어디 있는데요?"라고 그 청년이 물었습니다.

"여기 이 책에 있습니다. 바로 니파이일러서 8장입니다. 그것을 읽어 보시고 그 그림을 볼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라고 스미스 형제가 말했습니다.

그 후, 스미스 형제가 그 청년에게 그 책을 읽어 보았느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예, 읽어 보았습니다."라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그 그림을 보셨습니까?"

"예, 보았습니다."

"나에게 그 그림을 그려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후, 스미스 형제는 그림을 그리는 데 필요한 도구와 재료를 구하여 그 청년에게 주었고, 그 청년은 처음으로 다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도구와 재료를 받아 그림을 그렸습니다. 스미스 형제는 그와 더불어 그 그림을 성찬식에 가지 왔으므로 나도 그 그림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리하이의 꿈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자, 형제 자매 여러분, 그 그림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장을 읽어 보신 분들은 다 그 장면을 상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읽어 보지 않으셨다면, 읽어 보시고 그 그림을 머리 속에 그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 리하이는 어둡고 창랑한 광야를 방황하다가 넓은 들에 이르러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가장 먹음직스러운 열매가 달린 나무를 보고 그 과일을 가족들과 나누어 먹기를 원했으나 리하이의 두 아들들은 그것을 거절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 과일을 얻으려 앞으로 밀려 나오자, 어두운 안개가 일어 그 길을 막고, 길 옆에는 멸망을 의미하는 강물이 흐

르고 있었으며, 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보장하는 쇠막대가 있고, 강 건너 큰 건물에는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런 세상의 비웃음과 교만에 굴복하여 옳은 길을 버리고 생명 나무의 열매를 따 먹지 않고 금지된 멸망의 길을 따라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영향과 관련하여 말일성도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상태를 이보다 더 생생하게 묘사한 그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곧 현실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예언입니다. 그것은 생생한 경고입니다. 그것을 읽고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 있는 그 청년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쳤습니다. 스미스 형제는 청년이 그린 더러운 강물 위를 날고 있는 한 천사를 가르키며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그 천사는 왜 그렸습니까? 내가 읽을 때는 천사는 없었는데요.”

“그 청년은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천사는 내가 그냥 거기였다 그려 넣었습니다. 나는 그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내가 걸어온 악한 길에서 나를 구원해 주심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경험을 통해서 그는 다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하는 소리와 유혹은 선을 악으로, 악을 선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주위에 그릇된 유물들이 산재해 있어 부도덕을 행하게 하고, 가정의 비디오로는 금지되어 있는 것을 보게 하며, 실제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끝없는 쾌락에 빠지게 하며, 사탄의 무서운 죄사슬에 얽매어 우리를 영원한 슬픔과 저주의 심연인 저옥으로 떨어지게 합니다.

나는 오래 전에 비행기 조정법을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강사는 곧고 평평하게 나르고 있었었습니다. 지평선에는 산맥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와 같이 행했습니다. (행동으로 보임.) 나는 산이 솟아올라 거꾸로 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거꾸로 물

려 정상 위치로 계속 비행했습니다. 그는 비행기를 회전시켰으며, 우리가 신뢰하면서 떨어질 때, 온 땅이 마치 큰 바퀴처럼 돌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광경은 너무도 생생하고 사실처럼 보였습니다. 그 뒤로 나는 여러 번 이런 기법을 실습해 보았습니다. 오늘 내가 이런 훈련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산이 거꾸로 서고, 지구가 빙빙 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요? 경험을 통해서 실체를 배웠기 때문에 속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회원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예언자 요셉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복음이 이 지상에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의의 길에서 떨어져 나갈 구실이 없습니다. 우리가 쇠막대를 굳게 잡는다면, 속임을 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찬송가에는 옛 선지자인 니파이어 관한 노래가 있습니다. 니파이 역시 부친 이하의 시현을 보았습니다.

“옛 선지 니파이에게 한 시현 보였네.

“기복한 말씀 뜻하는 쇠막대기 시현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유혹이 닥쳐와

“어두움의 안개 속을 지날 때 있으나,

“그 유혹 권세 이르러 내 갈길 막히나,

“막대기에 의지하면 주 도와 주시리.

“잡으라 강한 막대기 하나님의 말씀,

“그 막대기 우릴 안전히 인도하여 주리.

(찬송가 115장 “옛 선지 니파이에게) *



그들의 삶의 열기에 의해 나뭇함을 느꼈습니다.



바라 비 스미스
1 상호부조회 본부 회장

“나는 9년 반 동안이나 봉사해 온 이 직책을 사랑합니다…… 힘들고 긴장될 때도 많았지만 상호부조회의 일은 훌륭한 일입니다.”

킴 볼 대관장님, 핑클리 부대관장님, 총관리 역원 여러분,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오후 나는 95회 생신을 맞이하여 자신의 감정을 솔직한 언 대법원장과 같은 심정입니다. 마음속으로 그는 이렇게 위안 했습니다. “오늘도 다 른 생일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어.” 그러나, 그가 생일에 말씀한 짧은 그의 말에는 인생에 대한 사랑, 일과 친구에 대한 사랑이 자 연히 드러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

“나는 인생의 불에 두 손을 녹였습니다. …… 값진 추억의 흔적은 나의 것이며, 오늘날의 값진 것 역시 나의 것이며…… 항상 가장 값진 인생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이라는 언 덕 너머 어느 곳엔가 있습니다.”

그 훌륭한 노인과 마찬가지로 나는 인생을 사랑합니다. 또한 나는 9년 반 동안이나 봉사해 온 이 직책을 사랑합니다…… 힘들고

긴장될 때도 많지만, 상호부조회의 일은 훌륭한 일입니다. 그 일은 나에게 아름다운 순간을 많이 만들어 주었으나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흐릅니다.

전환기의 시점에 선 내 마음속에는 추억의 단편들로 가득합니다. 나를 지지하고 참을 성있게 기다려 준 나의 가족, 특히 남편의 모습이며, 그들의 바쁜 일정을 내게 맞추기 위해 애쓴 나의 자녀들과 그들의 배우자, 곧잘 내게 모범을 보여 준 나의 손자들과 내가 함께 일한 자매들의 모습과 그들과 함께 한 경험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나는 헌신적이며, 재능있는 보좌로 일해 주신 매리언 알 보이어 자매님, 재닛 알 케논, 셸리 거블류 토마스 자매님과 제정 시기인 메이올라 알 밀턴버거 자매님 등 모든 자매님들을 사랑합니다. 또한 본부 상호부조회 임원회에서 나와 함께 봉사해 온 유능하고 재능이 많으신 자매님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개인 비서와 함께 임원으로 일한 자매들과, 본부 상호부조회 건물에서 일하시는 자매님들과 공보 대표인 모아나 비 베넷 자매님들도 계십니다.

또한 전세대의 교회에서 이제까지 알게 된 충실한 스테이크 및 와드 상호부조회 회장단, 그리고 상호부조회 회원되시는 많은 자매님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고 그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킴볼 대관장님의 말씀이 귀에 쟁쟁하게 들립니다…… “하나님, 이 훌륭한 자매님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확실히 나는 그들의 인생의 불에 내 두 손을 녹였습니다…….”

나는 개인의 슬픔, 실망, 불행에 이기고 새로운 삶을 찾는 사람들을 보았으며…… 그들 가족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사랑과 봉사의 일을 행하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나는 그들의 창조력을 음미하며, 그들의 성취감을 기뻐하며, 기쁨의 순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는 일요일에 갖는 상호부조회 모임에서, 그리고 사교 모임과 또한 우리의 이 울

통한 조직의 탄생지인 나무에서 있었던 일을 수 없는 중요한 역사적인 행사에서 만났을 때 강한 자매애를 느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동산에 기념비를 세운 행사에 대한 추억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나는 태버네클에서 많은 자매님들이 모여 상호부조회의 50주년 기념식을 베풀 기록을 읽었습니다. 전 상호부조회 회장이신 지나디 에이치 영 자매님께서 회중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형제 자매님 뿐만 아니라, 이 대륙에 계신 모든 사람들이 제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단 이 대륙만이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그리고 모든 섬나라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듣고 이해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기서 과거의 훌륭한 지도자들의 소망을 표현한 말씀에 보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음을 느낍니다. 아마도 그것은 오늘날과 같이 되도록 주님께 간구한 것 같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이 태버네클에서 개최된 어떤 모임에 참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받은 인상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 그 당시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는 언젠가 이 건물에서 많은 교회 회원들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읍니다.

그러한 어린 시절의 꿈은 1974년 상호부조회 모임에서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부름 받았을 때 실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오늘이 바로 내가 본 그날이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전 상호부조회 회장이었던 지나 영 자매님과 같이 신앙심이 깊은 분들에 의해서 오늘날 복음의 진리를 외치는 우리들의 목소리가 전세계에 퍼지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리의 말씀은 듣고 이해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애언자와 사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임을 간증드릴 수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성스러운 인도와 성신의 권세로 항상 교회를 이끌 것입니다.

교회에서 자매님들은 중요한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구한 성품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의 요구되며, 세상의 빛이 되며 다름과 악에서 어두운 세상을 대항하여 선의 방편이 수 있는 깨끗한 마음이 요구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새로 부름받으신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을 사랑하며 또한 지지합니다. 상호부조회는 잘 되어 나갈 것입니다. 상호부조회는 계속 성장할 것이며 여러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활을 축복하는 지도 인도할 것입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진실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이며 우리의 구세주요, 구속주라는 것은 그 것과 같이 나의 온 존재를 통해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순간 순간이 "시간이라는 덕 너머 어느 곳인가 있는" 것처럼 훌륭한 삶을 이룩하기를 간구하며,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다 가족 : 신성하고 조직



장로
제일 김원희

목표는 이곳 지상에서 내가 떠나 온 왕국의 가정과 비슷한 가정을 이루는 배우는 것입니다."

미스 자매님 그리고 교회의 모든 자매들과 또한 모든 형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깨낸 자매의 봉사 전 한밤중에 불이 나서 어떤 가족의 완전히 타 버렸습니다. 한 이웃 사람이 7살가 된 아이를 위로해 주었는데, 다리에서 자기가 한 가지 위대한 원리를 되리라는 것은 몰랐습니다. "자니, 가정이 타버려서 정말 안되었구나." 자니 잠시 생각한 다음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운씨, 잘못 알고 계시군요. 우리 가정 아니라 우리 집이 불에 탔을 뿐이에요. 댁에게는 여전히 가정이 있어요. 지금 당 그 가정이 들어 있을 집이 없을 뿐이에요"

이 어린이는 가정에 관하여 얼마나 훌륭한 리를 가르쳐 주었습니까. 가정이라는 말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어떤 사람은 건물이겠고, 어떤 사람에게는 잠자

는 곳, 먹는 곳이며 세상적인 재물을 쌓아 두는 곳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좀더 영적인 사람들에게는 가족이 있고 내 마음이 있는 거룩한 장소, 평화로운 곳, 악한 세상으로부터의 피난처를 의미할 것입니다.

작고 고요한 음성이 더 깊은 의미를 속삭여 줍니다. 가정은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곳 지상의 방문자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정은 이곳이 아니라, 저곳에 있습니다. 나의 목표는 이곳 지상에서 내가 떠나 온 해의 왕국의 가정과 비슷한 가정을 이루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진실로 태어나기 전에" 가르침을 받았으며 "그들은...영의 세계에서 첫 교훈을 받았으며,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의 포도원에서 일할...때가 이르면 나올 수 있게 준비하고 있었으니라"(교성 138:56)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도원에서 일하라는 가르침을 받았으며, 그 중에 아마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정에서 일하는 방법을 아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교사 가운데 가장 훌륭한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읍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이 지상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다시 배우는 것은 육신을 입고 주로 그 가르침을 경험하고 다시 발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한때 알았던 것을 어떻게 기억하고 다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마련된 것을 너희에게 알려 주며 너희의 신앙과...선행에 따라 알게" 해주시겠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엘마서 12:30 참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며 (요 14:26 참조) 또한 "백성들의 기억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엘마서 37:8 참조)

가정과 가족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독신자나 과부나 독신 부모 내지 조부모는 이런 가르침이 그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기 머물며 겸손하게 도움을 구하라.

아마 아버지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세상의 양이 너무나 커질 것이므로 내가 너희에게 몇 가지 경고가 있느니라.

.. “가족의 수를 유지하라는 압력이 강해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다음 말씀을 기억하라 ‘자식은 장사의 수종의 화살같으니 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시 3:5)

.. “가족에 대한 책임을 우선으로 생각할 것을 기억하라. 네 가족을 가르치고 활동을 공할 책임을 침해하려는 사람이 많을 것이. 가족이 가장 중요한 책임이며 기타 모든에 있어서의 궁극적인 성공은 이 신성하게 해진 관계에 쏟은 관심과 직접 정비례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찌니라.”(교성 88 : 119 조)

3. “함께 하려고 노력하자. 가족을 분산시킬 활동이나 행동을 피하라. 사랑이 낮게 르는 곳에서는 사랑이 좌절될 때, 깊은 악

감정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나이 1 : 14, 21 참조)

4. “자녀는 나 주가 부모에게 너희를 다스릴 권능을 주었음을 기억하며 부모의 말씀에 키키울일지어다. 부모를 공경하라.”(출 20 : 12 참조)

5. “일단 너희가 부모가 되면 조부모가 되는 증조부모가 되는 나같은 부모가 되는 항상 부모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관리해야 하는 책임은 자녀의 마음을 조상에게 물리는 것을 돕기 위하여 여러 세대를 두고 계속되리라. 가족의 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 일을 하고 싶은 유혹을 극복하라. 조부모로서 너희의 지혜와 시야로 인하여 나 주가 너희에게 준 네 가족 전체를 하나로 모을 수 있게 되리라.”(모사이야서 2 : 5참조)

형제 자매 여러분, 또 이런 말씀도 포함시키셨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자녀들아, 이런 것을 배울 때 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상하게 낮익게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므로 이것을 기억하는 것을 너무 염려하



지 말찌이다. 그것은 이곳 너희 천국 가정에서 그 모든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낮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니일 15 : 8, 11 참조)

자녀가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하게 할 때 내가 너희로 인하여 고통받은 것처럼 너희도 고통받을 것이라(교성 133 : 52-53 참조)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지니 내가 "천국의 나의 천국들에게 너희를 맡"겼기 때문이다. 그들이 내 "면진"으로부터 파송되어 "너희를 둘러 있어 너희를 감싸 주리라"(교성 84 : 42, 88 ; 133 : 53 참조) 이것은 너희가 우리에게 배운 것을 경험할 기회이니라. 우리는 너희를 사랑하노라."는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라.

형제 자매 여러분, 절론으로 가능하면 다음과 같이 하시도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자녀는 어디에 있는지 어떤 실책을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죄를 범하였는지 항상 가족의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가정으로 가십시오.

조부모님, 형제, 자매, 삼촌, 숙모는 가족을 모두 가까이하십시오.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가정의 개념이 승화되기 바랍니다.

이는 주님께서 태초에 가정을 그렇게 조성했기 때문입니다.

내 가정을 온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 만들어 준 부모님, 아내, 아이들에게 찬물입니다. 온 세상에서 우리 가정보다 고 싶은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정과 가족에 관한 찬양을 우리가 모두 함께 노래할 날이 바랍니다.

오 높은 영광 보좌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내 언제나 다시 돌아가 아버지 얼굴 보리라?

하늘의 부모 홀몸이라니 똑바로 이성을 따라

어머니 역시 계시를 진리 영원한 이성 하비

연약한 이 생 내 떠나서 세상 생명을 미 오면

부모 양친 하늘 궁전에 즐거이 이 몸 맞으
당신께서 하라신 과업 불초 내가 다할
당신 곁에서 함께 살라 허락하여 출소
(“오 높은 영광 보좌” 118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기도의 본보기



브루스 알 맥킴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기도는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은 손을 내밀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전과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러셀 벨슨 형제님과 딸린 옥스 형제님이 이 시간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으로 부름받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영감의 영에 의해 부름받았으며 이 시간부터 영원히 주님의 집에서 의의 중요한 보호자로서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나의 마음속은 주님께서 제게 베푸신 선하신심으로 감사함과 기쁨이 가득 넘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고통을 당하고, 불안을 느끼게 해주셨으며, 또한 치유의 능력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많은 분들이 보여 주신 신앙과 기도에 깊이 감사드리며, 은혜의 보좌에 이르러 만큼 간절히 간구해 주신 것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은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여 그의 축복을 구하며, 우

리가 것처럼 바라는 일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간구하고,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우리도 “공활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히 4:16)가는 때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창조주와 교통할 수 있도록 창조주께서 마련해 주신 방법이며 수단입니다. 그것은 순수하고 완전한 예배의 중요한 주춧돌이 됩니다.

기도를 하는 중에 우리는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음성이 주님께 상환되고 성령의 권세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은 손을 내밀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전과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위대한 힘의 원천이며, 끝없는 의의 근원이며, 위대한 영향력을 미치며, 영혼을 구원하시는 강한 힘입니다. 기도를 통해 병자가 치유되며,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며, 충실한 자에게 성신이 무한하게 임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겠다는 거룩한 성약을 맺습니다. 기도로 우리는 가장 높으신 분에게 헌신과 성찬을 바칩니다.

아직도 죄 가운데 기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잔잔한 물가에서 물을 마시며 푸른 초장에 누워 있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 가짐으로 나는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몇 가지 기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도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비슷한 느낌과도 어울리게 될 것이며, 찬양과 간구와 공경과 감사의 아름다운 합창과 어울려 하나님께 바쳐질 것입니다.

우리는 암송하거나 의례적이고 반복적인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의 인도하

심을 구하고 모든 기도는 그 순간의 필요 사항에 적합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는 중에 이와 같은 생각을 전달하는 말을 하는 것은 적합할 것입니다.

아버지시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 주시옵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눈으로 우리의 생각과 의도를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의로운 소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면전에 나아가 그 보좌 앞에 절하며, 당신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을 큰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당신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기울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신의 권세로 말하도록 하옵소서.

그런 다음에는, 지상 생활의 축복에 대하여 주님께 감사드리고, 불멸과 영생을 바라며, 이와 같이 합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시여, 우리가 순례자와도 같이 하나님의 집에서 멀리 떨어진 이 지상에 거하여, 다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위대하고도 영원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셔서, 당신의 영의 자녀들이 모든 일에 충실하고 진실하다면, 발전하고 진보하여 당신과 같이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당신께서 거룩하신 아들 예수를 구세주와 구속주로 보내셔서 당신의 위대하고도 영원한 구원의 계획의 모든 조건을 유효하게 하시고 우리를 죽음과 지옥과 악마와 끝없는 고통으로부터 구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와 그의 축복된 이름에 영광을 드립니다. 그가 우리를 육체적 및 영적 사망에서 구해 주시고, 우리와 당신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며, 그가 우리를 당신에게 화해시키시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재적으로 우리를 고쳐 주심을 영원히 기뻐하옵니다.

오 아버지시여, 당신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어 우리가 그를 얻는다면, 멸망치고 영생을 얻게 되고, 그가 갓세마네에서 우리와 같이 된 피와 고난으로, 또한 골고다의 피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회개한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 받으시어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우리는 주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거룩하신 베시야라 불리우며, 우리의 주님이시요, 하나님이며, 왕이 되시며,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갖추고 계신 분으로 우리가 경배드리며, 그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게 하시어, 마지막 날에 그의 당신 앞에 흠없이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시대의 영화로운 복음의 회복에 관한 기도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며, 이 시대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감사드리며 기뻐하옵니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복음의 회복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고, 오랫동안 닫혔던 하늘이 다시 열리고, 거룩한 천사들이 신권과 열쇠와 빛과 진리를 가져와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배풀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매가 찬 경륜의 시대의 문을 열기 위해서 당신과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1820년 봄에 요셉 스미스에게 오신 것을 알고 우리는 다만 경의감을 느낍니다.

당신께서는 모로나이를 보내셔서 물문경을 계시하셨으며,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의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의 시온으로 모을 수 있는 권능을 주셨으며, 엘리야를 보내셔서 지상에서 매번 영원히 그것이 하늘에서도 인봉되는 권세를 주게 하셨으니 오직 경이로울 뿐입니다.

엘리야가 아브라함의 복음을 다시 가져와 성약의 자녀인 우리가 영원히 가족 단위를 지속시켜 나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하옵니다.

아들의 속죄하심을 통해, 우리가 아버지와 화해하게 된 것에 관해서는, 이와 같이

기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아버지시여, 당신은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주셨으며, 우리에게 많은 계시와 시련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름과 선택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며, 경전을 주셨고, 특히 당신의 말씀을 우리 시대에 밝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신 127] 은사를 베풀어 주시어, 그로 말미암아 모든 진리로 인도되며, 우리의 영혼을 성결케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는 무한한 감사를 느끼며, 그로 인해 우리는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죄를 고백하고 죄사유함을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을 받아들이는 데 장애가 없게 하옵소서.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에 관하여서 우리의 욕구가 이와 같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당신의 교회와 왕국을 축복하십시오. 우리가 고대의 시온을 새롭게 고 새 예루살렘을 세우기 위해 아버지께서 훌륭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잃은 양을 고대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대로 시온의 스테이크로 모으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회복된 복음을 모든 나라와 혈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할 권세를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의 문호를 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의 아들의 재림을 위해 백성들을 준비시키라는 거룩한 사명을 완수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을 찾아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헌납된 지성소에서 그들을 위한 구원과 승영의 의식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가 당신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약점을 이겨 나가게 하십시오.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이며, 당신과 같은 분은 아무도 없으니, 우리는 다만 당신께 경배와 찬양과 감사를 드

립니다.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 사항에 관해서 나는 주저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가족과 들에 나는 과일과 포도나무와 식물이 번성하도록 간구합니다. 당신께서 자연을 다스리시어 우리를 재난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광주리와 창고가 가득 차게 하옵소서.

우리는 음식과 의복과 주거가 필요하며, 교육과 적절한 직장이 필요하고, 우리가 하는 일과 전문 분야에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필요 사항에 따라 허락하여 주시며,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우리에게 적절한 양식을 내려 주시옵소서.

구원을 위해 스스로 준비하는 개인적인 축복에 관한 우리의 생각은 이와 같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을 축복하시사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결합하여, 부모가 빛과 진리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이와 같이 해서 자녀가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되고, 그들의 의로운 조상들과 같이 생활하여 그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게 하옵소서.

오, 아버지시여, 우리들 중에는 영원한 동반자를 갖게 되기를 갈망하며 그에 합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신께서 그들 앞에 길을 예비하사 그들이 의로운 마음의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들 중에는 병들고 고난받는 자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 죽기로 정해지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오, 병을 고쳐 주시는 위대한 분이시여, 당신의 성도들 위에 치유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시여, 우리의 신앙을 키워 주시어 병자가 치유받고, 죽은 자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오, 치유케 하시는 하나님이며, 병고침의 능력을 갖고 오신 그로 하여금 우리를 영적으로 치유케 하옵소서.

우리는 깨끗하게 되고, 순결한 백성이 되고자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

이 함께 하기를 필요로 하며, 원하고, 추구 하웁니다. 고대의 백성들이 그러했듯이, 우리는 성신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오, 아버지시여, 우리는 영의 은사를 기뻐 하며 풍성하게 내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간증과 계시와 시현과 기적이 우리에게 더욱 풍성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들 지 못하고,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와 본 적도 없는 영생의 경이를 알게 해주옵소서.

그런 다음, 결어와 성약과 간구에 대한 것은, 이러한 생각을 나타내는 다음 단어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끝으로 아버지시여, 우리는 당신의 아들이 당신과 하나가 되듯이 그와 하나가 되고 자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를 구하며, 영생을 갈망하며, 당신의 면전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바라며,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모든 예언자와 고대의 거룩한 분들과 함께 앉아 다시는 떠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 하웁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이 지상에 거하는 동안 당신의 아들의 얼굴을 보게 하옵소서. 그가 하는 다음 말씀을 듣게 해주옵소서. 내 아버지의 복받은 자들이여 나아오라. 너희는 주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그때의 부름과 택함은 확실하게 되었노라. 그때는 나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었으니, 내 아버지께서 갖고 계신 모든 것을 장차 받고, 소유하고 물려받게 되리라.

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지여, 이러한 모든 감사의 표현과 모든 축복의 간구에 관한 당신의 마음과 뜻을 알고 있는 우리는 항상 당신의 계명을 지키고 당신을 사랑하고 섬길 것을 성약하나이다.

이제 이후로 우리는 부끄러움없이, 순종하며, 충실하고, 모든 신의에 진실되며,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가 당신의 백성이며, 당신의 목장의 양들이며, 당신의 선택된 자녀임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증거함을 성약 하나이다.

이와 같은 말은 기도로 주님께 표현할 감정과 소망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누구든지 찬양과 간구와 경배와 감사의 이러한 대합창에 참여하며, 그들이 기도한 대로 생활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이 생에서 화명을 얻으며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게 될 것임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자신과 나의 가족과 모든 이스라엘을 위한 나의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리는 혹시 그들이 우리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것인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다가가자 그들은 의아한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선교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조금 웃으면서 비양거리는 투로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말을 듣기를 원하지 않음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그룹 중의 한 젊은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기타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우리는 그에게 우리를 위해 한 곡 연주해 줄 수 있는지 물어 보았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면서 기타를 메고 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가 기타 연주를 끝마쳤을 때, 우리는 그에게 우리 자신과 우리의 메시지에 관한 여러 가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그의 이름이 호세 마누엘이라고 알려 주었습니다. 우리는 몇 분 동안 더 이야기하고 나서 다른 날 교회에 관하여 더 이야기 할 수 있는지 묻는 것으로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그는 우리의 이야기를 더 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자기는 거의 매일 공원에서 개를 돌고 다니거나 기타를 치고 있으므로 우리가 그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곳을 떠나면서, 우리는 이 젊은이가 침례를 받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에 우리가 같은 장소에 가 보니, 놀랍게도 그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들을 것인지 물었습니다. 우리는 공원 의자를 마주보도록 당겨서 나와 나의 동반자는 한쪽 의자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호세 마누엘의 눈을 지켜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토론이 끝날 무렵에 우리는 물론경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에 미래복을 받았었다는 것을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이 위대한 사건에 관하여 읽어 볼 것을 권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우리는 물론경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호세 마누엘이 과연 그것을 펼쳐 보기라도 할 것인지 의심하였

습니다.

며칠 후에 우리는 그가 읽기로 한 것을 다 읽었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우리가 지정한 물론경의 부분을 다 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가 읽은 것을 그의 친구에게 이야기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친구가 그 책을 원했기 때문에 호세 마누엘은 그것을 친구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또 한 권을 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한 권을 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후 우리는 그에게 복음을 계속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그의 모습과 마음이 변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침례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우리가 스페인의 마드리드의 공원에서 호세 마누엘을 처음 만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지금 교회의 회원입니다. 몇 달 전에 그는 여리분과 나와 같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선교사로 나갈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호세 마누엘은 세상적인 면에서는 어느 모로 보나 선교사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최근에 개종하였고 그의 복음에 관한 지식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몇 년 전에 아버지를 여의었고, 그의 어머니는 그가 선교사로 나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그가 선교사로 나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일년 반 동안 봉사할 수 있는 재정적인 뒷받침도 없었습니다. 그가 또한 선교사로서 봉사를 생각하기 이전에 병역 의무를 마쳐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가 선교사로 나가는 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선교 사업에 관하여 생각할 때, 우리는 누구나 선교사로 나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이유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중요한 것은 선교사로 나가야 하는 이유를 찾는 일입니다. 호세 마누엘도 선교사로 나갈 몇 가지 이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요셉 스미스가 시현을 보았고 이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사실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호세 마뉴엘은 봉사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는 그 일에 부름을 받았고 주님의 도움으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지금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때때로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각종의 장애에 직면하게 됩니다. 나의 아버지의 경우에는 할아버지가 편찮으셨습니다. 호세 마뉴엘의 가족은 그가 선교사로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의 농구 선수로서의 장래를 걱정하였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많은 장애물은 모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나는 잠시 동안 바로 여러분에게 직접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에이인이 있습니다.” 또는

“나는 좋은 차와 좋은 직장을 갖고 있습니다.” 혹은

“나는 학교 공부를 잘 못하니 성경 구절과 복음 토론 내용을 결코 외출 수가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혹은

“나는 잘 모르는 사람에게서는 말을 잘 못합니다.” 혹은

“나는 모든 선교사 규칙을 그대로 순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혹은

“나는 교회가 진실한지에 관해 잘 모르는 데 어떻게 남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간증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선교사로 나가서 간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에이도 잘 되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 구절과 복음 토론문을 상당히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

습니다. 여러분은 낯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순종할 수 있으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지금까지 어려움을 많이 겪어 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능력에 대하여 두려움을 품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학문적인 면에서나 사회적인 면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사교적이고 교육을 많이 받았고, 지도자 경험이 있고, 말을 잘 할 수 있는 것이 선교 사업을 하는 데 유용한 자질이 됨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선교사에게는 이러한 것 이상으로 실질적인 힘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최근에 두 사람의 선교사 동반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중 한 선교사는 외향적인 재능을 갖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몇 회에 걸쳐 토론을 가르쳤던 가족 중의 한 남자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에는 가족들이 복음 토론을 계속할 생각이 없으니, 와서 물문을 도로 가져 가라고 써져서 있었습니다.

외향적이고 사교적인 장로는 그의 모든 사교적, 학문적 재량을 동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였습니다. 그는 그 남자와 만나 이야기하는 동안 그가 발휘할 수 있는 모든 설득 기술을 동원하였습니다. 내성적인 다른 한 장로는 잠자코 듣고만 있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토론을 다시 계속하기로 동의하였습니다.

후에 그 가족이 침례를 받게 되었을 때 외향적인 재능이 있는 장로는 그 전에 설득한 날을 생각하면서 약간 우쭐한 자만심을 느꼈습니다. 침례 후에 그 남자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제가 마음을 바꾸어 당신들에게 계속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은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말하고 있는 동안 나의 마음은 확고 부동하게 복음 토론을 듣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말을 많이 했어도 저의 마음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는 당

신의 말없는 동반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나를 줄곧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열 줄에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무한한 사랑을 보았습니다. 나는 가슴깊이 그러한 영을 느꼈기 때문에 그의 무언의 메시지를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때 만약 이 교회가 성도들에게 그러한 사랑을 가르치게 한다면, 나도 그 교회에 속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외면적인 사교적, 교육적 재능이 선교 사업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사랑과 신앙과 간증이라는 내부적인 자질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은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건강이 허용한다면, 값있는 봉사를 하도록 준비하십시오. 모든 장애를 뒤로 하고 선교사로 나가십시오.

나는 주님께서 선교 사업에 관한 우리들의 모든 결정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또한 결혼에 관한 결정, 성격에 관한 결정, 헌신과 도덕적인 결정을 내릴 때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나는 스페인에 있는 동안 듀란트 장로라는 명예스런 부름을 받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고 그가 지상에 계신 동안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길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은 신권 소유자인 우리에게 가르친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기를 기대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할 때, 주님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인생을 축복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축복해 주십니다. 나는 그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진실됨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은 나의 인생에 너무나 큰 의미를 주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이 세 인턴 스테이크 부장

누가 주님의 편인가?



제이 토마스 파이언스 장로
칠십인 제일 정교회

“우리는 여러분이 매일 영적으로 단련하기를 권고합니다. 신권의 단련을 가장 우선적인 것으로 삼으십시오. 전면적인 운동에 계속 헌신하여 그것이 여러분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게 하십시오.”

메 이저 리그 팀에서는 스카우트 직원을 고용하는데, 그들의 임무는 계속해서 젊은 유망주들을 발굴해 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문적인 안목으로 계속해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고 있는 선수들을 찾습니다. 이러한 젊은이들이 선발되는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따라야 합니다.

그와 같은 운동 선수들은 모든 면에서 완전해지기 위해 수년간 훈련을 거듭합니다. 그는 장시간 연습합니다. 그는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영양식 섭취에 유의하며, 자신이 취하는 음식물이 신체의 지구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다른 건강 규칙도 지킵니다. 그의 생활에서는 육체적으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선결 문제가 됩니다. 매일, 매주, 그리고 매년 목표를 세우고 크게 노력

합니다. 그는 그의 동작 하나 하나를 지켜보며 자기의 기록에 대해 자신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코치의 말을 자세히 듣고 그대로 따릅니다. 그들은 함께 그의 경기를 녹화한 비디오 테이프를 틀어 보며 검토하고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 그의 능력을 면밀히 분석해 보기도 합니다. 그는 새로운 기술이나 원리가 있으면 어느 것이든 빠짐없이 알고자 애씁니다. 그는 밤이 되어 잠자리에 누우면, 다시 한 번 자신의 기록을 머리속에 훑어 보고, 세계적인 프로페셔널 운동 선수로 구성되어 있는 팀의 일원이 되는 날을 늘 그려봅니다.

우리는 “누가 주의 편이냐?”라는 찬송가를 부릅니다. 편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편이라는 말은 게임이나 스포츠에서 경쟁 상대의 한쪽, 한 그룹의 선수를 측 한 팀을 말합니다.

위의 정의를 토대로 하여, “누가 주의 편이냐?”라는 질문을 “누가 주의 팀이냐.”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신권 소유자에게 적용시켜 봅시다.

누가 주의 팀이냐 지금 보일 때라,
두렵없이 묻노니, 누가 주의 팀이냐.

사실 주 경배하니 적 알기 원하네,
우리 적으냐 강하니 누가 주의 팀이냐,
두렵없이 나아가 승리 쟁취하세,
주 영 함께 하니 누가 주의 팀이냐.

(찬송가, 51절)

주님의 팀에서 일한다는 것은 우연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속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신권,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81년, 2페이지)

엘마서 13장 1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반차에 따라 제사를 성임하셨

음"을 압니다.

3절과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안수 성립된 절차는 이러하니라. 저들은 땅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부름을 받아 준비되었으니, 하나님의 미리 아시는 능력과 저들의 놀라운 신앙과 선행으로 이루어졌느니라. 맨처음 저들을 선과 악 중 무엇이라도 마음 대로 택하도록 버려 두셨으며, 그러한 가운데 저들이 선을 택한 다음 놀라운 만큼 큰 신앙의 일을 행하여 성스러운 부름을 받은 것이니……"

"이같이 저들이 신앙에 따라 성스러운 직분에 부름을 받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마음이 강박하여지고 생각이 어두워 성신을 거역하려 하였으며, 저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들 저들의 형제들과 똑같은 특권을 얻었으리나."

엘마서 13장 9절에는 "이와 같이 저들은……대제사가 될 것이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농구팀에 가입하거나 연극 공연에 참가하거나 사중창단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소년단에 가입할 때, 그 그룹에서의 회원 자격은 보통 수개월 또는 기껏해야 몇 년간밖에 지속되지 못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그룹 가입에는 시작이 있듯이, 끝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마가 가르친 바와 같이, 우리는 영원히 대제사입니다. 신권은 영원합니다.

이제 청남 여러분, 예언자들이 신권을 받기 위해 영적으로 준비하신 모범을 그들의 생애를 통해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님께서 그의 느낌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론 신권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어린 소년이었을 때, 나의 부친께서 물론경을 내 손에 쥐어 주시면서 그것을 읽으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이 니파이의 기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에게 맡겨진 일을 전력을 다해 행했습니

다. 그 중에서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결코 잊을 수 없는 어떤 구절이 있습니다." 그 당시 10살밖에 되지 않은 그는 물론경을 두 번이나 읽었다. 그의 형제들은 그가 할 일을 될 수 있는대로 빨리 마치고, 때로는 야구 게임도 빠져가면서 진코치미 위에 올라 앉거나 나무 그늘 밑에서 물론경을 읽었던 일을 기억했다." (조셉 필딩 스미스의 생애,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72년 57페이지)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집사였을 때 토요일에는 미망인들을 위해 장작을 패어 주던 일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9명이 그룹을 지어 간단한 모임을 갖고, 도끼를 들고는 그 미망인 자매님들 집으로 가서, 한 주일 동안 땀 수 있을 만큼 장작을 패주곤 했습니다."

맥케이 대관장님은 이렇게 계속했습니다. "제사 시절에, 내가 성찬 축복한 것이 기억나는데, 처음으로 실수를 범한 것은 성찬 기도를 드릴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성찬 축복할 때 인쇄된 기도문을 보고 하지 않고 그것을 암송해야 했습니다. 성찬 테이블은 설교단 바로 아래 있었습니다. 감독님이셨던 나의 부친께서는 언제나 떡과 물을 축복하도록 지명받은 자들의 바로 위에서 제셨습니다. 나는 기도문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속으로만 외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무릎을 꿇고 내 앞에 있는 회중들을 보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읍니다." (소중한 경험, 클레어 미들미스,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76년 190페이지) 이런 일이 있었으나 그는 실망하지 않았읍니다. 그는 더욱 더 열심히 준비하여 훌륭하게 해 낼 수가 있었습니다.

킴볼 대관장님은 어린 소년 시절에 자신이 세운 목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온 한 지도자가 대

외에서 경전을 읽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아직 한 번도 성경을 읽은 적이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회가 있던 그날 밤에 나는 한 불룩 떨어져 있는 집으로 걸어가 골장 집 맨 꼭대기에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조그만 탁자 위에 놓은 석탄 기름 램프에 불을 붙이고 창세기 첫 장을 읽었습니다. 일년 후에 나는 그 크기 영화로운 책을 다 읽게 되었습니다.

내가 읽은 성경은 66권의 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이 1,189장, 1,519페이지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거의 성경 읽기를 포기할 뻔했습니다.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만일 다른 사람들이 그 성경을 다 읽을 수 있다면 나도 읽을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14세의 소년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미가 없는 페이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66권, 1,189장, 1,519페이지를 다 읽었을 때, 나는 목표를 세워 그 것을 성취했다는 큰 만족감을 얻었습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자랑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석탄 기름으로 밝힌 등불 아래에서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은 전기불 아래서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의 예로 이야기하고자 한 것 뿐입니다. 나의 마음속에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다는 기쁨이 항상 깊게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성도의 빛, 1974년 9월, 34페이지)

거의 매주 나는 세상의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따라서 나는 금년에 불문경에 대하여 배우고 있는 나의 와드의 복음 교리반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주는 바로 이 성스러운 성약의 영을 받을 특권을 잃게 되어 참으로 마음아팠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아내와 함께 집에서 불문경을 공부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1984년 복음 교리반 과정을 금년 4월 언차 대회 전까지 끝마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1월에 시작하여, 3월 12일 월요일에 불문경에 관한 46개 공과의 마지막을 끝마쳤

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니 참으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온 청년 여러분은 한 팀의 회원이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큰 기대를 갖고 이 날을 기다려 왔습니다. 여러분의 머리 위에 손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신권이 부여되어, 여러분이 주님을 대신하여 인간에게 성스러운 의식을 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잠시 이에 관해 생각해 보십시오.

신권을 지니신 나의 친구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총관리 역원들도 모두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매일 영적으로 단련하기를 권고합니다. 여러분은 이를 선택의 정도에 따라 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문경을 매일 몇 구절 또는 한 장씩 또는 하루에 15분이나 30분씩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영성의 양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목표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놀라울 정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주님의 팀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봉사와 사랑으로 행하고 성실하게 생의 문제점에 대하여 인내심을 키우고, 영적으로 건디고 영성을 키우기 위해 경전을 읽고 깊이 생각하여 영적인 양식을 취함은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신권의 단련을 가장 우선적인 것으로 삼으십시오. 전문적인 운동에 계속 헌신하여 그것이 여러분의 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게 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온 신경과 마음속에서 자연히 넘쳐 나오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도 다시 한 번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기도가 습관적으로 주님께 향하게 되어, 주님의 위대한 신권 팀에서 여러분의 역할을 온전케 하고자 하는 큰 소망을 지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잃어버린 양을 찾음



조셉 비 위스린 장로
칠십인 제일 정교회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품는 것이 비 활동 회원을 활동화되도록 돕는 첫째 단계가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진에 두 번이나 벨슨 형제님의 보좌를 지냈던 바 있는 나는 리셀 엠 벨슨 장로의 부름에 대해 감사하며 그분은 고매한 인격의 소유자이며 왕국에서의 그분의 사업의 위대성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나는 또한 옥스 장로님의 고귀한 인품에 대해서도 증거하는 바입니다.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로 이룬 현인을 찾아갔던 한 젊은이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젊은이는 자기가 일하고 있는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그 현인에게 조언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그 현인은 말하고는 젊은이를 근처의 냇가로 데리고 가서 그를 물속에 처박았습니다. 그 젊은이가 물 위로 나왔을 때, 그는 숨이 막혀 죽을 지경이 되어 헐떡이며, “숨막혀, 아이 숨막혀”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그 현인은 “바로 그것이 제일가는 교훈이다. 바로 비가 공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공을 간구할 때, 그 목적은 달성되며 성공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소망, 타는듯한 소망을 갖는 것이 모든 성공의 기본이 됩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릴까요? 그것은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품는 것이 내가 오늘 저녁에 말씀드리려는 “비활동 회원이 활동화되도록 도움”이라는 주제의 첫 단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는 이 말씀도 들으시는 여러분이 그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열망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성공했던 사람들은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우리가 좋은 일을 할 수 있기 전에 먼저 우리의 태도와 생각이 좋아야 합니다.

던 엘 라슨 장로님은 이것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잘 묘사했습니다. “우리는 옳고 그른 것을 이해하고 있으면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때 자신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그 선택에 따르는 필연적인 결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도덕적인 것에 관한 자유의지를 행사할 자유는 최대의 발전과 진보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성도의 빛, 1980년 11월호 110페이지.)

예수님께서서는 몸소 기본 원리를 가르치셨으며, 이러한 원리는 개인의 영적이고 정신적인 상태와 관련이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세주께서는 우리의 정신 상태가 올바르게 그밖의 모든 행위가 올바르게 되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신 상태가 올바르게 못하면, 일생 동안 성취되어지는 일이 지어 없게 됩니다.

니파이가 그의 백성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은 기쁘게 지키라. 보라 그리스도의 말씀은 너희가 행하여야 할 바를 모두 진하여 주심이라.”(니이 32:3)고 가르쳤음은 놀랄만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더러 주어 주어 하는 자

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태 7:21)”라고 가르쳤습니다.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마태 7:13)고 말씀하셨습니다.

메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님께서서는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과 당연히 해야 할 모든 것 중 단 하나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행할 때에 우리는 틀림없이 성공하게 되며, 모든 임무를 다 행하지 않는다면,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대학에 다닐 때, 운동에 몰두했었고, 그 후에도 계속 관심을 갖고 동계 올림픽 기사를 읽기도 했습니다. 스포츠 기사 편집은 동독과 같은 작은 나라가 굉장한 활했다고 평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경쟁국보다 더 좋은 훈련을 받은 것은 아니나, 마음 자세를 잘 준비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정신적으로 잘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지기는 했지만 바로 긍정적인 정신 자세가 그 나라 선수를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점이였다.”(리 벨슨, 매저벳 뉴스, 1984년 2월 17일 D-2페이지)

비활동 회원을 강화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4가지 부류의 비활동 회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1. 평생 회원이나 한 번도 활동화되어 보지 못한 채, 그의 가족들만 결국 비활동으로 만드는 회원.

2. 새로 개종했으나, 영적으로 감화를 받지 못하고 보통 일어난 이내에 떨어져 나가는 회원.

3. 활동적인 회원이었으나, 잠시 범법에 빠지거나 다른 어떤 문제를 갖고 있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타락으로 빠지게 된 회원. 종종 그들의 문제에는 복음에 대한 지식과 간증의 결여가 포함되어 또한 불합당성이나 죄책감을 갖게 하거나 교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하기를 두려워하게 하는 나쁜 감정이

포함된다.

4. 세상적인 철학이나 행동에 사로잡혀 교회에서 멀어져 가는 젊은이. 또 순간의 패락을 추구하며 세상적인 관념에 사로잡히거나, 같은 또래의 젊은이와 어울려 세월을 허송하며 때늦게 현실을 의식하는 젊은이.

이와 같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 즉 비활동 회원을 다시 활동화하도록 돕는 일은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스테이크, 와드, 지부에서 또 장로 정원 회 지도자들이 최우선으로 다루어야 할 일입니다. 모든 비활동 회원은 지금까지 그들이 취해 온 태도에 관계없이 활동화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친절하고 참고 오래 견디며 사랑과 신앙과 근면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대하고 언제나 사랑한다는 것을 그들이 인식해야 합니다. 다시 완전히 활동적으로 된 회원들에게는 영적인 변화와 다른 회원과의 융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따뜻한 우정과 진정한 형제애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최근, 저는 어느 한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해서 회원 활동화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스테이크 내의 한 와드의 감독님은 비활동 회원을 활동화시키는 데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 감독님이 취한 첫 단계는 대화였으며 각 비활동 회원과 의미있는 접점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 비활동 회원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화를 받은 비활동 회원의 부인은 “감독님, 전화를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남편은 밖에 있으니 곧 그에게 전화를 바꾸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감독님에게 전화가 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그 비활동 회원의 마음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전화가 받기 싫은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감독에게 자고 있다고 해요, 더욱 익살스럽게 죽었다고 해요.”

사실, 그 형제님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글자 그대로 사실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맞습

니다. 그는 자고 있었고, 슬픈 일이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아내란 남편의 삶에 큰 힘이 되는 것이므로, 그 부인도 부드러운 태도로 남편을 설득해서 전화를 받게 했습니다. 그러자, 감독님은 친절하고 정중한 태도로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 제 사무실에서 형제님을 잠시 뵈올 수 있을까요?”라고 했습니다. 그는 친절한 초대를 거절할 수 없었고 결국 감독님을 만났습니다.

감독님의 간증과 깊은 관심은 그 비활동 회원의 가슴에 감동을 주었고 곧 있을 신전 준비 세미나 모임에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그 형제는 진리에 대한 확고한 지식과 감화에 찬 간증을 가진 훌륭한 교사로부터 많은 변화를 받았읍니다. 그는 가족을 강화하고, 신전에서 축복을 받고, 가족들이 영원히 인봉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훌륭한 형제님은 아직 자고 있으나 지금은 훨씬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가족의 삶에 형언하기 어려운 행복을 더해 주었습니다.

어떤 와드에서는, 감독님이 특별히 선정된 비활동 회원을 위해 두 명의 가장 훌륭한 가정 복음 교사를 지명했습니다. 그 가족의 아버지이며 남편인 형제님은 장로 신권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수년간 비활동이었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는 방문을 받고, 매주 특별한 가정 방문 교사가 와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어도 좋으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은 동의했고, 그 가정 방문 교사는 그 가족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잘 정리된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감독님은 그들 부부를 몇 주일에 한 두 번씩 집견했습니다. 그 남편은 일요일이면, 늘 곧뜨리러 나갔고, 처음에는 그의 생활 방식을 바꾸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한 집견 중에 감독님이 그 형제에게, “형제님은 형제님의 훌륭한 가족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일로 인

해, 이 비활동 형제는 이 중요한 문제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수주일 후 다시 집견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는 완전히 신일조를 다시 내며, 신전에서 아내와 인봉받도록 준비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 가족이 활동화되면서, 그의 전 가족의 태도가 변화되었고, 복음 원리를 받아들여 새로운 형태의 생활 방식을 갖게 되어 매우 행복해 보였습니다.

또 다른 한 비활동 가족의 경우에는 특별히 지명받은 가정 복음 교사가 그 비활동 회원의 이웃에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교사는 진정한 우정과 이웃으로서의 관심을 보여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노력 끝에 그 교사는 진지한 태도로 비활동 회원 가족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그 가족과 같이 앉아서 매주 그들의 집에서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지를 물어 보았습니다. 그 교사들은 가족들에게 절대로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며 단지 구세주의 복음 교리를 가르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의문에 답변해 줄 것이라고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수주일 후에 그 특별한 임무를 맡는 가정 복음 교사는 그 가족들을 교회로



메리고 왔고, 곧 그 가족은 스스로 모든 집회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감독은 그 부부를 집전했고 남편이 벨기세매 신권을 받고 신전에서 그들이 인봉되도록 목표를 주어 준 비하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감독님은 그 부부가 현재와 영원을 위해 다섯 명의 자녀와 함께 인봉되는 것은 매우 감동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신전의 인봉실에는 와드의 친구들과 회원들로 꽉 채워졌습니다.

지금 그 가족은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 강한 간증을 갖고 있으며, 와드에서 그 가족 만큼 그렇게 많이 변화된 가정은 없다고 회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남편은 장로 정원회 회장단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한 훌륭한 스테이크의 장로 정원회 회장이 작년에 15명의 비활동 장로를 환동화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보고를 받았읍니다. 나는 "어떻게 그 일을 해 내셨습니까?" 라고 묻자 그는 "우리와 가정 복음 교사가 그들을 자주 방문하여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항상 그들을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

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간증은 강화되었고 그들과 그들의 가족은 교회의 활동 회원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그들의 형제 자매들을 강화하게 하는 자들을 보상에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께서 현대의 계시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온 생애 동안 이 백성에게 회개를 외치 단 한 사람이라도 내게로 이끌어 오면, 저와 더불어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맛 볼 너희 기쁨은 얼마나 크겠느냐?"(교성 18 : 15)

저는 제가 알고 느낀 바가 여러분의 마음 속 깊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간증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의 영원함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 영원하며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을 알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 위대한 일을 하는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아멘. *



내 양을 먹이라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선교 사업이 여러분의 학업에 지장을 주거나, 여러분의 사회 진출이나, 결혼을 지연시킨다해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 한 모든 말일성도 젊은이들은 선교사로 봉사하라는 부르매 응해야 합니다.”

나는 아론 신권을 소유한 어린 친구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유로 말씀할 시작하고 그 후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감독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모든 와드 회원을 위한 피크닉 계획을 세워 보라고 지명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것은 와드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친목 모임이 되어야 하며 우리는 충분한 예산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교외에 멋진 야외회 장소를 예약해 둘니다. 우리는 그곳에 자리잡게 되고, 아무도 우리를 방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준비가 착착 잘되어 갑니다. 그날이 되자,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식탁이 한 줄로 놓여 있고, 식탁보와 접시까지 마련해 둡니다. 것처럼 멋진 향연은 본 적이 없습니다. 상호부조

회와 청년의 공이 컸습니다. 식탁에는 온갖 종류의 맛있는 음식이 즉 멜론, 수박, 신선한 옥수수, 후라이드 치킨, 햄버거, 케익, 파이 등이 잔뜩 차려 있습니다. 상상할 수 있습니까?

모두 자리에 앉자, 감독님은 축복사에게 음식 축복을 부탁합니다. 시장기를 느끼는 모든 젊은이들은 마음속으로 기도가 짧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고물차가 덜컥거리며 야외회 장소로 들어와 우리를 바로 옆에 차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황합니다. 그들은 “예약” 표시도 읽지 못한 것일까요?

난감한 표정을 한 남자가 차 무경을 열자, 김이 솟아나왔습니다. 자동차 정비공인 한 형제는 “저 차는 고치지 않으면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어요”라고 말합니다.

여러 명의 아이들이 차에서 쏟아져 나오니 다. 그들은 남루한 옷에, 더럽고 시끄러웠습니다. 근심스런 표정의 어머니는 박스를 우리를 걸에 있는 빈 테이블로 가져 갑니다. 식사 시간입니다. 아이들은 굶주려 있습니다. 그녀는 나머지 몇 가지 음식도 식탁에 올려 놓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그것을 신경질적으로 옮겨 놓으며, 시장한 식구들을 위한 식사를 마련하려 하나 충분하지가 못합니다.

우리는 축복을 하고 식사를 즐기기 위해 그들이 조용히 해주기를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들의 한 어린 딸이 우리 식탁을 엿보고는 코홀리게 어린 동생을 끌고 와서 우리를 사이로 파고 들어옵니다. 그들이 너무 더럽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외면합니다. 그때 그 어린 소녀는 “흠흠, 저것 좀 바, 흠흠, 과연 맛이 어떨까?” 하고 말합니다.

모두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바로 이 순간에 도착했을까? 이처럼 불편한 시간에, 왜 우리는 외부의 침입자로 인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받아야 합니

까? 왜 그들은 다른 곳에 차를 세울 수 없을까요? 그들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곳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감독님은 우리에게 이 피크닉에 대한 책임을 맡겨 놓았으므로 우리가 이 침입자를 다루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이것은 하나의 비유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은 그 침입자에게 음식을 축복할 동안 아이들을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그들을 무시해 버립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 장소를 예약했으니까요.

여러분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굶주린 어린 아이들 앞에서 여러분은 마음껏 먹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그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그것은 대답이 되지 못합니다.

둘째 방법은 그곳에 여러분의 식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은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씩 떨어져 내어 그 아이들을 그들의 식탁으로 불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음식을 들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애써서 마련한 것이니까요. 물론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힘써 일해 얻은"(엘마서 4:6 참조)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와 같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해결책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우리와 함께 식사하자고 권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쪽으로 조금 당기고 나는 저쪽으로 조금 당겨서, 우리 사이에 그 어린 아이를 앉힐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어디든지 자리잡고 앉아 우리와 함께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 후, 우리는 그들의 차를 고쳐 주고 그들의 여행을

위해 무언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 굶주린 아이들을 먹을 수 있게 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것보다 더 순수한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야유회가 방해를 받더라도 우리 정비공이 나서서 그들의 차를 수리하는 것을 도와 주는 것보다 더 만족스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입니까? 분명히 그것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의심을 품고 있다 해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 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회 회원인 우리는 충분한 복음을 갖고 있습니다. 영적인 자양분을 얻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적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끝없는 영적인 힘을 제공해 줍니다. 과부의 기름병과 마친가지로, 그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때로 다시 채워져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17:8-16 참조)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 즉 이웃과 친구, 심지어는 가족 중에서도 영적으로 말하자면, 영안이 결핍되어 있는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의 굶어 죽어 가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우리 자신만을 위해 간직한다면, 그것은 배고픈 사람 앞에서 잔치를 벌이는 격이 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 우리와 함께 참여하도록 초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학업에 지장을 주거나, 여러분의 사회 진출이나 결혼을 지연시킨다 해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심각한 진강상의 문제가 없다면, 모든 말일성도 젊은이들은 선교사 부름에 응해야 합니다.

잘못을 저질렀거나 범법을 행했음지라도 선교 사역을 나가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부름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합당하게 해야 합니다.

초대 사도들은 그 당시 처음에는 복음이

이방인과 만민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베드로는 시현을 보았습니다. 그는 온갖 짐승들로 가득 찬 그릇을 보았으며 그는 잡아 먹으라는 명을 받았습니 다. 그러나 그는 그것들이 속되고 깨끗하지 못하다고 말하여 먹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케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행전 10:9-16) 그 시현과 그 위에 곧 일어난 경험으로 해서 그들은 그들의 임무를 깨닫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모든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선교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귀한 선교사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영적으로 굶주리고 있다면, 왜 그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문을 쾅닫고 돌아서 버립니까?"

호주에서 봉사하고 있던 나의 한 아들은 그 메시지를 거절한 어떤 사람에게 의해 문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아들은 상당히 체구도 크고 힘도 세기 때문에 그러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대로 따라 주었기에 망정이지 그 사람이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에게 처음으로 권유했을 때 그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기다리십시오. 영적으로 굶주린 자라고 해서 모두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도 생소한 음식을 들고자 할 때는 씹 마음이 내키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어머니가 재촉을 한 후에야 그것을 수저에 조금 떠서 맛이 좋은지 알아볼 것입니다.

영양 실조에 걸린 어린이들에게는 조심스럽게 음식을 주어야 하듯이, 영적으로 영양 실조에 걸린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악령과 죄로 인해 너무 쇠약해 있으므로, 처음에는 우리가 제공하는 영양가 높은 음식을 거부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음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거의 영적으로 죽어 가고 있으므로, 우정 증진이라는 국물을 조금씩 떠

먹이거나 활동 및 프로그램으로 조심스럽게 영양을 섭취시켜 주어야 합니다. 경건에 나와 있듯이 그들에게 고기를 주기 전에 우유를 주어야 합니다. (고전 3:2, 교성 19:22 참조)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섭취하는 음식물이 단지 그와 같은 국물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먹여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국민과 혈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이 메시지는 경전에서 무려 80번 이상 나옵니다.

나는 뉴잉글랜드에서 선교 사업을 관리하도록 부름을 받기 전에는 정규 선교사로 봉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려운 나이 또래로 선교사로 나갈 나이였을 때, 젊은이들은 선교사로 부름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는 제2차 세계 대전 중이어서 나는 군에서 4년간 보냈습니다. 그러나 나는 선교 사업을 행하고, 우리는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일본에 선교부가 문을 닫은 지 22년만에 처음으로 일본 사람을 침례하여 교회에 속하게 한 것은 그야말로 나의 큰 특권이었습니다. 엘리트 리차드 형제가 타수가 사도를 침례했고, 나는 그의 아내인 치오를 침례하여, 일본에서의 선교 사업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목적으로 부서진 어느 대학의 수 영장에서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후 곧 나는 오사카에서 요코하마행 기차를 타고 거기서 배를 타고 집으로 왔습니다. 사도 부부는 전송하려 역까지 나왔습니다. 우리는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는 매우 쌀쌀한 밤이었습니다. 그 역에 남아 있는 것이라고는 추위 뿐이었습니다. 굶주린 어린이들이 구석에서 자고 있었는데, 그러한 광경은 그 당시 일본에서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추위를 막기 위한 신문이나 누더기 옷이라도 갖고 있으면 운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 기차 안에서 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도 너무 짧았습니다. 새벽의 찬 공기를 가르고 달리던 기차는 어떤 역에 잠

시 멈추었습니다. 그때 나는 창문을 두드리 는 소리를 듣고 창가리개를 열었습니다. 플랫폼에서 어떤 어린 소년이 서서 짱통으로 창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가 고이나 거지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짱 통은 그들의 고통의 상징이었습니다. 때로 그들은 "나는 배고픔입니다. 먹을 것을 주세요요." 라고 말하기라도 하는 듯이 손가락을 가지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는 6, 7세는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조그마한 체구는 굶주림으로 쪼그라들고 있었습 니다. 그는 낡고 옅은 셔츠같은 겉옷 외에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리는 온통 부스럼 투성이었습니다. 잇몸에 염증이 난 탓인 듯, 그의 한쪽 턱이 부어 있었습 니다. 그는 더러운 헐겂으로 그 부위를 싸매 그것을 머리 위에서 묶어 놓았습니다. 참으 로 보기 딱한 치료 방법이었습니다.

내가 깨어 있는 것을 보자, 그는 짱통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불쌍한 마음에서 "나는 그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내게 일본돈이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 는 내 옷을 급히 뒤져 호주머니에서 몇 장의 일본 돈을 찾아 냈습니다. 나는 창문을 열려 고 했으나, 열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바지를 입고 급히 차 입구로 달려갔 습니다. 그는 기대에 부풀어 밖에서 있었습 니다. 내가 뽀뽀한 문을 열어 젖히고 있는 데, 기차가 정거장에서 떠나기 시작했습니 다. 먼지진 창문을 통해 나는 그가 더러운 짱통을 들고, 부어오른 턱을 누더기 천으로 두른 채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 서 있던 나는 승전군의 장교로서 가족과 미래의 세계가 열려 있는 고향을 향 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옷도 제 대로 못입은 채 얼마의 돈을 움켜 잡은 채 그것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서 있었습 니다.

나는 그를 돕고자 했으나, 어찌할 수가 없 었습니다. 내가 그를 돕고자 했던 것만이 유 일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이 일은 38년 전의 일이지만, 나는 어제 일같이 그를 생생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나는 그 경험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전쟁이 남긴 상처로, 수치심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합당한 것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내 의무를 상 기시켜 줍니다.

젊은 형제 여러분, 나는 주님께서 베드로 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 자자에게 들려주시 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 라!"(요한복음 21 : 15-17 참조)

우리 젊은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무한한 신뢰와 믿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 러분은 회복의 용사들입니다. 이 영적인 전 쟁터에서 여러분은 영적으로 굶주린 자들을 구하고 그 양을 먹여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충만하고 영원한 복음을 갖고 있습 니다. 우리는 그것을 갖고 있지 않은 자들과 나누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임무를 잘 받들고 자신을 준비하여 그 부름을 받아 들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합니다. 아멘. *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사명



에즈라 태프트 벤슨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아내와 함께 선교 사업을 행할 수 있는 연세가 많으신 형제님들도 그렇지만 젊은 여러분들은 과거 어느때보다 현재 더욱 주님의 사업에 종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을 만나게 되서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나는 지금까지의 모든 순서가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더린트 형제님, 나는 형제님과 같은 사람들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농구를 아주 좋아합니다. 매우 잘하지는 못했지만 유타 애지스 팀에서 운동을 했었습니다. 아들을 일곱 명을 둔 아버지인 프랭클린 군에 살고 있는 누구와도 가족 대항 시합을 했습니다. 선수가 구성될 수 있는 팀이 있으면 그는 그들에게 도전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운이 좋게도 우리와 농구 시합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하여튼 형제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저녁 나는 잠시 교회의 위대한 선교 사업에 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선교사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의 복음을 세상의 모든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 국민에게 나의 교회의 장로들을 보내며 바다의 여러 섬에 보내라. 외국으로 보내라. 모든 국민에게 찾아가라. 먼저는 이방인이요, 그다음에 유대인에게로다.”(교성 133 : 8)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 임무는 믿는 자들이 구세주께서 지상에 돌아오실 날이 가까왔음을 알 수 있는 표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표적에 관하여 그는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 24 : 14)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전세계에서 선교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수보다 훨씬 더 많은 선교사들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수많은 젊은이 여러분은 이미 교회를 위해 선교 사업을 행하기로 결심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이 합당하게 준비하신 것을 치하드리며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선교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다가올 여러분의 앞날에 무한한 축복을 받게 될 것임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직 선교사로 나갈 결심을 하지 못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내와 함께 선교 사업을 행할 수 있는 연세가 많으신 형제 여러분에게도 역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과거 어느때보다 현재 더욱 주님의 사업에 종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누가복음 10 : 2)

충실하게 선교 사업을 한 사람들은 더욱 큰 신앙과 헌신과 지도력을 갖추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오직 개인적인 경험과 헌신적인 봉사로서만 다른 사람들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희생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

업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음을 압니다. 그는 물몬경에 나오는 선교사인 암몬과 같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친히 쓰시는 도구가 되어 이 위대한 사업을 이룩한 것이 우리에게 허가된 축복이니라.”(앨마서 26:3)

선교사는 스스로 겸손하게 되고 주님께 의존해야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는 자신 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열렬히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성령에 의해 인도되는 것을 배웁니다.

내가 주님께 의지해야 할 필요성을 깨달게 된 것은 처음으로 선교 사업을 행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나는 1922년에 북부 영국에서 선교사로 봉사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반대가 극심하던 때였습니다. 반대가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선교부장은 모든 가무 집회와 진도 행위를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반대는 목사들 사이에서 시작되어 매우 심해졌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어느 날 사람스런 부인이 찾아왔던 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훌륭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으며 나의 동반자가 물몬이라는 이름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남편이 해군 복장을 하고 들어와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봐요, 당신은 내게 그런 물몬에 관해서는 입밖에도 내지 마시오. 나는 20년 동안 영국 해군으로 있는데 우리가 솔트레이크항으로 항해했을 때 그들은 우리를 삼복시키려 초차하지 않았오.” 이 이야기는 그 당시 그들이 우리에게 관해 알고 있던 것의 전형적인 예였습니다.

나의 동반자와 나는 북서 해안에 위치한 사우스 실크에서 성찬식 말씀을 해달라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초대장에는 많은 비회원이 참석하게 될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친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나쁘게 인해한 거짓말들을 믿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금식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홀 안은 꽤 차 있었읍니다. 나의 동반자는 복음의 제일 원리에 관해 말씀할 계획을 세웠으며, 나는 배도에 관해 말씀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모임에는 주님의 영이 함께 했습니다. 나의 동반자가 먼저 말씀했는데 아주 훌륭한 영적인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그 뒤를 이어 말씀했으며,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한 일이 없을 정도로 거침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자리에 앉았을 때 나는 배도에 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나는 에언자 요셉 스미스에 관해 이야기했고 그의 거룩한 사명과 물몬경의 진실성에 대해 간증했습니다. 나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임이 끝나자,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왔는데, 그 중 여러 명은 비회원이었으며 우리에게 “오늘 밤에 우리들은 물몬 교회가 참되다는 증거를 받았읍니다. 우리도 이제 침례받을 준비를 하겠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구도자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만을 말할 수 있기를 기도했으므로, 이것은 바로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교사는 다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함으로써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내 손자 중 3명이 최근에 선교 사업을 마치고 귀환했으며, 2명은 지금도 선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온 마음을 다해 선교 사업을 지지합니다. 선교사로서의 경험을 갖는 것은 모든 젊은이에게 훌륭한 일입니다.

경전에 기록된 것 중에서 가장 영적인 선교사의 이야기는 모사이아의 네 아들이 그들의 레이먼인 형제들에게 행한 14년간의 선교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은 수천 명을 교회로 인도했으며, 그 중의 한 사람인 암몬은 이렇게 외쳤읍니다. “나의 기쁨이 차고 넘치나니.”(앨마서 26:11)

형제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복음의 빛으로 인도하는 것에 필적할 만한 기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약속하

졌기 때문입니다.

“만일 너희가 온 생애 동안 이 백성에게 회개를 외쳐 단 한 사람이라도 내게로 이끌어 오면 저와 더불어 하나님의 왕국에서 맛볼 너희 기쁨은 얼마나 크겠느냐,

만일 너희가 나의 아버지의 왕국의 내게로 데려온 단 한 사람으로 인한 기쁨이 것처럼 클진대 많은 사람을 내게로 데려오게 될 때면 너희 기쁨은 얼마나 더 크겠느냐!”(교성 18:15-16)

선교사는 자신에게 부여된 신권은 하나님의 권세임을 알고 있습니다. 신권을 행사하는 기회는 침례 의식과 확인 및 병자 축복을 통해 주어집니다. 예외없이 우리 선교사들은 거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그치지 아니하셨음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물론서 9:15 참조)

선교사는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고 또 응답하시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 성령의 축사임을 인식하고 영의 인도하심을 받을 줄 알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복지, 즉 겸손하게 되어 성신의 영향력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 뿐만 아니라 그가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고 봉사하는 경험을 통해, 그는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그의 이웃을 더욱 더 사랑할 줄 알게 됩니다. 흔히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젊은 사람은 모두 선교사로 나가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주께서 해주셨습니다. 그 답은 예입니다. 모든 젊은이는 선교사로 나가야 합니다. 모든 젊은이들은 선교사로 봉사해야 합니다만, 모든 젊은이들이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선교사로 봉사할 기회를 받지 못하는 젊은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젊은이는 주님을 섬기기에 합당하게 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각 사람은 [각 사람이라는 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의를 손에 들고 충실로 허리

를 동여매고 땅의 주민에게 경고의 음성을 높일지이다. 또 말하거나 도망함으로써 악인에게 황폐가 임할 것을 선포할 지이다.”(교성 63:37)

어떤 젊은이는 방법으로 말미암아, 선교사로 봉사하는 데 관심이 없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 실제의 이유는 합당하지 못하다는 느낌에 있습니다. 그러한 젊은이들이라는 감독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문제를 털어놓고, 진실로 회개한다면, 그들은 영화로운 선교 사업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진실로 여러분에게 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지금 주님께 봉사하기 위해 준비하십시오. 신체적, 도덕적, 영적 그리고 정서적인 면에서 스스로를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의 감독님을 찾아가십시오. 그에게 여러분의 소망을 말씀드리십시오. 문제가 있으면 솔직하게 털어놓고 그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그런 다음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생애의 이 중요한 결정에 대하여 기도하십시오.

교회의 위대한 선교사 중의 한 분이셨던 리그랜드 리차즈 장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교회에서 경험한 가장 위대한 일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았읍니다. 그러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첫 번째 선교 사업이었다고 말합니다. 바로 거기서 나는 진심으로 주님과 그의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의 왕국을 세우는 데 도울 결심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녁 이곳에 모인 젊은이 여러분 모두가 저축 통장을 마련하고 선교 사업을 하러 나갈 때를 기다리고 계실 것으로 나는 희망합니다.

최근에 나는 텍사스주의 달라스에서 약 200명 가량의 선교사들에게 말씀할 수 있는 영광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는 자매 선교사들도 몇몇 있었읍니다. 나는 그들에게 말하면서, 그들은 이 사악한 세상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훌륭한 모범이 되면서도,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았음을 느꼈읍니다.

나는 우리 젊은이들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들을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여기며 주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영화롭게 하고 제십을 압니다. 우리가 선교 본부에 갈 때마다 그들을 만나게 되는 것은 참으로 큰 기쁨입니다. 그들은 특별한 젊은이들이니다.

이제 나는 연세가 드신 여러분에게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훌륭한 부부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나의 부친은 선교사로 부름받아서 어머니와 일곱 명의 어린 자녀를 집에 남겨 두고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부친이 선교 지역에 도착한 지 4개월 후에 여덟번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 선교 사업의 영이 집안에서 한 번도 떠나지 않았던 짐을 나는 지금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할아버지되시는 분들은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선교 지역에서 보낸 편지로 손자들에게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집안 일을 끝마치고 식탁에 둘러앉아 어머니가 아버지에게서 온 편지를 읽어 주시던 일을 나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버지가 봉사하고 계시던 마을을 말씀하실 때면 마치 세계를 반 정도 다니기라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작 아이오와주의 시더 레피즈와 일리노이주의 시카고와 스프링 힐 및 기타 중서부 지역의 마을들이었습니다.

나의 누이 중에 두 명은 미망인인데, 10명의 자녀와 8명의 자녀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들은 자녀를 선교사로 보내고 난 뒤, 감독님에게 이번에는 그들 자신이 선교사로 나가는 문제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전화로 나에게 이런 말을 했던 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무슨 일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선교사로 부름받았어요."

"선교사로 부름받다니?" 하고 나는 말했습니다.

"정말 모르세요?" 하고 그들은 내 말에 응했습니다.

"아니, 난 전혀 못 들었는데." 하고 내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오빠가 예전에 봉사하신 영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선교부장은 그들을 20개월간 전근되지도 않는 동반자로 일하도록 지명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일종의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부친은 11명의 자녀를 키우셨습니다. 우리 11명은 이제 모두 선교 사업을 마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막내 동생이 최근에 샌디에이고에서 남편과 함께 선교 사업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젊은이 여러분과 연로하신 형제 여러분에게 나는 다시 강조드립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사업 즉 선교 사업을 위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형제 여러분에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인 이 교회는 "지상에서 유일하고 참된 살아 있는 교회"임을 간증드립니다. (교성 1:30) 우리는 성약과 침례 의식과 확인을 통해 주님의 교회의



회원이 되는 특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영생을 얻을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갖고 있으며 여러분께서 그 진리와 주님의 복음을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소개하는 특권을 나누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나는 여러분이 특별히 물문경을 관해 잘 알 수 있기를 권합니다. 나는 아들들과의 어떤 일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어느 날 나에게 그들의 침실로 좀 와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곳에 가 보니 침대 위에 여러 권의 책이 놓여 있었읍니다. 한 아들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올 여름에 아버지씨의 칠면조를 모으는 일을 하게 됐어요. 언젠가 아버지께서 칠면조를 농장에서 가장 유순한 짐승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가 일을 하는 도중 여가 시간이 있으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말한 다음 그들은 나에게 몇 권의 책을 추천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는 군인용 문고판 물문경을 집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책이 너희들 셋중머니에 꼭 맞을거다."

그들은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단 한 권만 가지고 가라는거예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들은 그 책을 좋아하게 될 것이며 선교 사업을 좋아하게 될거다."라고 나는 말해 주었으며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주님의 사업입니다. 나는 내가 살아 있음을 알고 있듯이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영을 지니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려는 소망을 갖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위대한 부름에 응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선교 사업에 좀더 매진하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나는 이것을 알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증드립니다. 아멘.

이해 방문자



말씀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총관리 직원 대관장단



대리은 지 동년 부대관장
제 1 보좌



스펠서 언훈유림을 대관장



크손 미 영종의 부대관장
제 2 보좌



에스카 펠도르트 영순



리워드 대를부 원비



포어스 에스 문순



모이르 데이 광거



마틴 데이 세익순



보로스 할 맥용기



필름 데이



데이비드 피 데이브



제임스 이 와우스트



닐 에이 레스웰



쿠릴 영 영순



델린 에이제 욱스

십이사도 평의회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들



고든 비 힝글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나는 총관리 역원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충실하고 협조적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편의를 돌보지 않고 모든 부름에 서슴치 않고 순종합니다. 그들은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입니다.”

지금은 영광스러운 때입니다. 마야호로 이곳에도 봄을 느끼게 하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인 4월입니다. 이제 곧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부활절은 모든 기독교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이 위대한 연차 대회에 참석한 우리들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간증드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절정의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는 판테스타인의 길을 걸으시며 영원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셨으며,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셨으며, 소경을 보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잡혀 가셔서 정죄받으시고, 잘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삼일만에 부활하

서서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며 사망을 이기시고 영생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로 인해 “아담 안에서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게 되었”(고전 15:22)입니다. 그와 그의 아버지, 곧 위대하신 엘로한은 1820년 봄에 소년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서 배가 찬 경륜의 시대를 예고해 주시었으며, 그의 이름을 받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매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사 9:6) 일컬음을 받았읍니다.

나는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구원의 계획에서 예수님과 그분만이 차지할 수 있는 유일한 위치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나는 나에게 부여된 거룩한 사도 직분의 진능과 권세로 이러한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오늘 아침에 거룩한 신권의 이 훌륭한하고도 성스러운 직분인 사도의 직분에 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우리는 두 분의 형제님을 이 거룩한 부름에 지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십이사도 평의회가 공석을 채웠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그들이 예언과 계시의 영에 의해 택함받고 부름받았음을 간증드립니다. 이 문제로 많은 기도를 드리고 오늘날 주님의 예언자이신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과 상의하여 그분으로부터 명백한 대답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분이 이 문제에 관해 대권을 지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가장 중요하고 성스러운 책임을 맡기 위해 누가 선택되어야 할 것인가에 관해 성령의 속삭임을 구하기로 결심한 것은 명백하고 분명한 느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름을 받은 분들은 세상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많은 경험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들은 학자이며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업적을 이룬 분들로 그들의 동료와 도처에서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그분들이 택함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눈에 띄게 봉사를 해왔습니다. 그들은 소년 시절부터 충실하고 활동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스테이크 부장단에서 봉사했으며 지역 대표로 봉사했습니다. 그분들은 교회의 많은 분야에서 봉사하고 있으며 어디서나 훌륭하게 일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그들이 부름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의 신성에 간증을 갖고 있으며, 그의 실재하심을 증거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으로서 이 직분에 주님께서 그들을 원하셨기 때문에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들은 신앙이 강한 분들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사도 직분에 성임되고 십이사도 평의회의 일원으로 성별된 후 주로 성역의 일에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애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특별한 증인이 되는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왜 교회는 그와 같이 유능한 사람들이 전문직에서 것처럼 훌륭하게 일을 행하고 있을 때 그들을 부름니까? 나도 그 이유는 모릅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그의 증인으로 봉사해야 할 사람들은 바로 그들임을 명백히 밝히셨습니다. 훌륭하게 교육을 받고 그만한 자격이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이 해 온 일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 두 분은 주님께서 보드라운 지혜로써 그들을 지목하신 특별하고 유일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그들도 인간입니다. 그들에게도 장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그들의 남은 생애 동안 충실한 한, 그들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교회에 속해 있거나 속해 있지 않거나, 그들의 복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은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약한 자에게 힘을,

좌절한 자에게 격려를, 친구가 없는 자에게 친구가 되어 주며, 빈곤한 자를 먹여 주며, 병든 자를 축복해 주며, 신념에서가 아니라 확실한 지식으로 그들의 친구이며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기 위해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이사도를 택하여 성역을 베푸시는 그를 돕게 하시고, 그가 죽은 후에도 그들로 하여금 계속 성역을 베풀어 나가게 하셨으며, 사도였던 바울이 “사도들과 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엡 2:20)고 선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독교 교회에서는 사도의 직분을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은 내게는 항상 놀라운 일로 생각됩니다.

이번 대회에서 여러 사람이 부름받은 철심인 직분도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직분도 사도와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도란 말은 회랍어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과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만일 그 말이 “특정한 권능과 책임을 지고 과전된 사람”이라고 정의된다면, 주님께서 지상에 살아 계셨을 때 주어졌던 부름과 우리 시대에 주어질 부름을 올바르게 설명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누가는 주님께 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은 때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 둘을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누가복음 6:12-13)

주님께서 그 문제에 관해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후 그와 함께 걸을 자들을 택하신 것을 나는 뜻있게 생각합니다.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열 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 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께서 이 열 둘을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왔

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 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마 10 : 1, 5, 7, 8, 20)

이와 똑같은 사도 직분이 이 경륜의 시대에 교회가 재조직되었을 때 지상에 회복되었습니다. 1830년 4월에 받은 교회 조직에 관한 계시에서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성임되고 본 교회의 첫 장로”로 일컬어졌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요셉의 손으로 본 교회의 둘째 장로로 성임된 올리버 카우드리에게도 주는 것이니”(교성 20 : 2-3)

브리감 영은 이 경륜의 시대에 십이사도 제일 정원회의 조직과 연관된 흥미있는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834년에 오하이오에 있는 일단의 지도적인 형제들이 미시시피로 여행을 해서 그곳에 있는 동료들을 돕고 다시 오하이오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도보로 왕래한 멀고도 어려운 여행이었습니다. 그것은 심한 시험의 기간이었습니다. 브리감 영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미시시피에서 돌아온 후 형제 조셉 영과 나는 모임에서 설교가 끝난 후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모임을 마치자, 요셉 스미스 형제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집에 같이 갑시다.’ 우리는 그곳에 가서 오랫동안 노래부르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그는 처음으로 내가 전에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십이사도와 칠십인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님, 나는 십이사도를 부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얼마 안 있어서 함께 모여 십이사도를 선택하고 시온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 칠십인 정원회를 선택할 것입니다.’……1835년 1월말 또는 2월경에 우리는 날마다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요셉 형제는

그 당시에 십이사도를 부르셨습니다. 그는 우리가 노래하고 있는 동안 계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를 잘 아는 사람들은 그에게 언제 계시의 영이 임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가 임할 때 그의 용모는 특별한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계시의 영으로 가르쳤으며 또한 계시의 영에 의해 평의회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를 잘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즉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그의 얼굴이 특별히 깨끗해지고 투명해졌기 때문입니다.”(설교집 9 : 89)

물론경의 새 목적자인 올리버 카우드리, 데이비드 휘트머, 마틴 해리스에게는 이 경륜의 시대에 최초의 십이사도를 추천할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이 선택된 후, 1835년 2월 27일 커틀랜드에 모여 처음으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올리버 카우드리는 그 모임에서 서기로 봉사했으며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스미스 대관장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교회의 다른 부름이나 직분과는 달리 십이사도의 부름에는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

“요셉 스미스 이세 대관장은 보좌인 패튼, 영, 스미스 그리고 물레론과 함께 토론한 다음,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십이사도는 순회 고등 평의회와 직책에 부름받은 자들로서, 회장단이 조직되지 않은 이방인 성도들을 관리한다. 그들은 주께서 유대인에게 가라고 명하실 때까지 이방인들 사이를 순회하며 복음을 전파할 것이다. 그들은 이같은 성역의 열쇠를 천 자요, 온 나라에 천국의 문을 열 자요,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할 자니, 이것이 사도의 직분이 갖는 권세요 권위요 미덕이다.”(애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74페이지.)

계시로 주어진 대로 그들은 대관장단의 지시하에 일하며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특별한 증인”으로 나아갑니다. (교성 107 : 23)

그들이 이 임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요한 경우 칠십인에게 부탁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분들에게 부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륜의 시대에 주님의 사명이 시작된 이래, 약 84명이 십이사도 평의회 의원으로 봉사했습니다. 벨슨 장로와 옥스 장로는 85번째와 86번째로 선택되어 성임되고 성별됩니다. 그들의 사명은 위대하고 성스러운 것입니다. 20년 동안 그 특별하고 훌륭한 정원회의 의원으로 봉사해 온 사람으로서 나는, 그분들이 형제애, 헌신, 신앙, 근면, 그리고 위대한 봉사로 하나님의 왕국을 발전시키고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나도 한 개인의 입장으로 여러분 앞에서 그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킴볼 대관장님에 의해 교회 대관장단 보좌로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저 이제 거의 3년이 됩니다. 이 중요한 기간 동안 나는 겸손히 이 위대하고 경외로운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나는 외로움과 근심과 깊은 관심에 대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시와 힘과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진지하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십이사도 평의회 형제님들께 의지해 왔으며 그들은 기꺼이 그리고 관대하게 도움과 조언을 주셨습니다.

교회의 대관장단은 단합되어 있으며 대관장단과 십이사도도 완전히 단합되어 있습니다.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의원들과 관리 감독단도 하나로 단합되어 있습니다. 나는 어느 정도 이 교회의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평의회 단합과 각 평의회원들간의 관계가 오늘날보다 더 강했던 적은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총관리 역원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충실하며 협조적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편의를 돌보지 않고 모든 부름에 서슴치 않고 순종합니다. 그들은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입니다. 이제 다시 12명의 사도가 있어 정원회는 채워졌습니다. 리그랜드 리차즈 장로님과 마크 이 피터슨 장로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해 두 분의 훌륭한 뛰어난 장로님들을 잃었지만 두 분의 훌륭한

형제님들이 부름받아 그 자리를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지시하에 부름받고 교회 회원의 믿음으로 지지되었습니다.

주님의 사업은 권위와 권세로 계속 행해지고 있으며 왕국은 굳건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성도들의 생활과 마음속에 간증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왕국의 위대한 힘이 놓여 있습니다. 수많은 나라에서 각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며 생활하고 있는 수백만의 말일성도의 가슴속에서 굳건하고 참되며 개인적인 확신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각 개인은 위대한 신앙인으로 결속된 사회의 일원입니다. 충실한 회원은 누구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며 예수는 그리스도요, 인류의 구속주이며, 구세주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위대하고 분명한 진리를 알고 있는데 이는 성신의 권세가 그들에게 개별적으로 증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업과 그것을 수행해 나가시는 신비스럽고도 확실한 방법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총관리 역원들의 지시와 이곳에서와 세계 각국에 계신 수많은 말일성도들의 도움에 진실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여러분의 기도의 힘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손을 들어 지지해 주시는 그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업을 발전시키며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에 관한 그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는 것을 돕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위대하고 감동적인 신앙심으로 봉사해 주시는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해 주시며, 의롭게 봉사하는 동안 신앙을 강화시켜 주시며, 영원한 진리의 샘을 마시며, 간증이 더욱 더 강하게 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위대한 왕국의 편에서 주님과 정직하게 동행하실 때 물질적인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가슴속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앙으로 가능케 된 기적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교회는 1830년에 조직된 이래로 한 번도 뒷걸음치 본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사업은 구세주의 대업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신 권을 소유하신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 모여 계시든지, 참석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청소년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태버나클 안에 계신 분들은 매우 일찍 오셨으며, 3시간 이상이나 이곳에 앉아 계신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이 약간 피곤하시겠지만, 그다지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회사의 집행 간부는 주주들에게 연례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나도 신권을 소유하신 형제 여러분을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이 위대한 주님의 사업에 함께 참여한 주주라고 생각합니다. 주주되시는 여러분에게 보고드리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에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여서, 자랑하거나 오만하지 않고 겸손히 말씀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간에 교회를 훼손시키고 교회의 신뢰성을 파괴

시키려는 교활한 시도가, 그것도 교회 회원들 사이에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교회가 건실한 상태에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여러분은 오늘 오후에 대관장단 비서인 프란시스 기븐스 형제님에게서 통계 보고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나는 그가 보고한 몇 가지 통계 숫자를 다시 말씀드리고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12월 31일 현재, 교회 회원 수는 5,400,000명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1년 사이에 239,000명이 증가했음을 말해 줍니다. 이와 같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조직에 속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를 비난하는 적대자들은 한 해 동안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숫자는 비교적 소수임을 여러분에게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나는 그러한 요청을 집할 때마다 그 당사자에 대해 슬픈 생각이 듭니다. 나는 온 마음을 다하여 그들이 달리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의 길을 막으려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교회에 남아 있도록 노력하고 격려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회의 회원이 됨으로써 오는 많은 놀라운 축복을 모두 버리겠다고 그것은 그들의 특권입니다. 개중에는 교회를 떠나 다른 새로운 교회를 맛보았지만 얼마 후에 그것은 꾸미에 맞지 않아 교회로 다시 돌아오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1983년도에 선교사에 의한 개종자의 침례 숫자가 다소 줄어든 것을 아쉬워 흥미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사의 임기를 24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임을 충분히 예상했습니다. 이것은 선교 지역에서 젊은이들의 봉사 시간의 25퍼센트가 감소되었음을 말해 줍니다. 개종자의 침례 수의 감소는 그렇게 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젊은이들이 짧은 기간 동안 봉사하지만, 더 열심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일하고 있음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1983년말에 선교 지역에는 26,565명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충실하고 헌신적인 주님의 종의 군대입니까! 그들은 이 위대한 구원의 사업의 발전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재산을 바쳐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누히 말씀드려 왔듯이, 더 많은 일군이 필요합니다. 발은 무르익어 추수를 기다리고 있으며 일군이 아직도 적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을 행하는 남자나 여자는 그가 가르치는 자들의 생활에 큰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보다도 이 비이기적인 봉사를 통해 자기 자신의 생활이 더 복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업에 종사한 자들 가운데 놀라운 방법으로 성장해 온 선교 사업의 기적을 목격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까?

신진 지도자와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자녀가 어려서부터 그를 선교 사업의 방향으로 인도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성찬식 모임은 선교 지역에서 돌아온 자들의 열성적인 간증으로 풍요롭게 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우리 모두는 우리의 동료와 함께 복음을 나누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나는 서로 나누어야 함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나는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강제나 압력으로 인식되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것은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웃과 정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른 모범적인 생활을 함으로써 그들을 교회로 조용히 그리고 우아하게 인도하는 기회가 됨을 인식할 때 더 많은 것을 성취할 것이며, 저항을 덜 받을 것이며,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더욱 감사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의 제정은 건전한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업이 경이적으로 성장해 감에 따라 십일조 기금의 수요는 증대되었습니다. 우리는 현재 896개의 건물에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과업입니다. 거의 900개에 이르는 건물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와 같은 큰 사업에 대해 알지 못합니

다. 그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헌납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건물 건축에 대한 분담금 비율을 바꾸었습니다. 종전에는 70대 30 비율이었으나 현재 96대 4의 비율로 바꾸었습니다. 대부분의 건물 건축 기금은 교회의 십일조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변화가 가능하게 될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시에 의해서 세워진 십일조 지출 평의회는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평의회와 관리 감독단으로 구성되며 그 해의 교회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합니다.

1983년도에 6개의 새로운 신전이 헌납되었습니다. 1984년에 6개의 신전 헌납을 기대하고 있으며, 1985년도에 또 6개의 신전 헌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5개의 신전이 추가로 콜롬비아의 보고타, 캐나다의 토론토, 오레곤주의 포틀랜드, 캘리포니아주의 샌디에이고 및 네바다주의 라스베가스에 건축됨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총관리 역원과 더불어 조지아주의 아틀란타, 사모아의 통가, 타이티, 칠레의 산티아고와 멕시코 시티에 세워진 새로운 신전에서 합당하고 충실한 말인성도를 만나 보는 것은 실로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경험으로 그에 대한 충분한 감사를 느낍니다. 어느 곳에서나 성도들은 가까운 곳이나 먼 곳에서 옷을 잘 차려 입고, 깨끗하고 밝은 표정의 남부 노소가 마음에 위대한 신앙과 이 거룩한 집에 대한 신성성과 그 목적에 관한 살아 있는 확신을 간직한 채 함께 모였습니다.

나는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그들의 뺨을 타고 내리는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훌륭한 형제와 자매들이 흘리는 주님의 집의 축복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전에서만이 성신권의 권능이 이 생을 넘어 영원에 이르는 인봉의 효력을 발생할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들은 이 성스러운 집에서의 의식

을 통해서만이 그들의 조상들이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위해 마련하신 영원한 복음의 모든 축복을 만끽할 수 있도록 감옥의 문이 열려질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와 같이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기적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그분의 왕국의 재정을 조달하기 위해 세우신 하나의 계획에 따른 신앙에 의해 이루어진 기적입니다.

십일조는 참으로 간단하고 정직한 원리입니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바, 이 원리는 교리와 성약 119편에 나와 있습니다. 4월은 31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부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교묘하고 복잡한 세법과 비교해 보십시오. 전자는 주님에게서 나온 간단한 원리로, 전적으로 개인에게 맡겨져 신앙에 의해 내게 되어 있으며, 후자는 인간이 저미들처럼 얽어 매어 법에 의해 강제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수입의 범위 내에서 운영됩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신성한 기금이 교회의 위대한 사명과 조화를 이루어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현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자원을 절약하는 방법이면서 동시에 주님의 대업에 자원 봉사할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퇴직된 형제 자매들이 신진이나 교회의 각 부서에서 자원 봉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약 5,000명이 이와 같이 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흥미있을 것입니다. 이는 약 500명의 정규 직원에 해당되며, 매년 연봉과 수당을 포함하여 천만 달러에 해당되는 비용을 절약하는 셈이 됩니다. 이 훌륭한 고도 헌신적인 분들은 대업을 발전시켜 나가게 하기 위해 마음속에 사랑을 품고 전문적으로 일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간증으로 교회의 재정적인 자원에 관해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주님께서 말라기 예언자를 통하여 고대에 주신 바, 정적

하게 십일조와 헌금을 바치는 자에게는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을 만큼 약속된 축복을 주시리라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 드립니다. 정직하게 십일조를 바치는 모든 사람들은 온 주님께서 그의 약속을 지키심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교회 교육 프로그램은 계속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학 연구원 중등부 프로그램을 통한 학생 훈련 사업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현재 신학 연구원에 등록한 학생 수는 389,258명에 이르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놀라운 가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에게 모두 그 혜택을 받게 되시기를 권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여러분의 복음 지식이 증가되고, 많은 훌륭한 친구들을 사귀어 우정을 맺게 되리라는 것을 확실히 약속드립니다.

나는 때때로 물문경 번역과 첫번 인쇄시에 있었던 신앙에 대하여 생각하곤 합니다. 초판은 1830년 3월에 팔마이이라에서 5,000부가 인쇄되어 나왔습니다. 최근에 물문경은 매년 100만부 이상이 인쇄되어 나옵니다. 물문경은 전부 또는 일부가 67개 국어로 인쇄되었습니다.

나는 거룩한 책에서 이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 내가 천사되어, 내 마음의 원대로 앞에 나아가 주의 나팔로 땅이 흔들릴 음성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칠 수 있다면.”(엘마서 29:1)

우리는 그 경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만, 그러한 방향을 향해 큰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세계 각국에 있는 수만 명의 형제들이 오늘날 교회가 설치한 놀라운 인공 위성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알래스카에서 남쪽 하와이에 이르기까지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훌륭한 시설의 확장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가 조직된 지 115년이 지난 1945년에 150번째로 조직된 스테이크를 감리하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40년이 채 되지 않은 현재 스테이크 수는 1,458개에 달하며, 시온의 스테이크의 수는 거의 10배에 달하게 된 것입니다. 1983년에 378개의 새로운 와드와 지부가 조직되었으며, 연말 총계는 약 14,000에 달했습니다. 말일성도들이 에베드리고 가르침받을 새로운 많은 건물을 건축해야 한다는 사실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이상 내가 언급한 것은 본질적으로 통계상의 사항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개의 경우 그것은 본질적인 것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더 중요한 요소가 있으니, 그것은 성도들 생활의 영적인 면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주님과 맺은 성약을 새롭게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롭게 받들기 위해 성찬식에 참석하는 수가 증가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 가정의 밤을 갖고 안식일을 가족과 함께 보내며 주님의 길을 배우고 있는 가족의 수가 증가되고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가족 기도를 정규적으로 실시하는 사람들의 수도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충분히 믿을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규적으로 경전을 읽고 그 성스러운 기록에서 신앙을 키우고 간증을 강화시키는 영을 얻고 있다고 믿습니다.

최근 수개월 동안 나는 63명의 형제들과 접견하고 그들에게 선교부장의 부름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신앙을 인식하지 않고서는 그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부름을 받은 남편과 아내와 어린이들은 주님의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 기꺼이 그들의 집과 친구와 직장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곁을 떠나야 합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의 사업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시게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

다. 개인으로서 우리는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우리의 일을 대신하게 하셔서 이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업이 실패하리라는 이야기에 익숙해 있습니다. 물론경이 출판되어 나오자, 잔혹한 비평가들은 그 책이 곧 세인의 소리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커틀랜드에서 문제가 점점 더 가중되자, 그 사업은 얼마 안 가 멸망되리라고 말했습니다. 성도들이 미주리에서 쫓겨났을 때, 그들을 쫓은 자들은 교회가 멸절되리라고 말했습니다. 예언자와 하이람이 카메이지에서 살해되었을 때, 그들을 살해한 자들은 이 일은 다 끝장이 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846년 2월에 포장 마차들이 아이오와의 겨울 강을 건너갔을 때, 그들을 살아 남지 못하리라고 교회의 적대자들은 말했습니다. 성도들이 이 적막한 계곡에 들어섰을 때, 메뚜기들이 곡물을 다 먹어 치우자, 그들 중에서도 이젠 다 끝이 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

다. 그러나 이 사업은 계속 추진되었습니다. 교회는 1830년에 조직된 이래로 한 번도 뒷걸음쳐 본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사업은 구세주의 대업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것은 말일에 세워진 주님의 사업입니다. 이것은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드린 작은 돌이며, 온 지상을 완전히 채울 때까지 꾸르게 될 작은 돌입니다. (단 2:44-45 참조) 하나님은 교회가 크게 발전해 나가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참되고 충실하며 발전해 나가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맡은 일을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나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이 사업의 참됨과 거룩함을 간증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거룩한 사도 직분에의 부름



러셀 엠 넬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나는 인간의 법이 아닌, 우리들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영원한 법칙이며 엄격한 율법에 의해 인격이 형성되어 왔습니다. 지금 외파 의사는 하나님의 율법은 논쟁의 여지가 없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1984년도 4월 연차 대회의 토요 모임은 우리가 지난 수년 동안 손꼽아 기다리던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날은 우리의 외아들이 나와 함께 대회 신권회에 참석할 만큼 성장했던 최초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젯밤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 왔던 꿈이 실현되었던 날이기도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어제 저녁에 내가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으로서 지지되리라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 역시 알 수 없었습니다. 결혼한 나의 딸들은 대회 중에 우리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때 임신 중이었던 한 딸은 “아버지 나는 그 소식을 듣고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골저는 아기를 낳을 것 같아요.”

그 후 그 딸은 아기를 낳았습니다.

링클리 부대관장님, 장로님의 발표는 또 한 지난 저녁 22번째 손자의 순산에 큰 도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 인생에 큰 변화를 줄 그 사도 직분에 부름받은 후, 내 마음은 수많은 감회에 잠겨온 합니다. 첫번째로 내가 느낀 감정은 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리그랜드 리처드 장로님과 마크 이 피터슨 장로님의 영향력을 생각할 때 나는 비교도 될 수 없다는 생각이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저에게는 특히 그분들이 존경하는 지도자이셨으며, 다정한 친구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보다 더 유능하고 더 자격을 갖춘 이분들의 영향력을 볼 때, 나는 진심으로 이 부름에 겸손한 마음이 듭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감정은 신앙의 힘으로 깨울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니파이의 말씀이 진실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든 명하시는 대로 이를 수 있는 방편을 미리 마련치 아니하시고는 명하지 않으심을 제가 아오니, 주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행하겠나이다.”

(니일 3:7) 나는 주님과 그분의 예언자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부름이 영감받은 신권 계통을 통해 주어질 경우 의문 부호를 찍는 것이 아니라 감당 부호를 찍어야 한다고 배워 왔습니다.

약20년 전에,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이었던 부분은 보니빌 스테이크의 새 스테이크 부장을 선택하도록 지명되었습니다. 그 두분은 스펜서 더블류 킴볼 장로님과 리그랜드 리처드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때 그분들은 나에게 스테이크 부장으로 부름을 주셨습니다. 지금 나는 리그랜드 리처드 장로님이 돌아가시므로써 생긴 공석에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에 의하여 사도로서 부름받게 되었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이 새로운 부름에 충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 단트 슬과 나는 38년 전에 처음으로 주님의 신전에서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생애를 바치겠다

는 성약을 했습니다. 오늘 나는 지상에 주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는 그 약속을 다시 다짐합니다. 이 부름을 받으므로써 목표, 의무, 열쇠가 주어지며, 또 사탄의 방해가 임할 것을 알고 있으므로 나의 힘과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 나의 책임을 이행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유럽의 인구가 조밀한 나라에서 이 교회로 개종하셨던 개척 시대의 8명의 증조부와 나의 부모님의 선하심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결국 유타주 에브라임의 작은 마을로 이주해 오셨던 8명의 증조부께서 지금 하늘에서 해의 왕국의 창문을 통하여 오늘의 이 사건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아내 단트슬에게 받은 영원한 사랑과 은혜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녀는 우리 가정에 끊임없는 사랑을 부어 주는 사랑의 샘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 세상에 태어난 10명의 훌륭한 자녀를 기르고 교육시키고 돌보는 반면에 내 직업이나 교회에서의 내 임무를 수행하는 데 어떤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나를 항상 지지해 주던 나의 아내로서, 그녀의 희생은 매우 큰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여덟 명의 사위를 사랑하며, 그들을 영원히 우리와 연결시켜 주는 신전 결혼이라는 끊어지지 않는 줄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 이곳에 있는 귀중한 손자 손녀들과 이곳으로 오는 중인 다른 손자 손녀들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나는 이름뿐인 외과 의사로 봉사하다가, 보다 진실되게 말씀드리면 의학의 어머니가 되는 외과의로 근무하다가 여러분에게 왔지만, 나는 인간의 법이 아니라, 우리들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영원한 법칙이며 엄격한 율법에 의해 인격이 형성되어 왔습니다. 지금 외과 의사는 하나님의 율법은 논쟁의 여지가 없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는 소망이나 희망이 다만 현실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소망하는 축복은 오직 신성한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오는 것이며, 어떤 다른 방법으로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애는 오랫동안

동안 이러한 율법을 배우는 데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우리가 그 율법을 알고 그대로 복종하기만 하면, 우리가 바라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이런 정도까지는 지난 과거의 행동과 미래의 행동에 있어서 어떤 차이도 나에게서는 거의 없을 겁니다. 주님의 그 끝없는 법칙은 그분의 사도에 의해서 가르쳐졌을 것입니다.

나는 나를 대신해서 환자들을 돌보도록 도와 주었던 의료 진료인들과 현재도 계속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모든 나의 동료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행하는 사심없는 봉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위대한 두 가지 계명을 만족시켜 줍니다. 그들은 가장 훌륭하게 봉사하는 자가 가장 사랑받는다고 배워 왔습니다.

나는 이사야와 에스겔에서 요셉 스미스와 스벤서 더블류 킴베에 이르기까지의 주님의 종을 지지합니다. 나에 대한 그분의 신뢰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분들과 그분들이 봉사해 온 온 인류에게 나의 사랑을 전합니다.

지금 나는 거룩한 사도직에 부름받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세상인들에게 전할 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는 구원이 주님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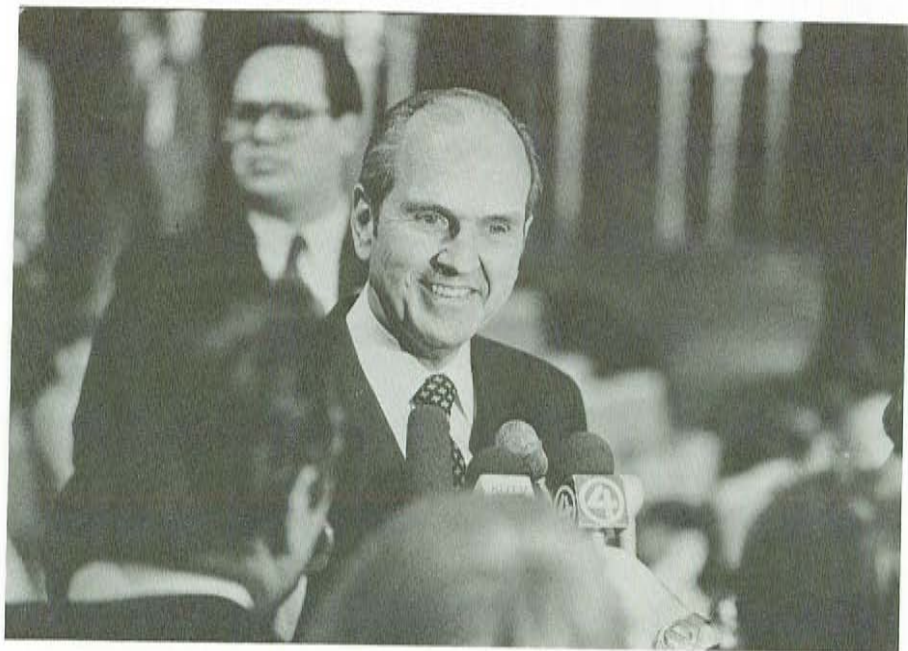
에서 이루어짐을 압니다. 천사는 베나민왕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전능하신 주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로 인한 구원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믿지 아니할진대” (모사이야서 3:11)

예언자 요셉스미스가 “여러분의 종교의 기본 원리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종교의 기본 원리는 사도나 예언자에 대한 간증이며 예수님께 관해서는 그분은 돌아가셨으며, 삼 일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 후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사실이며 그 밖의 다른 것들은 단지 그 간증의 부속물일 따름입니다.”(교회 정사 3:30)

지상의 모든 피조물과 그 속에 거하는 모든 것과, 인간의 필요한 타락과 주님의 속죄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따른 3가지 기본적인 요소가 됩니다. 만약 주님의 속죄의 희생이 없다면, 불멸도 없으며 영생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지닌 교회에 의하여 이것이 관려되어집니다. 주님은 신권의 권능과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그분의 복음 원리를 외치는 예언자를 통하여 계시를 줌으로써 주님의 교회의 일을 지시합니다.

내가 지닌 간증은 단지 1820년 봄 이후로 십이사도의 부름을 받아 오셨던 지난 과거의 84명의 사도들의 간증의 베아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이 영원한 진리의 이 위대한 말일의 마지막 경문의 시대를 인도하시려고 나타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가문이며, 특히 요셉의 지파에 속하며 장자 상속권을 지니고 있으며 구세주의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킬 변경할 수 없는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신을 간증드립니다.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의 백성은 우리와 힘을 합하여 예수는 그리스도이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게 될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엄숙히 간증드립니다. 아멘. *



“나는 교회의 자매들을 사랑합니다.”



바바라 더블류 윈더 자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나는 우리가 신권으로써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고 봉사하는 일에 화합하게 되기를 갈망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나는 이곳 태비넬에서 갖는 연차 대회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어느 때나 참으로 영화로운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건강으로 인해 우리와 항상 함께하실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된 예언자를 모시고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특권은 나에게 특별한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위대한 지도자들의 말씀으로 깊은 감명을 받고 있으며, 나는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핑클리 부대 관장님께서 간증해 주신 그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점에 있어 그것은 내가 남편인 리차드 윈더 선교부장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이곳으로 여행해 온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나의 남편은 넓은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선교부의 선교부장으로 봉사해 왔으며 이번 주말에 개최되는 이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조용히 떠나 왔어야 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주신 시현과 영감에 대한 간증을 갖고 있음

니다.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께서 그 사업을 이끌어 나가시기 위해 돕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바로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샌디에이고에서 사랑하는 장로님과 자매 선교사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가르친 서츠의 다림질, 세탁, 단추 달기, 경전 지참 등을 상기시켜 주었던 그 윈더 자매입니다. 나는 지금도 작고 하얀 선교사 지침서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나는 2년 전에는 어제 여러분께서 말씀을 들은 그 훌륭한 자매들과 평의회에 함께 하여 그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배우며, 그들의 임원과 보좌들과 함께 지낸 바로 그 윈더 자매로서 그 중 많은 분들은 나의 친구요, 교사들입니다. 나는 함께 봉사하고 배운 여러 훌륭한 많은 형제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여성들은 신권 지도자들의 지시에 따르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날의 이 어려운 시대의 여성들은 자살한 아내와 어머니로, 주님의 왕국의 충실한 회원으로,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회원들에게 헌신할 수 있는 여성으로 이끌라는 지침에 순종했던 사람들로부터 가르침받아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 말일성도 여성들에게 주어질 힘입니다.

나는 또한 오늘 자신들의 올바른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합당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던 나의 부모님과 시부모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비행기가 착륙한 곳은 아주 딱딱한 활주로였지만 그곳에 우리의 여자녀와 그들의 동반자 그리고 귀여운 손자 손녀들이 마중나와 있어서 이곳이 나의 고향임을 알려 주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지지를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또한 솔트레이크 신전에서 결혼하여 해롤드 비리 대관장님에게 인봉받은 후 30여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 온 남편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근년에 들어 교회의 여러 가지 부름과 직책을 맡아 수행하

면서 서로 의지하고 같은 목적아래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봉사해 왔습니다. 나는 교회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조화를 이루며 봉사하고 모든 지체는 전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일해야 한다는 바울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결혼 생활과 가정 생활에서도 우리는 함께 일해야 합니다. 나는 어제 우리는 아주 훌륭한 가르침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교회의 자매들을 사랑합니다. 또한 나는 교리와 성약 84편의 신권에 관한 구절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구절에서 몸은 각 지체를 필요로 하며 서로 돕게 될 때 완전한 조직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주님의 교회 회원들은 자기 자신에게 대

하듯 다른 사람에게도 관심을 갖는 것이 요구됩니다.

내가 교회 자매들에게 바라는 것은 바로 이 사람과 각 개인의 합당성입니다. 나는 우리가 신권으로써 하나가 되어 오늘날 이곳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고 그곳에서 봉사하며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쁨을 전파할 수 있기를 갈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할 커다란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과 그가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모든 나의 간증과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합창단이 합창을 부르는 모습

복음 진리의 단순성



로버트 엘 심슨 장로
침실인 제일 정원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바 진리란 단순하면
서도 매우 아름답습니다.”

어제 아침 더럽 장로는 자동차 완충기에 붙어 있는 표어를 인용하여 자신의 말씀 주제를 소개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어떤 벽에는 다음과 같은 낙서가 적혀 있었습니다. “스카디, 이제 나를 우주선으로 데려가 주게. 이 지상에서는 지적 생활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어.”(이것은 미국의 인기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인 “스타 트랙”에서 나온 것으로 커크 선장이 스카디에게 말하고 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이 지상에는 지적 생활의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고맙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예지니 바꾸어 말하면 빛과 진리니라”(교설 93:36)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의 단순한 빛과 진리를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자들은 참으로 생활을 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아침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 곧 단순한 빛과 진리는 후에 주님의 사도가 된 매튜 카울리 선교부장 밑에서 선교사로 봉사할 때 나에게 큰 감명을 주었

던 것입니다. 선교부장님께서서는 종종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순하면서도 아름답습니다.”

그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재차 느끼게 된 것은 금년 초 가족 몇몇과 친구 몇 사람과 함께 예수께서 걸으셨던 곳을 걸어 볼 수 있는 특권을 가졌을 때였습니다. 우리는 옛 예루살렘성을 보고 놀랐습니다. 베들레헴 근처에는 지금도 목자들이 양 떼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람산의 바로 그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북쪽으로 더 올라갔을 때, 우리는 평화로운 갈릴리해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길을 따라 걸으면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경전 구절을 다시 읽고 생각에 잠길 때마다 2,000년 전에 이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알차고 새로운 의미로 다시 떠올랐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야곱의 우물가에서 “생수”라는 말이 생생하고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요 4:10)

셋새마비 동산에 서서 다음과 같은 불멸의 말씀을 다시 생각할 때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우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눅 22:42)

또한 갈보리에서 다음과 같은 단순하면서도 의미 심장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 23:34)

우리가 아름다운 갈릴리 호수가에 서서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셨던 단순하면서도 뜻깊은 말씀이 놀랐습니다.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눅 4:19)

바로 그런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었읍니다. 예수께서는 순수하고 명백한 진리를 겸허하고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운 말로 가르쳤읍니다.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구세주의 훌륭한 가르침을 되새기는 것은 가장 위안이 되는 일이었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은 얼마나 단순하고 순수합니까? 실로 바

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한 것처럼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고전 14 : 33)이십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야고보서 3 : 17)

참으로 카울리 장로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순하면서도 아름답다”는 말씀은 옳은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단순해서 초등학교 어린이라도 8세가 되면 복음의 기본 원리를 잘 이해하게 되어 칭례를 받을 특권을 갖게 됩니다.

어린이들의 신앙은 구세주의 가장 의미 심장한 가르침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에서 제자가 그에게 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라고 여쭙었을 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부르시고(나는 예수께서 그 가르침의 순간에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 그분의 무릎에 어린 아이를 사랑스럽게 올려 놓았음을 보는 듯합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물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마 18 : 1-4)

분명히 구세주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실 때 어린 아이의 맹신과 성실성을 염두에 두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이들이 기도할 때 귀 기울여야 합니다. 나는 어제 몬슨 장로님이 하신 이야기를 잘 기억합니다. 나의 딸 크리스틴이 아주 어렸을 때 가족 기도 모임에서 기도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가족이 진감하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어떤 말은 그에게 지는 어렵습니다. 그에게는 “헬시”(진감한)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대신 “헬시”(부감한)라는 말을 사용해서 “우리들이 부감하게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늘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싫게 들리

지는 아니했으므로 그대로 두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에 참 뜻을 아셨으며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가난합니다.

현명하고 고귀한 예언자이시며 교사인 베나민왕은 그의 백성에게 육으로 된 자기를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성도가 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 후 그는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 유순하고 온유 겸손하여 인내하며 사랑이 충만하여,…… 모든 일에 순종하기를 어린 아이가 부모에게 하듯”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모 3 : 19)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디에서든지 모든 진리를 함축하고 있다고 배웠습니다. 이것은 또한 과학에서 발견된 진리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화학과 물리 분야의 기본 되는 진리의 단순성은 나의 흥미를 자아내게 했습니다. 예를들면 H₂O라는 물의 분자식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인슈타인은 역시 간단한 등식인 E=mc²으로 심오한 상대성 이론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기본적인 진리를 더 자세히 보면 볼수록 그것은 더 쉽게 설명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종교 진리에서의 이것의 가장 좋은 예는 종종 인용되어 온 값진 진주의 모세서에 나오는 성구로서 그 속에는 모든 영원한 것들의 전체적인 목적을 한 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보라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 이것이 바로 나의 사업이요 영광이니라. (모세서 1 : 39)

단지 20개 미만의 말로써 영원한 진보와 구원의 계획을 요약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것이 참되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그 말은 근본적이며 그 뜻은 완전하며 그것은 불필요하지도 않으며 그것은 모든 사람이 성공을 이룩할 수 있는 목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은 승영의 후보자이며 우리의 성공으로 하나님이 영화로와 집니다. 대부분의 영원한 진리는 너무 단순해서 그것을 잘못 이해하며 자란 야곱의 시대의 몇몇 자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들은 “간결한 말씀을 경멸하고 예언자를 죽이며, 저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구”(야 4:14)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단순한 복음 원리를 몇 구절 더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 잠시 동안 이런 단순한 복음 진리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십일조와 헌금이 하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말라기 3:10)

지혜의 말씀을 지키면 건강과 지혜와 복지가 보장됩니다. (교성 89편)

신권 지도자들에게 고백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면 누구나 완전한 회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교성 58:43)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야고보서 5:14)

해의 영광은 회개하고 침례받아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교성 18:22)

바울은 단호하고 단순하게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엡 4:5)

이 단순한 진리를 바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성구 중에 하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 8:32)입니다.

모두가 자유롭게 되고 죄에서 벗어나고 이 기쁨과 나쁜 습관의 사슬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심지어는 정치적 자유까지도 단순한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들 통해 성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말할 것도 없이, 단순성과 간결성의 중요성에 관해 앞에서 말씀한 모든 것은 그 결과가 기쁨과 성취로써 연결되지 않을 때는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새로 침례 받은 회원들이 주님의 영을 받고 복음 계획을 따르고 단순한 가르침에 순종함으로써 약속된 축복을 걷우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것은 특히 소위 말하는 개발 도상 지역에서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나는 여러분을 인도의 코임바토어로 모시고 가서 가장 비참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100여 명 남짓 되는 교회 회원을 만나 보게 하겠습니다. 그들은 물질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먹을 것조차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교육도 거의 받지 못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통하여 아주 짧은 기간에 그들의 삶은 훨씬 나아졌습니다. 그들의 일반적인 건강 수준이 향상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그들은 기쁘게 시온의 노래를 부르며 전보다 더 자주 미소를 짓습니다. 그들은 희망을 찾은 것입니다. 이들은 구세주에 관한 단순한 진리를 배우고 있는 불우한 자들입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이해하고 행동에 옮깁니다. 우리가 그들의 하나의 작은 방(깨끗한 흙바닥)에 모였을 때, 그들은 배움을 갈구하듯이 보였습니다. 호기심 있는 이웃들은 모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넘겨다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창문과 문간에서 엿보았습니다. 안에 있는 자들과 밖에서 들여다보는 자들은 좋은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복음의 가르침은 회원들이 풍기는 영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면에서 매우 단순한” 무엇을 발견한 개인의 위생, 복장, 태도, 용모 같은 것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합니다.

우리 자매 선교사들이 타이나 필리핀의 난민 수용소에서 행한 순수한 기독교적인 봉사를 아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자매들은 영어와 서구 문화에 대해 가르쳤지만 이 쫓겨난 백성들에 대한 그들의 순수한 사랑과 친절한 태도를 통해 그들은 보다 깊은 가르침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캘리포니아로 피난온 난민 수용소의 젊은이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교회 집회소에 찾아왔는데 그 이유는 수용소에서 자신에게 가르침을 주었던 훌륭한 자매 선교사의 명칭에서 본 것과 똑같은 명칭을 간판에서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한 친절과 순수한 사람이 모든 차이점을 극복할 수 있음을 쉽게 잊지 않습니다. 바로 그 정신이 이 교회에 주는 빛입니다.

나는 영국의 한 훌륭한 개종자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의 질문에 따라 그는 개종담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에 씨를 뿌리기 위해 정원의 땅을 고르느라고 무릎을 꿇고 있었을 때, 갑자기 등 위에서 누가 다음과 같은 단순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가 혹시 천사가 거기에 서 있나 하고 뒤를 돌아보았을 때, 거기에는 두 천사가 서 있었는데 그들은 두 물문 천사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에 대해 저의 집으로 들어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매우 단순했지만 순수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구세주께서 사용하셨던 방법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타이완에 살고 있는 한 젊은 여인이 택시 운전사가 요금을 더 받기 위해 빙

빙 돌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자 그 중국인 운전사는 그 비난에 크게 마음이 상해 차를 세우고 시동을 끄고는 뒤를 돌아보고 단순히 "저는 물문인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운전사의 성실성에 노여움이 사라진 그 여자는 물문이 무엇이나고 물었습니다. 그 여자는 3주 후에 침례를 받고 교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직한 마음이 작용될 때 단순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도 요한의 성역을 예언한 니파이는 그의 가르침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 순수하며 심히 진귀하며 모든 사람이 쉽게 깨달을 수 있었느니라." (니일 14:23)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바 진리 '단순하면서도 매우 아름다웠습니다.'가 우리 각자를 위한 나의 진정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김복 대령장의 부인인 카밀라 김복 자매

진리의 실천



제이 리처드 클라크 감독
관리 감독단 제2보좌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의 하나는 성실과 준키는 대가없는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대개 최선을 요구하며 거의 언제나 불편함과 종종 당혹함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빌라도와 나사렛 예수 사이의 유명한 대화를 읽을 수 있습니다. 구세주는 이 로마인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이를 위하여 왔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 하려 함이로다……” (요 18 : 37)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 (요 18 : 38) 라는 여러 시대를 통해 해결하지 못했던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읍니다. 아마 그는 그것을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진리”란 수세기 동안 로마와 회람 철학자들이 가장 좋아했던 토론의 주제였으며 아직도 철학자들이 그것에 대한 대답을 추구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읍니다.

오늘 나는 진리에 대해 추상적으로 말씀드

리지 않고 진리의 실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원리와 그 적용을 뜻합니다.

윌리엄 조지 조단(미국의 작가 1864-1928)이 가르친 대로,

“진리란 정의에 대한 충성이며 이것은 우리의 이상에 입각한 우리의 과감한 삶이며 이것은 언제나……바로 능력인 것이다.

“진리를 완벽하게 정의하기란 어렵다. 마치 전기와 같이 이것은 나타났을 때만이 설명이 가능하다. 이것은 영혼의 나침반이며 양심의 수호자이며 정의의 시금석이다. 진리란 이상의 발현이며 그 이상을 실현할 수 있게 해주는 영감이며 그것에 따라 생활할 수 있게 해주는 추진력이다.” (진리의 힘, 솔트레이크시티 : 메저렛 출판사, 1935, 3 페이지)

말일성도로서 우리는 진리의 원리대로 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믿으며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요 8 : 32) 한다는 사실도 압니다. 참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주창하는 원리와 우리가 실천하는 진리 사이에는 조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암몬의 백성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가진 열의로도 구별되었으니, 이는 저들이 온전히 정직하고 매사에 올바르게 때문이며, 끝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굳건했기 때문이었”(앨 27 : 27)읍니다.

우리들의 영혼은 길으로는 칭찬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선함이 없는 “최악한 무덤”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마 23 : 27 참조) 우리는 단지 같아 보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과 자녀에게 기대하시는 그대로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절의에 대한 진정한 시험인 진리의 실천은 여러 가지 형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실, 고결, 지고의 정직 등으로 불리웁니다. 나는 특별히 지고의 정직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선을 뜻하는 라틴어의 프로버스와 증명하라는 뜻을 가진 프로베에서 나왔으며 이것은 시험되고 확인된 정직을 의미합니다. 훈련에 의해 정직성이 몸에 배인 자들은 마치 도덕적인 나

침팬이 어떠한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남북을 가리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개인은 자연적인 정직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며 의를 위해 이해 타산에 좌우되지 않고 의에 따라 행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조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를 자신의 슬로건으로 삼는 자는 자신의 언어에 신중하고 뼈거나 보탬이 없이 항상 정확하게 되도록 노력하며 확신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 말하지 않으며 그가 말한 것은 언제나 성실하며 순금임을 증명하는 표지와 같습니다…… 그의 약속은 믿을 만하고 여러분은 이것을 보증 수표처럼 믿을 만한 것으로 인정하며 사람들은 그의 약속을 행동으로 확인하고 성취하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행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테너 대관장이 말씀하신 다음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그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매년 일점액의 돈을 지불하기로 어떤 사람과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으며 지불이 늦어졌습니다. 그 약속을 이행하려면, 저의 집을 잃게 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테너 부대관장은 그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십시오.” “제 집을 잃어도 말입니까?” 라고 그 사람이 묻자 테너 부대관장은 “나는 형제님의 집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님의 약속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형제님의 부인도 형제님이 집을 가지고도 약속과 성약을 지키지 못하기 보다는 차라리 세방살이를 하더라도 당신의 약속을 지키고 약속과 성약을 지키는 남편을 원할 것입니다.”

나는 몇 년 전 연차 대회에서 재미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나는 몇 가지 물건을 사고 수표를 바꾸기 위해 저 씨 엠 아이 백화점에 갔습니다. 다른 주에서 왔기 때문에 나는 출납제로 가야 했습니다. 그녀는 신분증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나는 지갑에서 몇 가지 크레딧 카드를 꺼냈습니다. 뜻밖에도 나의 신진 추천서가 나오자 그 출납 계원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으로 충분하단 말입니까?”라고 묻자 그 여자는 “형제님의 신진 추천서 말입니다. 그것은 아직 유효 기간이 끝나지 않았지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나는 “물론이지요”라고 대답했을 때 그녀는 “그러면 좋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집에 가는 동안 그 일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나는 만약 우리가 물론 신용 카드를 갖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경우, 카드를 소지한 물론은 약속을 지킬 것이며 고용주에게 정직하고 약속대로 계산서를 지불하고 선생은 모두가 이해할 때까지 가르칠 것이며, 정비사는 신용있게 차를 고치며, 기술자, 상인, 사업가들은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가 한 일에 자랑스럽게 서명을 하며 우리 모두가 모든 면에서 가장 훌륭하게 되기 위해 노력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특별한 자들도 알려진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물론은 성실의 표준은 하나님의 성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높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키는 진리의 법에는 복합적인 효과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인격은 잘 만들어진 교양과 같이 서로 지지하는 복잡한 체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난간과 기둥과 접합이 전체를 강하게도 또 약하게도 합니다. 완전히 정직한 자는 그의 덕성을 조화의 형태로 결합시키지만 상황에 따라 정직해지는 자에게는 진정한 화평이 없습니다.

진 미 해병대 사령관 데이비드 쇼우프 장군은 도덕의 가치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의 일관성에 관해 강하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충실하지 못한 해병 대원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크게 우려하는 바는 간음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서 발생되어지는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그 중요한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인간들 앞에서 결혼 선서를 깨뜨린 것을 합리화하는 자들은 그가 장차 미합중국의 해병대 사령관이 되어서도

압력이 가해지거나 자신이 원하면 그가 한 맹세를 깨뜨리고도 그것을 합리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욕정에 사로잡혀 자녀와 아내를 배신한 자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국가도 배신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우리의 이상대로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성실의 표준을 좀더 높이기 위해서 우리의 목표를 높여야 합니다. 우리들은 묵은 습관 중 버려야 할 것과 새로 익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품을 완전하게 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며 아마 이 세상에서는 이루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공이란 우리가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 까지 쏟은 노력과 작은 항상에 의해 측정되어야 합니다. 노만 휴신스 성실은 “신앙심이 깊은 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참된 삶을 추구하는 모든 인간과……장수를 구하지 않고 훌륭한 영을 구하는 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라고 했습니다.

진리에 대한 사랑과 진리의 실천은 가정에서 가장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부모에게 자녀들을 “주 앞에서 올바르게 생활할 것을 가르칠”(교성 68:28) 책임을 주셨습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너희 자녀를 빛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라 명하였느니라.”(교성 93:40)

자녀들은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실천하는 부모를 모범으로써 그들은 고귀한 성품을 모방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들에게는 단지 설교가 아니라 덕성의 모범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의 하나는 성실과 존귀는 대개 없는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대개 희생과 생애를 요구하며 거의 언제나 불편함과 종종 당혹함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제프리 홀랜드 총장과 그분의 사랑스러운 따님 메리의 허가를 얻어 수년 전의 그들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오늘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론상의 진리가 아니라 실천의 진리의 좋은 예가 됩니다.

홀랜드 형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밤늦게 직장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 아홉 살짜리 나의 딸 메리가 대단히 기분이 나빠 있는 것을 알아 보았습니다. 나는 그 아이에게 기분이 왜 나쁜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그애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애가 잠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그애는 조용히 거실로 들어와 ‘아빠 할 얘기가 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애의 손을 잡고 침실로 갔습니다. 그애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백화점에 가서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은 여자 콤팩트를 봤어요. 나는 그것이 꽤 비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잠깐 보려고 집었어요.’ 그애는 말을 잊지 못하고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울음을 참으며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것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재빨리 집어들었지만 거울이 깨져 있었어요.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것을 값을 만큼 돈도 없었고요, 저 혼자뿐이었어요……저는 그 콤팩트를 선반 위에 올려 놓고 가게를 나와 버렸어요. 아빠, 저는 정직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녀는 계속 울었습니다.

“나는 죄의 고통으로 떨고 있는 아홉 살짜리 작은 꼬마를 나의 품안에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러한 생각을 지워 버릴 수가 없어요.’

“어머니도 그날 밤 우리의 자리를 함께 하셨고 꽤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애의 정직함을 큰 자랑으로 여긴다고 말했으며……만일 그애가 잘 먹고 잘 잘 수 있었다면 실망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애에게……그 콤팩트는 아마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거야, 그러니 우리가 그 가게에 가서 가게 지배인에게 그 문제에 관해 털어놓고 그 값을 치루도록 하자. 만약 콤팩트가 아직 거기에 있다면 어머니를 위해서 그것을 사드리자. 그 깨진 작은 거울을 어머니가 갖고 있는 한 자기의 어린 딸이 얼마나 정직하고 영적으로 애민한가를 상기시켜 줄거야……라고 말했습니다.

“눈물이 차차 멈춰지고 그 어린 몸은 점점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리는 ‘이제 제가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훌륭한 행위자, 미발행된 원고, 브리감 영 교수 모임, 1978)

우리는 자녀들에게 진리의 실천이 가장 좋

은 미덕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자녀들이 이 중요한 원칙을 익힌다면 그의 모든 것들은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진리의 완전한 본보기였던 것처럼, 우리도 진리를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종교에 대해 이야기 할 수도 있으며, 기이한 나타내심과 계시된 은사와 권세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으며 높은 이상과 고귀한 가치관에 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천의 증거는 우리의 일상 생활의 활동에 있어서의 우리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참았던 용과 같이 우리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욥기 27:6)

시편 작가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이까.” (시편 15: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바리세인과 세리



하워드 더블류 헌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구세주의 위대한 비유는 ‘검양의 미덕이 부족한 자와 승영을 얻기 위해 독선적인 행위를 하는 자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나는 누가복음에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구절을 인용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려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세인이요 하나는 세리라.”(눅 18:10)

이 말씀은 주님이 지상에서 3년간 성역을 베푸시던 기간에 가르쳐 주신 많은 이야기 중의 하나로 시작됩니다. 어떠한 문학 작품도 그리스도의 비유에 비교될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그 당시에 들었던 사람들이 감동받았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감동을 받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어린 아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하면서도 현인이나 철학자들에게도 충분히 심오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의 말씀은 인간 생활의 모습을 그려낸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평범한 사건 즉 씨뿌리는 자, 잃어버린 양, 떡주는 여인, 무화과 나무, 선한

사마리아인, 돌아온 탕자와 같은 것입니다.

구세주께서 말씀하신 각 비유의 말씀은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거나, 승영에 필요한 속성에 관하여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으로 신앙, 회개, 침례, 재능의 발전, 용서, 참울성 있게 선을 행함, 현명한 정치기, 사랑, 자비와 순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유는 대개 이미 영적으로 감화된 사람들, 특히 제자들의 지식을 더하여 주기 위해 주어졌으나, 다른 사람들이나 청중들에게 주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읽어 드린 첫 구절의 비유는 그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많은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비록 주제는 바리세인과 세리였지만, 그것은 단지 세리와 바리세인만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검양의 미덕이 부족한 자와 승영을 얻기 위해 독선적인 행위를 하는 자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구세주께서는 몇 마디로 분명하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누가는 그 전체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려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세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세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어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례에 두번씩 금식하고 또 소독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어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누가복음 18:10-14)

이 장면은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기도드릴 시간에 기도드리러 간 것을 말해줍니다. 구세주께서 이 이야기의 등장 인물로 유대인 사회의 극단적인

두 종파를 대표하는 바리새인과 세리를 선택하신 것은 흥미있는 일입니다.

바리새인은 그리스도 당시의 시대에 유대교의 세 종파 중에서 가장 크고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읍니다. 유대 국가에서 바리새인의 활동은 회람 시대의 평율법사의 단계에서 시작되어 바리새인들의 주된 특징은 율법주의와 율법 존중의 엄격성에 있었읍니다. 그들은 엄격하리만큼 정확하게 법을 해석하고, 모든 세세한 항목에 이르기까지 법에 의존하여 생활하고자 철저히 집착하는 것으로 유명했읍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그들의 전통을 고수하는 데서 유대 종파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종파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이 아닌 사람은 깨끗하지 못하다 하여 피하였으며, 평민으로 생각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 자신이 선을 굽고 접하지 않았읍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의 아들이었으므로 그 자신도 바리새인이었고, 바리새인인 가말리엘에서 교육을 받았읍니다. 그는 세 번씩이나 자신이 그 종파에 속해 있음을 밝혔읍니다. 첫째는 그가 재판받을 때였으며, 그 다음에는 아그립바왕 앞에서 탄원할 때와 그 후, 빌립보 사람에게 편지했을 때였읍니다. 이처럼 바리새인으로서 교육을 받았으므로 그는 유대인의 율법에 주단적으로 헌신하게 되었으며, 여기에서 왜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의 경험이 있기 전까지 것처럼 잔혹한 그리스도의 박해자가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리는 세금을 거두는 밀시당하는 관원들이었읍니다. 토지세와 같은 일반 세금은 로마 관원들이 거두었지만, 상품 수송에 대한 통행세는 로마인과의 계약아래 보통 유대인들이 거두었읍니다. 이런 수금원이나 세리들은 그 세금을 취급하는 데서 이익을 얻읍니다. 그들의 이웃 지방민들은 그들을 도적이거나 강도와 다름없이 여겼읍니다. 이러한 거래에 있어서 독지와 부정이 자행되었으며, 세리는 세금의 일부분을 마음대로 횡령한다는 평판을 받고 있었읍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점령과 지배하에 있을 을 분개해 했으며 그들은 모든 세금은 가이사에게 바쳐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읍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인을 위해 것처럼 수금 행위를 하는 사람을 배반자로 취급했으며 외국 정복자를 위해 종사하고 있는 그들을 비열하게 생각했읍니다. 세리와 그 가족들은 공적에 없을 수도 없었고 유대인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도 없을 만큼 멸시받았읍니다. 우리는 마태도 제자로 부름받기 전까지는 세금을 거두는 세리였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역시 그 직업에 종사한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멸시를 받았읍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정반대의 입장에 처해 있는 이 두 사람의 배경을 아는 것은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를 들어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들이 왜 신전에서 그와 같이 기도했는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사람이 신전에 들어온 후, 바리새인은 세리로부터 따로 떨어진 곳에 서서 그가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은 것과 계명의 법에 따라 살지 못하는 사람들과 또한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렸읍니다. 그는 비록 하나님께 감사드리는데서 기도와 기도하고 있지만, 그의 자기 중심적인 생각은 복선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이었읍니다. 그는 이런 말로 자신을 더욱 정당화시켰읍니다. “나는 이레에 두번씩 금식하고 또 소독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그의 기도는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는 것이었읍니다. 이 자랑하는 정신과 바리새인의 자만은 탈무드에서 람비 시므온 벤 요가이가 한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의로운 자가 단 삼십 명뿐이라면, 나와 나의 아들이 그 중에 둘이 될 것이며, 만약 이십 명이라면, 나와 나의 아들이 그 중에 속할 것이고, 만약 열 명이라면, 나와 나의 아들이 그 중에 둘 것이며, 만약 다섯 명이라면 나와 나의 아들이 그 다섯 명 중에 있을 것이고, 만약 둘이라면 나와 나의 아들이 그 둘일 것이고 만약 하나라면 내가 바로 그 장본인이 되

어야 한다.”(베레위스 람반, 에스, 35)

그 재판원은 멀리 떨어진 곳에 서서, 자신을 내리 누르는 죄의 무게에 짓눌려 그의 죄의식과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치 않음을 느끼고 시선을 밑으로 떨군 채,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깊은 절망감을 느낀 그는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눅 18 : 13)

이 두 사람의 기도에서 크게 대조되는 것이 있습니까?

바라세인은 자기는 그가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따로 섰습니다. 세리도 따로 섰지만, 그것은 그 자신이 합당치 않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라세인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할 뿐,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여겼으나, 반면에 세리는 자신을 죄인에 비교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라세인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단지 자신의 의로움에만 의존했습니다. 세리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와 자비를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느니라.”(눅 18 : 14) 바로 경멸하던 세금 수금원인 세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그가 용서받고, 사함받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또 다른 경우에 하신 말씀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라세인보다 더 낮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 5 : 20)

주님은 다음 말씀으로 그 비유에 관한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누구든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눅 18 : 14) 이것은 주님께서 바라세인의 한 두명의 집에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누가복음 14 : 11 참조)

겸손함이란 진실한 성도들이 지니고 있는 신의 성품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는 데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지위만을 추구하는 자나, 또 사업, 정부, 교육, 스포츠, 그 밖의 다른 활동 분야에서 다른 사람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사람들에게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다른 사람의 성공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때 그는 이미 더 이상 빛 가운데서 거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벧전 5 : 5-6)

태초로부터 교만한 자와 하나님의 훈계를 따르는 겸손한 자가 있었습니다.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졌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사람들의 왕좌가 빈번한 곳에는 어디나 바리새인과 세리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으로 우리도 불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도록 노력하여 주님의 가르침을 따를 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그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팔마이라 근처에서의 놀라운 시현



제임즈 이 파우스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몇 년 전에, 나는 처음으로 뉴욕주 팔마이라 근처의 매우 아름다운 자연적인 산림 지역을 가보았습니다. 이 지역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들에게 “거룩한 숲”으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방문하던 날 벌 베들은 야생의 꽃들에게 입맞추며, 거목의 잎들은 미풍에 산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나무랄 데 없이 평화롭고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과연 하늘이 열려 장엄한 시현이 일어났음을 쉽게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까.

1820년 봄에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을 보았을 때, 그의 두려웠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셉 스미스의 이야기에서 이 시현보다 더 중요하고 더 영광스럽고 더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사건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부활 후 이 지상에 있었던 가장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것의 정당성을 설명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 그러한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위해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

니다. 몇 년 후 여전히 그 일의 영향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중에 요셉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만일 내가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 자신이 그것을 몰랐을 것입니다.”(밀레니얼 스타 5:93 [1944년 11월])

그 당시 14세밖에 안된 요셉 스미스는 뉴욕주 팔마이라 근처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1820년 봄에 요셉은 다른 많은 사람과 같이 그 당시의 종교적인 열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스스로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야고보서에 의해 감동된 그는 집에서 가까운 아름다운 숲에서 혼자 무릎을 꿇고 열심히 기도드렸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온 어떤 실체에 의하여”(요셉 스미스서 2:16) 심히 사로잡혔습니다. 스스로 그 힘에서 풀려 나기 위해 그는 이 거대한 악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이 매우 놀라운 순간 나의 머리 위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기둥을 보았으며 그 빛기둥은 머리 위로 점점 내려와 드디어 그 빛은 나를 비쳤습니다.

이 빛기둥이 나타나자 마자 나는 나를 걸박했던 힘으로부터 풀려났음을 깨달았으며 그 빛이 내 위에 머물렀을 때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찬란함과 영광을 지닌 두 분이 내 위 공중에 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른 한 분을 가리키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요셉 스미스 2:16-17)고 하셨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받은 메시지는 이 지상에 충만된 진리는 없으며 그 시대의 어떤 종교에도 가입하지 말라는 것과 아직 기록되지 않은 중요한 다른 기록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또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많은 것을 말씀하셨으나 여기에 다 기록할 수 없느니라”(요셉 스미스 2:20) 명백히 요셉은 그 사건과 그가 받은 지시에 의해 압도되었

입니다.

요셉은 곧 그의 가족 외에 다른 사람들에 게도 이 놀라운 경험을 알렸습니다. 그 결과 많은 조롱과 경멸과 증오가 그에게 밀려왔습니다. 그의 어머니 루시 맥 스미스는 첫번째 시현이 있는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부터 1823년 9월 21일까지 요셉은 평상시와 같이 그의 부친과 함께 일을 했고 다른 종파로부터 박해와 온갖 반대가 있었지만 이 증대한 시기 동안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 다.” (어머니가 기록한 요셉 스미스의 역사, 프레스톤 니블리엔, 74페이지) 편견과 증오는 요셉 스미스가 순교당할 때까지 늘 그와 함께 했습니다.

이 경험에 관해 요셉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실제로 빛을 보았으며 그 빛 가운데 두 분이 계신 것을 보았고 그분들은 실제로 나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내가 시현을 보았다고 말하여 미움과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사실 그대로이며 내가 이런 말을 하여 사람들이 욕하고 핍박하고 나에게 대하여 모든 거짓으로 말할 때 나는 마음속에 왜 저들은 내가 사실을 말하는데 나를 핍박할까 마음속으로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실제로 시현을 보았는데……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며 하나님도 알고 계심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며 정죄받는 일인 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 스미스서 2:25)

예언자의 순교 이전 각각 다른 시기에 첫 번째 시현을 설명하시는 것을 들은 예언자의 동료나 친구들이 기록한 팔마이라 근처의 위대한 시현에 관한 몇 가지 다른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은 요셉 스미스 자신이 쓴 첫 번째 시현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예언자와 그의 모친 루시 맥 스미스의 기사에서 그것에 대한 정확성에 관한 제이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역사적인 배경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예로써, 예언자는 그 당시 스미스 가족이 살고 있었던 지역에서의 종교적인 열기에 대해 첫번째 시현의 기사에서 언급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브리감 영은 후에 다음과 같이 확인했습니다. “나는 요셉 스미스가 소년 시절에 기독교의 여러 종파 즉 침례교, 감리교, 장로교 및 기타 종파에서 있었던 개혁에 대해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브리감 영, 설교집, 12:67) 팔마이라에서의 시현이 있는 지 3년이 지난 뒤에, 모로나이 천사의 방문이 있었고 요셉은 금판을 받아 물문경을 번역했으며, 그 후 그는 하나님의 성신권의 권능과 열쇠를 받아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그의 역사에서 그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로써 세상의 의혹을 해소하며 또 나 자신과 교회에 관하여 일어난 그대로의 사실을 사건의 차조 지종을 알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친히 사건의 진상을 아는 한 알려려는 것입니다.” (요셉 스미스서 2:1)

첫번째 시현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육체를 지니신 분으로 존재하시며 그의 형상대로 인간이 창조되었음을 증거함

2. 예수님은 개재이시며 아버지와 분리된 분이심

3.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의해 그의 아들로 선포됨

4. 예수는 성경에서 가르치신 대로 계시의 근원이심

5.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야고보의 약속이 성취됨

6. 요셉 스미스를 파괴시키려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의 실제의 존재가 있었음

7.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진 교회로부터 배도가 있었으나 요셉은 인간의 교리를 가르치는 그들의 어느 종파에도 가담하지 말라는 명을 받았음

8.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

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 되었을

첫번째 시헌은 우리에게 세 분은 독립된 개체의 하나님 곧 우리가 기도드리는 대상인 하나님, 아버지이신 엘로힘과 예수 그리스도인 여호와 그리고 우리가 그 영을 통해 모든 진리를 알 수 있는 성신 곧 보혜사가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 심오한 하나님 아버지의 출현의 기사에서 예수로부터 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헌에서 사소한 한 가지 일에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키교자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요셉 스미스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만일 그가 속이려 들었다면, 그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버지와 아들이 나타나셔서 아버지가 아들을 소개하시고 예언자에게 그 아들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음을 읽은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제 예언자께서 숲에서 돌아와서 아버지와 아들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으며 아버지께서 “요셉아,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시고 요셉이 원하는 것을 그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말했다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예언자의 이야기가 사실이 아님을 알 것입니다.

“모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집니다. 이것에 대해 경전을 인용할 시간이 없습니다만 그것은 사실입니다.”(복음 질문에 대한 대답 1:16)

예언되었던 바 메가 찬 경륜의 시대에 열렸던 첫번째 시헌으로 기인된 것은 무엇입니까?

1. 그리스도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인 문경을 받았습니다.
2. 신권의 인봉 권세를 포함하여 구원의 의식을 집행할 수 있는 신권 또는 권능이 회복되었습니다.
3.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지상에 다시 조직되었습니다.

4. 지상에 하나님 왕국의 건설과 인류의 보편적 구원을 선언하기 위해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5. 교회의 세 가지 중요한 사명 즉 복음 전도와 회원을 온전케 하는 방법과 신칙과 산 자와 죽은 자의 구속을 위한 의식을 수행하기 위한 열쇠와 원리와 권능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한 요셉 스미스 그는 누구입니까? 그의 평판은 어떠했습니까? 팔마이라 근처에서 있었던 위대한 시헌이 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다면 그 결과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모로나이 천사가 약속한 대로 그 후 그는 좋게도 또는 나쁘게도 말해졌습니다. 1843년 늦은 여름에 발간된 뉴욕선 지에는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물몬교의 창시자인 조 스미스는 위대한 재능의 소유자이며 위대한 사상가이며 위대한 웅변가이며 유능한 작가이며 위대한 정신력의 소유자이다. 그의 경력을 본 사람들은 아무도 이를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추종자들은 기만당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모두는 믿고 있다.”

“이 연령의 사람으로 기적이라 할 만한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은 거의 없다. 이 19세기의 중엽에 인간에게 새로운 계시를 주고 새로운 종교를 창설하고 새로운 예배의 형태를 세우고 도시를 건설하고 새로운 건축의 법과 제도와 질서를 세우고 종교적, 사회적 및 군대의 관할권을 확립하고, 대학을 창설하고 선교사를 파견하고 동서반구에서 복음을 전파한 이러한 일들은 작은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조 스미스에 의해 행해졌고 온갖 종류의 조롱과 박해를 받게 되었다.”(교회 정사 6:3)

교회 회원이 아닌 어떤 리더라는 사람은 요셉 스미스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내가 스미스 장군과 처음 알게 된 것은 1823년경이었습니다. 그는 18세쯤 되었을 때 나의 이웃으로 이사와서 거기서 2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때 나는 그와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

의 성품은 흠잡을 데 없었으며 그는 진실됨과 고결함으로 잘 알려져 있었으며 그 지역의 상류 사회인과 잘 어울렸으며 그는 종종 지성과 훌륭한 도덕을 지닌 젊은이로 일컬어졌고 지적인 면에서 높은 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 지력을 소유한 자로 불리워졌습니다.” (타임즈 앤드 시즌스, 5: 549-50)

보스톤의 시장인 조시아 퀸시는 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눈에 띄는 그를 만나게 되면 직관적으로 참 멋진 사람이라고 수준거리곤 했습니다.” (나부의 요셉 스미스, 321 페이지)

그의 추종자의 한 사람인 윌리엄 엠 엘리드는 몇몇 권위주의자들은 예언자 요셉이 소년들과 공놀이하고 노는 것을 문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엘리드는 예언자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어떤 예언자가 기분 좋게 나무 그늘에 앉아서 있었는데 한 사냥꾼이 활과 화살을 갖고 그에게로 와 그를 힐난했다고 말했습니다. 예언자는 사냥꾼에게 활을 언제나 당기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사냥꾼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예언자는 그 이유를 물었으며 그는 그러할 경우 그 활이 탄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언자는 자신의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활을 당기기를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청소년 인스트럭터 27: 472)

요셉 스미스가 순교당할 당시 함께 있었고 총상을 입었던 존 테일러 대관장의 형제인 윌리엄 테일러는 요셉 스미스의 인품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쾌활함과 개인적인 매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노소를 불문한 모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그를 사랑하고 신임했던 것을 증명합니다.” 그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언자에 대한 나의 헌신은 그의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느꼈던 것과 같습니다.” (윌리엄 테일러, 청녀 일지, 17: 548)

요셉의 개인적인 매력은 요셉이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아내 엠마가 그의 한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역력히 나타나 있습니다. “나

는 너희들이 이 채소밭을 아버지께서 하신 것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는다. 나는 결코 아버지가 채소밭에 일하러 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것은 그분이 일을 시작할 지 채 15분이 되지 않아 서너 명 때로는 6명이 그를 둘러싸서 그가 밭을 가는 것보다 앞질러서 그것을 짓밟아 버렸기 때문이다.” (엠마 스미스 문서, 4페이지 [1868 1869년 8월 1일] 복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역사 위원회)

실용주의 철학자인 브리감 영은 그가 임종하기 전에 요셉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요셉 스미스의 이름을 존중하며, 그 이름을 들으면 기쁩니다. 나는 그 이름을 좋아하며 그의 교리를 좋아합니다.”



합창단

“나는 주님께서 세우신 예언자이신 요셉 스미스를 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할렐 루야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이 지상에 살았던 사람이나 현재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없음을 감히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나는 그의 증인입니다.”
(브리감 영 설교집, 458-59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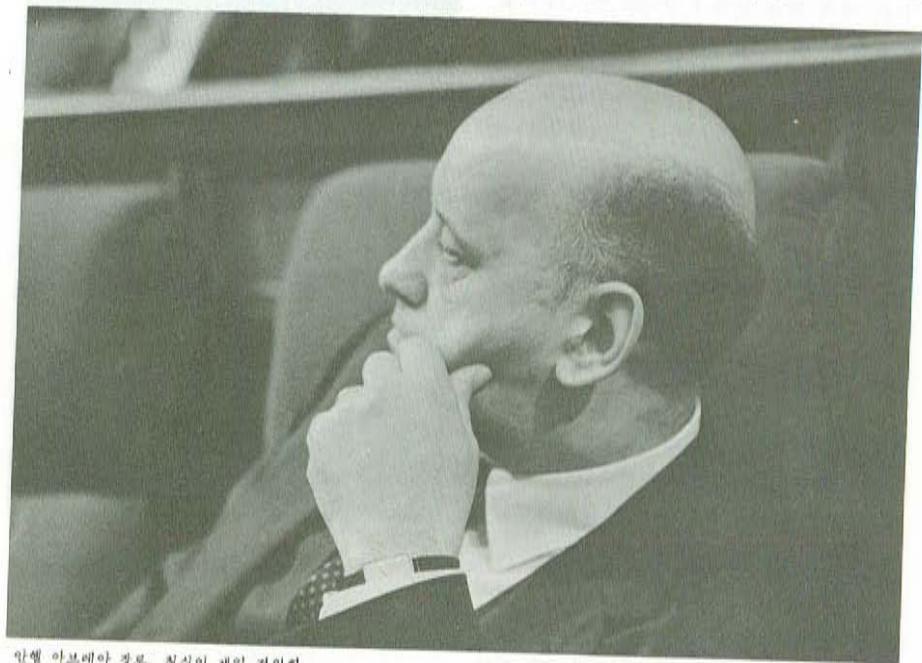
나의 동료들과 나도 역시 그분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번세제적인 이 사업의 결과에 대한 목격자입니다.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따르는 자들은 세계적으로 79개국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대개 품위있고 진지하며 순결하고 정직하고 법을 잘 지키며 가정 중심적이며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에서 애국적인 회원입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지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는니라”(눅 6:44)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우고 가르치는

이 위대한 사업의 핵심은 1820년 뉴욕주 팔마이라 근처에서 소년 요셉에게 나타난 첫번째 시현에 있습니다. 이 놀라운 시현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무시해 버리기에는 너무나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위대한 시현이 팔마이라 근처의 숲에서 일어났을 때 요셉과 함께 있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으므로, 이 실제적인 일에 관한 간증은 요셉 스미스 자신의 기사의 진실성을 믿거나 성신의 증거 또는 이 두 가지에 대한 요셉 스미스의 진실성을 믿음으로써만이 생기게 됩니다. 나는 그와 같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영혼의 깊은 곳에 자리잡고 있는 나의 확신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나타나신 그리스도와 소년 요셉 스미스에게 지시하신 동일한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으로서 나는 팔마이라 근처에 있었던 놀라운 첫번째 시현의 진실됨을 간증합니다. 이 모든 것이 진실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인텔 아브라모 장로, 침실인 세일 정원의

분명한 나팔 소리



안헬 아르레아 장로
칠십인 제일 정교회

“부음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과 그에 따라 생활하는 것은 작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치는 것과 그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나는 나무로 덮여 있고 기념비로 장식되어 있는 작은 도시의 공원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르헨티나의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전형적인 광장이었습니다. 나는 한 조각가가 망치와 끌을 사용하여 그의 작품에 마지막 손질을 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작품은 팔에 아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조각가는 캐리석으로 다듬는 어머니의 손을 마무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조각가 자신의 스타일로 빛은 대가의 솜씨인 것같이 보였습니다.

내가 그 예술가의 솜씨를 바라보며 물두에서 있었을 때 한 구두닦이 소년이 지나가다가 내 곁에 섰습니다. 잠시 동안 마지막 손질 과정을 유심히 지켜 보던 그 근면한 소년은 나를 돌아보며 놀란듯이 “선생님, 왜 저 사람이 조각을 부수고 있습니까?”라고 물

었습니다.

그 소년의 친진 난만한 뜻밖의 질문은 나로 하여금 우리가 끊임없이 보여 주는 모범과 우리의 행동과 행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했습니다.

나는 그때 우리가 지니고 있는 장점 혹은 약점으로 일상 생활에서 개인적인 신념을 전달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이는 모범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는가를 깨달았습니다.

어렴풋이 바울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오?”(고전 14:8)

우리의 활동 범위 또는 책임 분야에 따라,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 행동 그리고 언어는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해 주게 되며 이것은 적극적, 소극적인 면에서 그들의 생활에 다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행동은 무지 또는 지식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며 불신앙 또는 우리가 지니고 있는 간증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세운 모범과 우리가 생활하는 삶은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그대로 반영시켜 줍니다.

엘마가 그의 아들 코리엔톤에게 준 권고의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 나쁜 감정이 어떻게 좋지 못한 모범으로 나타나며 다른 사람의 생활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엿볼 수 있습니다.

“헛되고 어리석은 일로 유혹당하지 말며, 악마에게 사로잡혀…… 조맹인들이 너의 처신을 보고 내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으니……”(엢마서 39:11)

한편 니파이는 확고한 태도로 그의 부친 리하이로부터 명을 받았을 때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인 강한 간증의 훌륭한 모범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행하겠나이다.”(니일 3:7)

그는 “내가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알아 보겠습니다.” 또는 “내가 가서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겠습니다.”라는 혼동되고 불확실한 태도로 말하지 않고 오히려 의심하지 않고 명에 따라 행하는 사람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니파이는 그의 부친의 명을 수행하겠다는 결심과 결의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다 음과 같이 그러한 행위의 이유를 설명한 것은 흥미있는 사항입니다. “주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명해시는 대로 이룰 수 있는 방편을 미리 마련치 아니하시고는 명하지 않으심을 제가 아오니,”(니일 3:7)

또 다른 때에 니파이는 주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명을 받았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는 대로 배를 만들라. 내가 너의 백성들을 돌 볼 진너로 인도하리라.”(니일 17:8)

이 계명을 받은 후 니파이가 보인 반응은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듯 평범한 대답이거나 논리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보소서 주님이시여 나는 진에 배를 지어 본 적이 없나이다. 배를 짓는 방법도 모릅니다. 나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내가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나의 형들은 분명히 이 일을 반대할 것이며 그로 인해 그 일로 더욱 힘들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니파이가 결심을 하면서 한 생각은 양자택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단순히 다음과 같았습니다. “……주님이시여 어디로 가야 연장을 녹여 만들어 배를 만들 수 있는 최봉이를 구할 수 있겠나이까……”(니일 17:9) 이 말에서 그에게 요구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행하겠다는 니파이의 강한 결의와 결심은 주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수행하는 데서 잊볼 수 없습니다. 그 후 그의 형들이 그에 대해 불평하고 배를 짓는 것을 반대하기 시작하자, 그는 강한 간증의 말로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게 만사를 다 행하라고 이르신 것이라면 내가 능히 이룰 수 있으리라. 또 하나님께서 내게 물을 명하여 육지가 되게 하라고 명하신다면 그도 역시 내가 말하는 대로

되어지리라.

“주께서 그토록 크신 권세를 가지셨고, 그렇게 많은 기적을 사람들에게 행하였음이 사실일진대, 내게, 배를 만들 것을 어찌 가르실 수 없으시겠느냐?”(니일 17:50-51)

그러한 확신과 가치가 계시를 통해 주어질 열렬한 간증의 결과 간직하게 된 것이라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확신은 우리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한 확신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많은 사람들의 무지나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인정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생의 역경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가능해 보이는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보상은 언제나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해낼 수 있는 일이라면, 개인적인 능력과 기술로써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루어 질 수 없는 일은 신앙과 간증으로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단지 가능한 것으로 생자되거나 이상적인 여건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만 성취할 수 있다는 조건하에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보여 주는 그러한 계명은 받은 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에 순종하고 그대로 행함은 주님께서 그의 예언자로부터신 분들의 생활에서 변치않는 원리가 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늘 그러한 것입니다. 그 예로써 우리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다음과 같이 말씀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나는 ‘주께서 명하신다면 언제나 그것을 행한다.’는 것을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교회 정사 2:170)

의심할 여치없이 요셉 스미스는 성취와 끈기의 정신이 위대한 예언자였습니다. 한 번은 그의 사촌 조지 에이 스미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코 낙심하지 말라. 만일 내가 노바스크로셔의 저 깊은 골짜기 밑으로 빠져 복키 산맥이 나를 덮어 버린다고 해도 나는

신앙에 의지하고 신앙을 행사하여 계속 용기를 갖고 꼭대기로 헤치고 나올 것이다.”(존 엘리 에반스, 요셉 스미스, 모든 미국인의 예언자, 뉴욕: 맥밀란 1946, 9페이지)

내가 간증하는 예언자의 생애는 그 자체가 그가 선포한 것의 본보기가 되었으며 항상 그의 확신과 간증을 전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의와 모범적인 생활 방식을 믿고자 하는 소수 무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계 2:10)라는 약속된 축복을 얻기 위하여 주님의 권고를 따르려는 사람들의 변함없는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경전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들의 행동을 통하여 자녀들을 암흑의 길로 인도하는 “메시지”를 전해 줄 수 있는지, 아니면, 구원으로 인도하게 하는 그러한 것을 분명히 가르칠 수 있는가에 대한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홉은 니파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자녀들 앞에 보인 일들로 하여 자녀들이 얼마나 비탄하였을까를 기억하며, 너희의 더러움이 너희 자녀들을 멸망으로 몰아 넣을 수 있음을 또한 기억하며, 마지막 날에 저들의 죄가 너희 머리 위에 얹히게 될 것을 기억할지어다.”(야 3:10) 이 말씀에는 부모가 자녀들의 생활에서 보일 수 있는 놀라운 모범의 힘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때때로 가정에서 자녀들이 받는 나쁜 모범이나 분명치 못한 나팔 소리는 교회 역원들에 대한 비판의 형태로 오거나 집 밖에서는 친절한 말을 사용하다가도 집안에서는 거칠고 저속한 말을 사용하는 형태로 오기도 합니다. 만약 자녀들이 지키기 편할 때만 십일조를 바치는 것을 보거나 신앙이 약해져서 십일조를 바치지 않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것을 듣게 된다면 그 소리가 분명하게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날의 예정된 스포츠 행사에 의해 좌우되거나 날씨가 좋으면 야외회에 참석하는 것을 그들

이 보게 될 경우도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휴 브라운 부대관장님이 말씀한 다음과 같은 사 람에 비교될 수 있습니다. “교훈을 알고서도 그것을 지키기를 게을리하는 자는 마치 어두운 곳에서 촛불을 켜고 눈을 감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는 다른 면에서 여호수아가 본보기로 보여 준, 분명한 나팔 소리에 관해 생각해 봅시다. 그의 백성들이 강한 결단력으로 확고한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게 되었을 때 그는 마지막으로 이같이 말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수 24:15)



모든 부모들이 여호수아와 같은 그러한 태도와 결의를 취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메시지가 자녀들의 생활에 전해질 때 그 소리는 얼마나 크고 분명하게 들리겠습니까?

영원한 가족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는 더 많은 모범과 인도하는 빛이 필요하며 변명하는 자나 암흑을 조장하는 자는 적을수록 좋습니다.

복음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과 그에 따라 생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치는 것과 그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 각자의 생활에서 융화될 때 우리의 결심과 행동을 낱게 해줍니다. 우리가 복음의 원리대로 생활할 때에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을 따르도록 가르치는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는 자가 되도록 부름 받은 위대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다음과 같은 훈계를 따라야 합니다.

“진실로 나는 너희 모두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리하여 네 빛이 여러 국민의 기가 되게 하라.”(요한 1:9)

우리는 우리의 구세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일에서 실패할 리가 없습니다. “보라 나는 빛이라 내가 너희의 본이 되노라.”(니삼 18:16)

우리는 목표를 알고 있고 모범도 있으므로 이제 우리는 그 길을 따르도록 노력하고 결심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로써 내가 아노니, 살아 계신 아버지의 아들의 본을 따라 끝까지 견디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느니라.”(니이 31:16) 구속주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대의 방문자

네가 받은 복을 세어라



요시히코 기쿠찌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인간이 인내와 오래 참음과 자제심을 배울 때, 고통은 오히려 인간을 성도가 되게 할 수 있다.”

왜 젊은 어머니는 돌아가셔야만 했습니까?

나의 친구 밀턴에게는 여섯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의 사랑스런 아내는 남편과 그녀의 귀여운 여섯 자녀를 남긴 채, 교통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어느 날, 그의 큰 딸이 울먹이며 그의 침대가로 다가왔습니다. 밀턴은 딸이 동생들과 싸운 모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저는 외로워요. 엄마는 어디 계세요? 엄마가 보고 싶어요.”라고 딸이 말했습니다. 그는 큰딸을 안아 주면서 “너의 엄마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 곁에 계시단다. 우리는 다시 엄마를 만나게 될거야.”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다른 날에는, 그의 네 살난 딸이 할머니에게 와서 “엄마는 언제 집에 오실거예요?” 하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손녀를 껴안아 주면서 “엄마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단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나는 한없이 울었습니다.

킴볼 대관장님이 11살 때, 그의 어머니께서 중병을 앓으셨습니다. 그의 부친은 모친을 아리조나주에서 솔트레이크 병원으로 옮기셨습니다. 그 당시 킴볼은 어머니에게 다 음과 같이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다 만약 어머니가 완쾌되어 빨리 집에 돌아오신다면, 그전보다 더 잘 어머니를 모시겠어요……

그는 후에 이렇게 썼습니다.

“저희는 어머니가 안 계셔서 몹시 외로워요…… 이곳에서는 매우 빠르게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가 위독한 상태에서 벗어나셨다는 전보를 받고서 매우 기뻐했습니다…… 곧 잠잠 시간이 되었으니 이만 마쳐야 되겠어요. 엘렌 자매님께서 우리가 오후 8시에 잠 자리에 들어야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다고 종교 과목 시간에 말씀하셨습니다. 벌써 8시 반이나 되었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사랑하는 아들, 스펜서 킴볼.”(스펜서 더블류 킴볼, 45페이지)

그가 이 편지를 부친 다음날, 그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날, 감독님이 전보를 받고 모든 킴볼 자녀들을 학교에서 불러 뵈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집으로 달려오니 감독님이 그들에게 “너희들이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라고 알려 주었습니다. 킴볼 대관장은 후에 이 사건을 이렇게 말했습니 다.

“그때의 그 소식은 나에게 벼락같은 소리였습니다. 나는 눈물이 흘러 넘쳐 집안에서 나와 뒤뜰로 뛰어나갔습니다. 사물과 소리와 모든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나는 한없이 한없이 울었습니다. 나는 “엄마”라는 단어를 되뇌일 때마다 홍수같이 눈물이 솟아 나왔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다니! 그럴 수가 없어……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11살 된 어린 나의 가슴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스펜서 더블류 킴볼, 46페이지)

왜 세상에 죽음과 질병과 비극이 있느냐

까? 왜 우리는 고통과 실망을 겪어야만 합니까? 왜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의 “깊은 물”과 맞서야만 합니까? 왜 “슬픔의 강”을 건너야만 합니까? (찬송가 16장 “굴도다 그 기초” 참조)

우리는 주님의 뜻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도 우리의 작은 지혜로 주님을 판단하고자 합니다.

나는 지금 인생의 깊은 물이나 슬픔의 강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결코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아들이야! (또는 딸들이야!) 이 모든 일은 내게 경험이 되고 내게 유익이 되는 줄 알지어다.”(고성 122:7) 라고 하셨습니다.

고통을 통해 성도들이 됨.

킵블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우리 생활에서 육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번민을 물리쳐 버리고 항상 우리 스스로가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나, 우리가 슬픔과 절망에 대하여 문을 닫아 버리게 되면 우리는 훌륭한 친구들과 은인들도 물리치게 된다.

인간이 인내와 오래 참음과 자제심을 배울 때, 고통은 오히려 인간을 성도가 되게 할 수 있다……”(스펜서 더블류 킵블, 기적을 낳는 신앙, 98페이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인내와 오래 참음과 자제심을 배울 때, 우리가 의롭게 생활하는 한 고통은 오히려 인간을 성도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 친구를 통해서 모든 분들이 배울 점이 있습니다. 어느 여름날, 네브라스카주에서 그 친구는 그가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마련한 파티에서 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물속으로 다이빙을 하다가 얕은 바닥에 매우 세게 부딪혔습니다. 목이 부러지고 온몸은 금새 마비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는 숨도 거이 쉬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의사는 “그는 이 밤을 넘기기 힘들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운동은 어느 것이나 다 잘했고, 말에 선교 사업을 갔다 온 후, 정치학으로 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고 일어났을 때, 그는 브리검 영 대학에서 법률 1년만 더 다니면 졸업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결혼해서 두 아이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행한 사고로 인하여 그 인생은 낮과 밤이 바뀌듯 모든 것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그는 다음날까지 살게 될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사지가 마비으로써 정신적, 육체적으로 얼마나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비록 그는 유타 대학 병원에서 그런 상태로 있으면서도 법대를 졸업할 결심을 했습니다.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의 훌륭한 친구들이 프 로보에서 강의를 적은 노트와 강의를 녹음한 테이프를 그에게 보내 주었습니다. 오! 이처럼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임하옵소서! 이 얼마나 훌륭한 친구들이니까? 그는 입에 막대기를 물고 책 장을 넘겨야 했고, 그 책임이 완전히 덮여지면, 누군가가 와서 그를 도와 주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결국, 그는 법대를 졸업했고, 고통 고시에 합격하여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공부하고, 운동하며, 힘을 되살리기 위해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동안, 그의 아내는 그와 이혼하여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 일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고민하고 슬피(마 26:37 참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불평하지 않고, 떠나가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축복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온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다.”(마 26:42)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그 자신의 겹세마네 동산이었고, 자신의 잔을 취하여 축복이라도 되듯이 그 잔을 마셨습니다.

“굴도다 그 기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 너를 불러 깊은 물 건너/슬픔의 강물이 넘치지 못하리/
나 너 함께 하고 근심 덜어 주며/네 깊은

곤경 불태워 없애리. (찬송가 16장)

그 후, 내 친구인 마이크는 아주 아름다운 여자인 제빌을 만나 결혼했으며, 지금은 그의 아내가 임신 중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축복하기 위하여 모든 고통을 너희에게 임하리리."

지난 금요일, 그들은 천사와 영원을 위하여 신전에서 인봉되었습니다. 나는 이 아름다운 부부를 위하여 의식을 행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의 스테이크 부장인 뱁크 부장님은 "그는 강한 신앙을 가진 가장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의 비서는 그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은 언제든지 그에게 중요했습니다.....단지 몇 초의 시간에 의하여 차이가 납니다.그는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 보통 때보다도 더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능력

주님은 ".....인간에게 능력이 있고"(교성 58:28)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그 능력, 가장 큰 능력을 갖고 있으니, 곧 사랑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듣는다면 주님의 사랑을 느낄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

- 사랑하는 능력
- 생각하는 능력
- 신앙을 가지는 능력
- 기도하는 능력
- 창조하는 능력
- 보는 능력
- 느끼는 능력
- 만지는 능력
- 말하는 능력
- 들보는 능력
- 관심을 가지는 능력

나누어 가지는 능력

주고자 하는 능력

감사하는 능력

(“축복”, 요시히코 기쿠찌, 1978)

주님께서서는 특히 사랑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큰 은사입니다. 형제 자매님들께서 이런 능력을 지니고 계신다면, “슬픔의 강”물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 함께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 봅시다.

세상 모든 풍과 너를 휩쓸어,
잃은 것을 생각해 낙심할 때,
네가 받은 복을 모두 세어라,
주의 크신 복에 네가 놀라리,
주가 주신 복을 세어라,
주가 하신 일을 알리라,
크신 복을 세어 보아라,
주가 주신 복을 네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으로 시달려,
십자가가 무겁게 생각될 때,
네가 받은 복을 모두 세어라,
네의 모든 의심 사라지리라.

세상 권위 네 앞길을 막으나,
낙심말라 주는 능히 이기리,
천사들이 네게 도움 위안을,
네의 여행 끝날까지 주리라.



(찬송가 “세상 모든 종파 너를 휩쓸어” 88 장)

우리의 좁은 마음으로 주님의 위대한 지혜를 판단하지 않도록 합시다.

구세주께서는 사랑의 손길을 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불행합니까? 심신 장애자입니까? 이혼했습니까? 제 친구처럼 몸이 마비되었습니까? 화가 납니까? 어떤 사람을 미워합니까? 어떤 사람에게 원망스런 감정을 느끼니까? 장님, 병어리, 귀머거리입니까? 남편이 떠나버린 외로운 어머니입니까? 남편이 돌아가셨기에 외롭습니까?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

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 11:28-30)

예수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간증드립니다. 주님은 니파이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자신의 위대하고 성스러운 성역에 대하여 친히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내게로 와서 너희의 손을 나의 열구리에 넣어 보고, 내 손과 발의 못 자국을 만져 보아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온 땅의 하나님임을 알라.”(니삼 11:14)

나는 그가 살아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대회 광경

교회 회원의 기도로 지지 됨



존 케이 카맥 장로
칠십일 제일 성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개개인에게 개별적인 관심을 갖고 계시며 만일 우리가 그에게 간구한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을까요? 이는 여러분 모두가 위대한 친구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교회의 행정에 대한 특별한 시헌을 통해 대관장단은 교회 회원의 신임과 신앙과 기도로써 지지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교성 107:22 참조). 이제 막 부름받은 여섯 분을 대신하여 대관장단께 우리의 신임과 신앙 그리고 기도를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대관장단을 사랑하고 있으며 그분들이 우리를 신임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우리에게 보여 주신 여러분의 지지에 또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사랑을 느끼고 있으며 특별한 체험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 전체의 성도들에게 사랑을 느끼고 있음을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나는 이 자리에 많이 참석하신 나의 친

구 캘리포니아 성도들과 아이다호 성도들의 사랑을 느끼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특권이 희락된다면, 아이다호 보이즈 선교부의 많은 선교사들에 대하여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힘을 느낍니다. 물론 우리의 가족은 그러한 사랑을 뒷받침해 주는 데 필수적인 초석이 됩니다. 이러한 위대한 교회에 내가 속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일입니다.

이제 부름을 받음으로 큰 부름이 주어졌습니다. 칠십일은 부름을 받아 복음을 전파하여 이방인과 온 세상 사람에게 특별한 증인이 됩니다. 나는 나와 같은 총관리 역원들도 동참하리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유일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마음 속에 믿는 것은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 특별히 강한 간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두 가지를 간증드립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참으로 그리스도이시며 그는 우리 개개인에게 개별적인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둘째는 만일 우리가 그에게 간구한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나는 선교부를 가로질러 여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이다호, 케어필드라고 불리는 조그마한 마을 근처에 있었는데 그때 경전을 읽고 있었습니다.

나는 값진 진주에 나오는 첫번째 시헌을 읽고 있었는데, 그것은 내가 우리 모든 선교사들에게 암기하도록 부탁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 아름다운 사건을 회상하며 읽고 있을 때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 스미스가 값진 진주에 기록했던 말씀이 그대로 내게 시헌으로 보였다는 것을 참으로 특별하게 간증드립니다. 말하자면 나는 직접 첫번째 시헌을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성신의 능력을 통해 그 시헌에 대한 개인적인 증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아들이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났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도 나와 유사한 경험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헝클리 부대관장님은 목요일 오후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때 이미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으리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촌 형제님, 형제님과 카막 자매님을 집전하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 첫 비행기편으로 내 사무실까지 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일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아주 커다란 도움이 되었습니다. 처방전도 별 효험이 없었으며, 우리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침 일찍이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평화로움을 느꼈고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교회의 모든 회원 특히 청년들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선교사들에게 아침 일찍 일어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으며, 화평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히 4:15)

우리는 하나의 집과 같다고 말한 사람은 조지 매도날드를 인용한 시 에스 루이스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것은 무섭게 파괴되고 맙니다. 우리는 지붕과 흙통을 수리할 필요가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그분이 나타나 여기 저기에 새로운 층을 만들기도 하고 보수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된다고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집을 수리하고 그 밖에도 손볼 필요가 있다는 것은 알았음이나, 그러나 이런 정도입니까? (단순한 기독교 정신, 뉴욕: 맥밀란 출판사, 1943년 174페이지.) 그리스도의 사랑은 강인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십니까? 앤 스코트 펙 박사는 자신의 베스트셀러인 *찾는 이가 적은 길* (뉴욕: 사이몬 앤드 셔스터, 1978년)에서 우리가 아무리 살피며 돌아다니 보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인도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묻는 모든 사람들은 단 한가지의 놀라운 결론 즉 하나님은 우리가 그와 같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 아무리 무서운 파멸이 올지라도 그곳에는 화평이 깃들게 됩니다. 이른 아침에 랄프 로저의 연극 *니파이 3세*의 주제가 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나는 내 주위 온 세상에서 구세주의 사랑을 느끼네.....

주님은 내가 그를 따르고 내 온 생명을 바칠 것을 아시네.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구세주의 사랑을 느끼네. ("나는 구세주의 사랑을 느끼네." 설가집 36~37페이지)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총관리 직원들을 대신하여 우리는 힘과 사랑과 기도와 그리고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할 것이며, 우리가 구하지 않은 부름에 겸손히 순종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 드립니다. 아멘. *



“주님의 청년들아”



아데스 그린 캡 자매
본부 청년 회장

“교회에 있는 모든 청년에게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필요로 하며,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있으며, 또한 믿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나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해 있으며, 오늘날의 청년들을 위한 터를 세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과거의 지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과거에 봉사했던 분들이 우리에게 남겨 놓은 유언으로 인해 커다란 기쁨을 느끼며 오늘 처음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나는 “오, 주님의 청년들아 나가세 나가세!”

(“우리를 둘러싼 산과 같이, “찬송가, 133장)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훌륭한 남편, 히버와 함께 기쁨과 노고와 실망의 세월을 지내 오면서, 주님을 알게 되었고 우리의 가정과 생활에서 그의 영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실망과 위대한 축복이 교차되는 시대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빌 4:7)의 평강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가정에서 나의 남편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말은 “나는 주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하기를 원한다.” 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그 말을 따라하며 그의 모범으로 가르친 것에 나의 결심을 덧붙이게 됩니다.

오늘 나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동생인 사무엘 스미스로부터 물문경을 받았던 나의 선조 존 피 그린에 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존 할아버지는 물문경을 그의 아내인 로우다 영에게 주었으며 그녀는 그것을 자신의 형제들인 피니애스 영과 브리감 영에게 전했습니다. 나는 존이 나부에서 경찰서장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며, 그 후 오랜 세월 동안 충실한 말일성도들이 계속되어 내려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부모님께서 돌아 가시기 전 마지막 유언서에 유산은 기대하지 말라고 쓰셨으나 그들의 가장 소중한 재산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간증의 말씀이 적혀 있는 유언서를 남기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다음과 같은 시 몇 구절을 생각해 봅니다.

대위 방앗가



만일 우리가 죽음으로써 너희의 믿음이 상실된다면

양귀비가 개양귀비 밭에서 자랄지라도 우리는 결코 자지 않으며.

(존 맥크래, "개양귀비 밭에서")

우리는 아무도 신앙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희망과 믿음 그리고 야심에 찬 세대이며, 전세계에 있는 다른 청년 지도자들과 함께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마음과 행동 그리고 태도와 행위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게 되고, 신권의 권능과 지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약한 세력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교활한 속임수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오는 약속과 축복을 멀리하게 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교회의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저는 열 두 살난 꼴벌반 학생입니다."라고 말하며 내 손을 잡던 한 어린 꼴벌반원에게, 그리고 교회의 모든 지역에 있는 각 청년에게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고 여러분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여러분에

게 관심과 믿음을 갖고 있다는 말씀과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기란 불가능한 일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의 평의회에 제신 총관리 역원들에게 큰 힘과 권능으로 말일에 이 위대한 사업 인도해 나가심을 알게 됨을 나는 큰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위대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모든 청년가 충실하고, 언약을 지키며 헌신하는 자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신앙이 굳건한 어머니들과 아버지들은 강인한 용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위대한 부모님들을 지지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어 주님이 오실 때 합당한 회원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는 세대를 준비시킬 것입니다.

이 엄숙하고 신성한 소망을 위해 나는 나의 모든 힘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나는 이 위대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기쁘게 생각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엘름 페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모든 훌륭한 부부 여러분, 이 말씀에 특별히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황금기를 영혼의 만족을 안겨 주는 복음 선포사로 봉사함으로써 값진 시간이 되게 하십시오.”

준비한 메시지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봉사 기간 중에 헌신적으로 일해 주신 위대한 두 분의 자매님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스미스 자매님과 캐번 자매님은 교회의 여성들에게, 그리고 험한 바다에서 안전한 항구로 들어오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을 인도해 주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분을 축복하셔서 두 분의 영감과 격려가 계속하여 교회의 자매님들에게 미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세주께서는 지상에서의 성역을 마치신 후 것처럼 짧은 기간 동안에 그의 사업을 수행해 나갈 사람들을 준비시키셔야 했습니다.

그분은 이러한 책임의 중요성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마지막 시간에 그분이 가르치신 가르침은 항상 나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은 오늘날 주님의

사업을 수행할 책임을 부여받은 자들에 대한 마지막 지시 사항입니다.

구세주께서는 자신의 성역을 통해 그가 행하신 일들을 행하도록 우리에게 권장하셨습니다. 마지막 만찬에서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 각 제자들 앞으로 가서서 그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봉사의 행위를 하신 후 다음과 같이 지시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요 13:14-15)

구세주께서 봉사하셨다면, 우리도 봉사해야 하며 그가 가르쳤다면 우리도 가르쳐야 함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가 기도했다면 우리도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그는 만일 우리가 그의 성역을 이해하고 행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우리가 받는 것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며, 만일 우리가 함께 나누고, 봉사하고, 가르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만족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마태는 주님의 복음을 기록하기를 마치면서 주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지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열 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뵈옵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아가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찌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6-20)

경건은 복음의 빛이 각 개인의 생활에 스며들었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많은 예를 보여 줍니다. 두 가지 예를 생각해 봅시다. 첫번째는 신약전서에 있

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칠째 요한을 따랐던 두 제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다시 경전 말씀을 인용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좇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제신대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십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요 1:35-41)

안드레가 그의 생애에서 특별한 무엇인가를 받았을 때 그는 그것을 그의 형제와 나누기를 원했으며, 그의 형제를 찾아 그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하기까지는 편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경에도 엘마와 모사이아의 아들들에 관한 또 하나의 위대한 예가 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멀하고 온갖 달콤한 말을 하여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도록 꾀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엘마 부친의 간구로 주님은 엘마에게 그러한 일을 금하고 회개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가 복음의 빛을 받았을 때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는 것은 참으로 흥미 있는 일입니다. 경전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엘마가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였고, 천사가 나타났을 때 엘마와 함께 했던 자들은 온 나라를 두루 다니면서 저들이 보고 들은 바를 선포하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한 박해를 받으며 매를 맞아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전

하였으니라.”(모 27:32)

그 후, 모사이아의 네 아들에 관하여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세이라해물과 땅과 모사이아왕이 다스리는 백성들 가운데로 두루 다니면서, 저들이 교회를 아프게 했던 욕됨을 씻으리지는 죄를 고백하며 저들이 본 모두를 선포하며 듣기 원하는 자에게 모든 예언과 경전의 말씀을 설명하였으니라.

“이같이 저들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와 저들의 구속주를 가르쳤으니,

“저들의 복이 크리도다! 이는 저들이 평화를 공포함이요, 신의 선한 소식을 공포함이요, 주가 다스리심을 백성들에게 부르짖어 전하였음이니라.”(모 27:35-37)

개종한 후 복음을 나누어 주기를 소망한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신권의 책임이지만 그것은 의무감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진실한 사랑과 그가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값진 진주’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단지 우리만 기뻐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큰 기쁨과 행복을 온사로 받게 됩니다.

나는 와드와 스테이크에서 오랜 기간 동안 봉사를 하고 일정 기간 동안 선교사로서 주님께 온전히 봉사하시기를 소망하는 나이 많은 부부들에게서 특별히 큰 감명을 받게 됩니다. 나는 세상의 구석 구석에서 그러한 분들을 만났으며 그들은 자신들이 수행하고 있는 일로 인해 내가 만난 가장 행복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위대한 특권을 받았던 분들이 쓴 편지 중에서 일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인용문들은 여러 장의 편지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이 편지는 부부 선교사가 얼마 동안 선교 지역에서 봉사한 후 선교부장과 그의 부인에게 보낸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선교사 나가기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교사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남

편은 정규 교육이라고는 4년밖에 받지 않았으며 그 사실을 평소에 늘 예민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많은 책을 읽었으며 사업에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끄는 특별한 인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지낸 몇 쌍의 부부들은 선교사로 나갔으며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했습니다. 우리 감독님이 우리들을 감독실로 불러 그가 2주 동안 기도드렸으며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선교사로 나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들은 완전히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주님의 부름이라는 사실을 알고 받아들였습니다.

“나의 남편은 척추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남편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의사를 찾아보기 위한 얼마간의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의사의 대답은 “집에 가서 고통을 이겨 내며 살아가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로 성별되었을 때 남편은 더욱 건강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들은 선교사 훈련원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보낸 몇 주는 우리에게 매우 특별한 나날이었습니다. 우리들이 복음 토론을 익히기는 힘들었으나, 우리가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행한 후에 주님께 매달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사 훈련원에서는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랑과 친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신전에 갔습니다. 우리는 선교사 훈련원이 신전 다음으로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곳을 알았습니다.

“함께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는 특권은 우리 생애에서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많은 시간을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욱 잘 알게 되었으며 서로의 잠재력을 더욱 많이 깨닫게 됨으로써 큰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소한 약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회를 기대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황혼기에서 이 시기는 성숙과 결속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다면 모든 부부들이 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그러한 이유가 없을 경우라면, 가족이 그들을 돕는다면, 그 가족은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하와이나 유럽 여행을 시켜 드리는 것보다 훨씬 훌륭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 후 이 부부는 선교 사업을 마치면서 마지막 간증 모임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선교사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로 나오기 전에 우리의 생활이 어땠는지 여러분은 상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와 같은 경험을 한 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나는 성탄절 바로 전에 물론 수공예점에서 나오는 한 훌륭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성탄절 선물을 사 주기 위해 그곳에 들렀던 것입니다. 내가 거리를 걸어가는데 그는 나에게 달려와서 “나를 기억하시겠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잠시 동안 기억을 더듬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난 때는 선교 지역에서였습니다. 생활 조건이 고향에서와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그와 그의 아내와 함께 구하며 그들이 한 일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을 때 그들은 무척 기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기쁘시지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아시다시피 나는 적응하기가 몹시 힘들니다. 필리핀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매우 필요로 했습니다. 여기서는 그와 같이 필요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를 다른 선교

부로 다시 보내 줄 수 없습니까?”

네가 선교부장님들께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라고 물을 때마다 그들은 한결같이 “부부 선교사를 더 많이 보내 주십시오.”라고 대답합니다.

오늘 나의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훌륭한 부부 여러분, 이 말씀에 특별히 귀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삶은 어려워졌습니다. 나도 그것을 압니다. 여러분은 지금과 같은 안정을 얻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여러분은 열심히 노력하고 가족을 부양했으며, 여러분의 생에서 이 황금 시기를 즐기기 위해 얼마간 저축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는 여러분이 실제로 갈망하는 만족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영혼의 만족을 안겨 주는 복음 선교사로 봉사함으로써 값진 시간이 되게 하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일어나서 간증을 하고 여러분의 동반자와 복음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것이 참된 사실이라면 여러분은 안드레나 엘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얻은 성취감을 나눌 때까지는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신성한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게 해주며, 자신의 노력으로 영생에 대한 이해를 하게 해준 사람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표현을 듣는 선교사들이 느끼는 커다란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손을 내밀어 궁핍한 사람들을 돕는 데서 오는 달콤한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확실히 쌓아 두는 것보다는 나누어 주는 데서 우리에게 오는 축복은 더 큰 것입니다. 이점에 대하여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또한 단지 우리 종교의 참됨을 알고 일상적인 일을 행하며, 사용하면 없어질 세상의 부를 축적하며 집에 앉아 지내기보다는 나아

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인간의 구원을 위해 일할 때, 우리에게 오는 기쁨은 더욱 크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곤란한 문제는 종종 우리가 행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치있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가장 기쁜 일이 될 것입니다.”(복음 표준 104페이지)

감독 여러분, 여러분은 정년 퇴직했거나 곧 정년 퇴직하게 될 건강한 부부에게 선교 사업에 관해 생각해 보도록 좀더 권장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가서 요청하기는 어려워하지만, 여러분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급성장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 그들의 성숙함과 지혜와 경험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감독 여러분, 이들 부부들에게 이러한 훌륭한 봉사를 하는 데 필요한 소망과 자신감을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젊은 선교사와 동일한 프로그램을 배우고 따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그들이 지금까지 성장하고 발전하여 이미 그들의 몸 에 익힌 재능을 활용하는 것을 원하고 있음을 알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그의 위대한 선교 사업에 열의를 갖고 참여하고자 진지하게 원하고 있는 교회의 훌륭한하고 노련한 부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대한 사업이 참됨을 간증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 드립니다. 아멘.*



사소한 행동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함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다름과 분쟁이 될 사소한 일에 초연하고 서로 용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 살 힘을 가지십시오.”

형 제 자매 여러분, 나는 킴블 대관장님께서 이곳에서 주님의 예언자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그분은 지금 90세입니다. 그분의 생애는 다채로웠고 우리는 그분의 훌륭하고 헌신적인 지도력에 혜택을 받았읍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이 많은 회중을 둘러보고 그분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대관장님, 이 사람들이 모두 대관장님을 사랑합니다.”

그분은 “나도 그들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위대한 연차 대회를 마치면서 “나도 그들을 사랑합니다”라는 여러분에 대한 그분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훌륭한 대회를 가졌습니다. 십이사도 평의회의 사도 두 분을 한꺼번에 부른 것은 오랜만의 일입니다. 40년 전에 킴블 대관장님과 멘슨 사도가 함께 부름을 받은 뒤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켈십인 제일 정원회에 크게 기여할 경험있고 단련된 신앙과 지도력을 겸비하신 몇 분을 불렀읍니다. 또 5개의 새로운 신전 건립을 발표했습니다. 킴블 대관장님이 이 단상에 서서 말씀하실 수는 없으시지만 우리는 때때로 그분과 대화했고 또 그분은 자신의 권능을 위임하셨습니다. 이 권능없는 우리는 이 대회를 진행할 수 없읍니다.

이제 우리는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우리는 총관리 역원들의 권고를 받고 신앙이 강화되었습니다. 헤어져야 할 이 시간에 나는 우리의 생활에서 사소한 일에 유의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농장의 울타리에서 큰 대문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열고 닫을 때 그 경첩은 별로 움직이는 것같이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위에 큰 원을 그리게 됩니다.

1831년 주님께서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 게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작은 일에서 큰 일이 생겨납니다.” 선악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선이 자라서 큰 선을 이룹니다. 보이 스카웃 운동은 이 위대한 조직의 역사를 아는 사람에게 알려진 대로 이러한 좋은 예가 됩니다. 악한 일도 또한 이와 같습니다. 조그마한 부정직, 조그마한 부도덕, 조그마한 분노가 크고 무서운 일로 발전합니다.

1857년 9월에 이 땅에서 있었던 오래 된 극장에서 미국의 마지막 장면이 상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일요일에 브리감 영은 모임의 사회를 맡고 있었던 제 회중에게 높고 약하고 지친 한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브리감 영은 회중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이셨던 토마스 마쉬 형제가 19년간 교회를 떠났다가 이제 우리 앞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그분이 이곳에서 서서 여러분께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는 내 사무실에 오셔서 내가 그와 화해할 수 있는지도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와

자기 자신이 화해할 수 있는지 알고자 했습니다. 그는 잠시 동안 회상한 끝에 교회와 화해할 수 있으나 교회가 그와 화해할 수 있는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여기 바로 그분이 계시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토마스 비 마쉬 형제를 소개합니다. 십이사도 정원회가 처음 조직되었을 때, 그는 정원회 회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마쉬 형제는 연단으로 가셨습니다. 한때 십이사도 평의회 의 제일 회장이었으며 교리와 성약 112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기이한 방법으로 말씀하셨던 바로 그분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많은 회중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 목소리가 전에도 크지 못했지만 특히 만년에 주님의 매를 맞아 크게 약해졌습니다. 그분은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저에게 매질을 하지 않으시고는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나는 나에게 가해진 응징에서 주님의 손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저를 사랑하고 있음을 증거해 주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것처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저를 팔로 안으시고 채찍질을 안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저처럼 배도자가 있으시면 사람의 채찍질을 받기 위해 등을 내미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저의 충고를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은 역원 옆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시고 주님이 아직도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은 다시 채찍질을 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님같이 교리와 성약에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은 저시를 알고 계신 분이 배도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들에게 너무 안심하지 마시고 배도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누구에게도 배도할 가능성이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입니다.

“저 자신이 속해 있었던 십이사도 정원회에 관해 말씀드리자면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조금도 뒤지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으며 아

마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너무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기도 전에 여러분의 발이 미끄러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잠시 동안이라도 안전하다고 생각하여 주님의 영을 잃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배도할 때 그들은 압축에 던져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알아듣기 힘든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그가 실제로 57 또는 58세밖에 안되는 데 비해 더 늙어 보이는 이분은 자신이 솔트레이크 계곡에 오기까지 겪었던 고통에 관해 이야기했고 그가 다시 이 교회에 침례받기를 간구했습니다.

나는 그 형제를 그와 같은 슬픈 상태로 몰아 넣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고 연민의 정에 가득 차서 그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나는 그 때답을 1년 전에 같은 장소에서 조지 에이 스미스가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에서 찾아 낼 수 있었습니다. 나는 나중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사소한 문제를 다루는 데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지 에이 스미스의 기사에 의하면 성도들이 미주리주 파웨스트에 있을 동안 “그 당시 십이사도 회장인 토마스 비 마쉬의 아내와 해리스 자매는 좀더 큰 치즈를 만들기 위해 우유를 서로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그들이 스트리핑(마지막에 짜낸 우유, 지방질이 많고 색깔이 적음)을 빼어 내지 않고 우유와 스트리핑을 함께 보내기로 했습니다.……

“해리스 부인은 약속대로 우유와 스트리핑을 함께 마쉬 부인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마쉬 부인은 특별히 좋은 치즈를 만들기 위해 작 짚소로부터 1파인트(약 0.57리터) 가량의 스트리핑을 빼내고서 해리스 부인에게 보였습니다.”

이 일로 다툼이 생겼고 그 일이 가정 복음 교사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들은 마쉬 부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을 알아냈습니다. 그녀와 남편은 화가 났으며 “그 교사로부터

감독에게 이러한 문제가 전달되었으며 교회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마쉬 회장은 감독이 자신과 자신의 아내에게 공정하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교회 재판)은 스트리핑이 불법으로 제거되었으며 그의 아내가 성약을 범했다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쉬 회장은 즉시 고등 평의회에 항소했고 고등 평의회는 그 문제를 끈질기게 조사했으며 그리고 조지 에이 스미스는 그것이 중대한 결정임을 확신했습니다. 마쉬 회장은 아내의 인격을 존중해 주기를 갈망하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고등 평의회는 감독의 결정을 최종적으로 확정지었습니다.

이에 불복한 마쉬 형제는 교회의 재판장단에 항소했고 요셉과 그 보좌들은 그 사건을 심의하고 고등 평의회에 결정을 승인했습니다.

“이 사소한 일이 큰 소동을 일으켰고 토마스 비 마쉬는 그가 지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아내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당시 십이사도 회장이며 누구보다도 정의를 행함에 앞장서고 그의 가족 중 누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했음에도 그런 입장을 취한 그가 다음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는 행정 장관 앞에 가서 물론이 미주리주에 대해 적개심을 품고 있다고 거짓 맹서했습니다.

“미주리 정부로부터 멸절령이 내려졌고 그 결과 15,000명의 성도들이 집을 잃고 수천 명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헐벗고 굶주려서 죽어갔습니다.” (설교집 3 : 283-284)

조그마한 크림을 놓고 두 여인이 서로 다툰 이 사건은 얼마나 사소하고 하찮은 일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살마리가 되어 보그스 지사는 미주리주에서 성도들을 추방하도록 멸절령을 내렸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죽음과 고통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분쟁을 해결해야 할 그분이 오히려 그것을 부채질해서 교회의 역원들을 괴롭히고 문자 그대로 수라장이 되게 했습니다. 그

는 교회에서 지위를 잃었고 복음에 대한 자신의 간증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는 19년 동안 가난과 암흑과 고통과 투병과 외로움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는 나이보다 더 늙었습니다. 결국 구세주의 비유에서 돌아온 방자처럼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식하고 고승스럽게 이 계곡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브리검 영 대관장에게 그를 용서해 줄 것과 교회에서 다시 침례받도록 허락해 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그는 십이사도 평의회 초대 회장이었으며 커틀랜드 시대와 초기 파웨스트 시대에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분입니다. 이제 그는 주님의 집에 문지기가 될 것을 간청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한 경우를 보아 왔습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드린 것은 우리가 이것을 거울삼아 이 위대하고 영적인 대회를 마치고 떠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대로 생활하고 충실하고 참되며 다름과 분쟁이 될 사소한 일에 초연할 수 있고 서로 용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 (엘머서 37 : 47) 힘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넘어지기를 쉬운 일입니다. 때때로 사소한 일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의 음성을 낮추는 일은 심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며 자녀들은 거룩한 생득권을 갖고 태어났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참여하며 전능자에 의해 회복된 신권의 복혜자로 그의 아들과 딸들을 축복할 수 있는 자들임을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남과의 거래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동해야겠습니다.

어떤 오만이나 자만이라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하며 우리가 사귀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와 존경으로 대합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화평이 여러분의 가정에 깃들며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의 신성성과 진실성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

광주 신학 연구원 졸업식 및 입학식



졸업식을 마치고 신원지도자들과 함께

1984학년도 광주 신학 연구원 졸업식 및 입학식이 3월 1일 오후 2시부터 광주 스테이크 센터에서 많은 신원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이날 스테이크 합창단인 "구모라" 합창단원들은 졸업생들과 신입생들을 위한 축하를 불러 주었으며 62명의 신입생을 대표하여 황 신하 형제가 신입생 선서를 하였다.

한편 11명의 졸업생들은 임 종하 원장으로부터 졸업장을 받았으며 졸업생 대표로 이 인호 형제가 간증을 전해 주었다.

이형제의 간증에 이어서 임 종하 원장과 박 하천 스테이크 부장은 "경전의 중요성"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 "교육의 중요성"에 관하여 말씀해 주었다. *

한국 선교사 훈련원 제41기 과정 수료

한국 선교사 훈련원 제41기 과정을 마친 9명의 선교사들이 현재 각각 임지에서 봉사 중이다.

다음은 선교사들의 명단이며 괄호 안은 출신 와드, 지부의 명칭이다.

- 다 음 -

홍 연호 장로(광주, 풍향 와드), 김 동환 장로(광주, 풍향 와드), 홍 기범 장로(농아 지부), 변 춘구 장로(부산, 진주 와드), 허 정옥 자매(영동, 성남 와드), 서 미정 자매(영동, 성남 와드), 정 은숙 자매(동대문, 용두 와드), 김 현숙 자매(강서, 신원 지부), 김 나영 자매(부산, 광안 와드) *

제갈 혜인 자매 문교부 장관상 수상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하여 경남 지역에서 한 명을 선발하는 모범 청소년으로 울산 지부의 제갈 혜인 자매가 권 이혁 문교부 장관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현재 울산 여중에 재학중인 제갈 혜인 자매는 5월 8일 울산시 교육청에서 교육청장을 비롯하여 임직원 및 많은 교육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예의 모범 청소년으로 뽑혔다.

제갈 자매는 부친인 제갈 달이 형제의 둘째딸로 1982년 11월에 침례를 받고 회원이 되었으며 동생인 제갈 우후 형제, 언니인 제갈 혜숙 자매와 함께 교회에서 활동적인 회원이다.

제갈 자매는 신학 연구원 중등부에서도 모범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농아를 위하여 수화 통역을 맡고 있다.

한편 울산 여중에서는 전교생이 모인 가운데 다시 시상식을 거행하여 제갈 혜인 자매를 표창하였으며 울산 여중의 커다란 자랑거리가 되었다. *